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A r t  
B u s i n e s s

Collaboration

“왜 예술인이 복지관에 찾아왔겠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해해 잘 몰랐었죠.”



## 책책도 내고 전시도 하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은 자신보다는 늘 타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최은경 예술인은 그들의 의 꿈과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했다.

최은경 예술인(맨 오른쪽)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사업 기간 동안 직접 그렸던 그들의 그림을 엮어낸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 Contents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 Art Business Collaboration\_Story

- 04 Contents
- 0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인사말

## Part 1. 참여기관을 부탁해

## Part 2. 예술인의 직무유형

- 21 조직문화\_ 소개+목차
  - 22 조직문화\_ 아이코닉스
  - 27 조직문화\_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 29 조직문화\_ 누리안 인터내셔널
  - 32 조직문화\_ 한국여성재단
- 
- 35 인력개발\_ 소개+목차
  - 36 인력개발\_ 스킨큐어
  - 42 인력개발\_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44 인력개발\_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47 제품/서비스\_ 소개+목차
- 48 제품/서비스\_ eLC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 52 제품/서비스\_ 국방부
- 54 제품/서비스\_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 56 제품/서비스\_ 성남수정경찰서
- 58 제품/서비스\_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60 제품/서비스\_ 한울요양병원
- 61 제품/서비스\_ 언어치료AAC센터사람과소통

- 6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_ 소개+목차
- 6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_ 인천탁주
- 68 마케팅 커뮤니케이션\_ 샘표식품
- 7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_ 출판놀이출판사
- 7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_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

## 74 퍼실리테이터 인터뷰

- 83 자원재생\_ 소개+목차
- 84 자원재생\_ 제일모직 CSR
- 86 자원재생\_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전시소개**  
나는 그들이 내놓고 키우는 화분이나 거칠게 칠해져 갈라진 사이로 들끓어 난 시멘트 바닥, 차 못 들어오게 세워 놓은 녹슨 드럼통에 고봉으로 부은 시멘트 탑 따위를 보며 그 낯것의 조형미에 감흥을 받으며 현장에서 드로잉을 시작했다. 내게 감흥이 오는 것들은 참지 않고 바로 드로잉 했고 만나지는 상인들과 주민들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사사로운 수다를 나누며 그곳의 오후를 함께 했다. 보여지는 모습과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 난 명학시장을 구경하기 시작해서 관찰하며 익숙해졌고 남만을 발견함과 동시에 반복되고 있는 삶도 볼 수 있었다. 그럼으로 담아내며 그것을 느끼는 일은 더디고 발똥이 들고 더웠고 어색했고 뻔뻔했다. 스스로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에 정성을 들였더니 점점이 쌓인 그림에선 이야기가 들렸고 냄새가 났고 소리가 들렸고 먹운기가 배어나왔다.

오후의 명학시장 상점엔 손님이 없었지만 한가로웠고, 2층의 화장실은 서늘해도 옥상 위 화분엔 햇빛이 뜨거웠다. 건물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와 마음썸썸이 온기, 서로 맺어진 관계가 배어나와 아우라를 뿜어대는 <명학시장>의 오후는 아주 일상적이고 적절하게 단란하다.

**작가소개**  
**전지** 생활이나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와 장면을 드로잉하고 만화로 엮습니다. 기운이 좋고 발이 빨라 잘 돌아다니는 편이어서 좋아하는 동네 몇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직접 만든 만화책이나 그림책을 판매하면서 연필로초상, 먹물로초상을 그려파는 이동상점 <전지의 작가시점>을 운영 중입니다. 펴낸 책으로는 <단편만화수필집 꿈>, 가족수화화 얼마면 <있을재 구슬속>이 있습니다.

2015.11.2-12.31  
월-토 10:00-17:00 \*일요일 휴관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서울시 NPO 지원센터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 Contents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 90 지역 공간\_ 소개+목차
- 91 지역 공간\_ 정읍시청
- 94 지역 공간\_ 부산시 사하구청
- 96 지역 공간\_ 부여슈퍼
- 98 지역 공간\_ 빈센트 반고흐
- 100 지역 공간\_ 보스토크
- 102 지역 공간\_ 서울시 중구보건소

- 105 지역특성화\_ 소개+목차
- 106 지역특성화\_ 양평+원주중앙
- 110 지역특성화\_ 연천+백학
- 112 지역특성화\_ 이야기너머
- 114 지역특성화\_ 석수유동
- 115 지역특성화\_ 강화고려역사재단

- 117 공동체 문화\_ 소개+목차
- 118 공동체 문화\_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 121 공동체 문화\_ 가리봉재생사업단
- 123 공동체 문화\_ 서곡생태마을
- 125 공동체 문화\_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 128 주민역량강화\_ 소개+목차
- 129 주민역량강화\_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 133 주민역량강화\_ 서초구립반포도서관
- 135 주민역량강화\_ 당진시노인복지관
- 137 주민역량강화\_ 강화풍물시장
- 138 주민역량강화\_ 교하도서관
- 140 주민역량강화\_ 남양주희망케어센터
- 141 주민역량강화\_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Project List

- 142 Project List
- 146 사업 구성원 소개



강화풍물시장 연극만들기 프로젝트

# 가족사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야기!



2015. 10. 16(금)~17(토) 오후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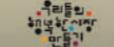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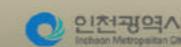
배우 김은중 이은정 정복남 구자승 신희승 이충현

작 공동창작 / 연출 윤승훈

장소 강화풍물시장 2층 상인교육관

문의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032) 933-8858

강화풍물시장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근하는 예술가들

지난 4월에 진행하였던 예술인일자리박람회 행사가 떠오릅니다.

그 행사의 부제는 “출근하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파견(派遣)’이란 단어는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파견’을 조금 다르게 풀어 보았으면 합니다.

# 파견 破見

# 부수고, 바라보다

사회 속 기존의 고정된 예술활동 인식과, 그 틀을 “무너뜨리고”, 또한 예술인 스스로도 작업실 안에서 안주해 온 예술활동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예술 생태계를 함께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예술의 존재 의미를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찾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예술인 스스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대 예술환경과 예술 생태계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처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시혜적인 복지개념을 넘어 예술인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예술인 복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438명의 파견 예술인들과 60명의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전국 190여개 기관에 파견되어 스스로는 고정된 일터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파견기관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에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술인에게는 단순한 부업이 아닌,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부업’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신의 능력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예술인이 일하게 되는 기업, 기관, 지역 입장에서도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파견기관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예술인과 기관 양측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업이 예술활동인 예술인의 자기 역량으로 새로운 부업이 가능한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야말로 예술인 복지에 있어 파격적이며 실험적인 시도였다고 자부합니다.

## 초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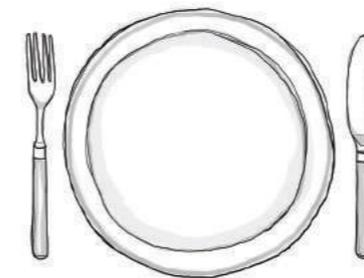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지나 온 2015년의 여정 중 몇몇 발자국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나온 발자국의 깊이와 이제까지의 흔적들은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간은 초행길이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을 리 없습니다. 그 초행길에 마음열고 동행해 준 예술인들과 기관, 기업, 지역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드림

# 모호한 부탁. 상상하지 못했던 레시피.

“처치 곤란, 천덕꾸러기 냉장고 재료의 신분상승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당신의 냉장고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모 방송사 인기 요리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다. 냉장고 안에 방치되어있던 재료들을 쓰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버리자니 그럴 수는 없다. 결국 냉장고 주인은 셰프를 찾아간다. 자신의 냉장고를 통째로 가지고... 그리고 냉장고의 주인은 셰프에게 부탁한다. **“과음한 다음 날 내 속을 달래줄 요리”,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고급진 요리”...**

부탁이 이상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 간단할 텐데 뭔가 애매하다. 하지만 셰프들은 냉장고 주인들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뜨지 않는다. 오히려 냉장고 주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요리를 내놓고서 그들을 놀라게 한다.

만일 냉장고 주인이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이 프로그램은 몇 달도 못 가서 문을 닫았을 것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면 그것은 고민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말 그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셰프들은 매주 그렇게 혁신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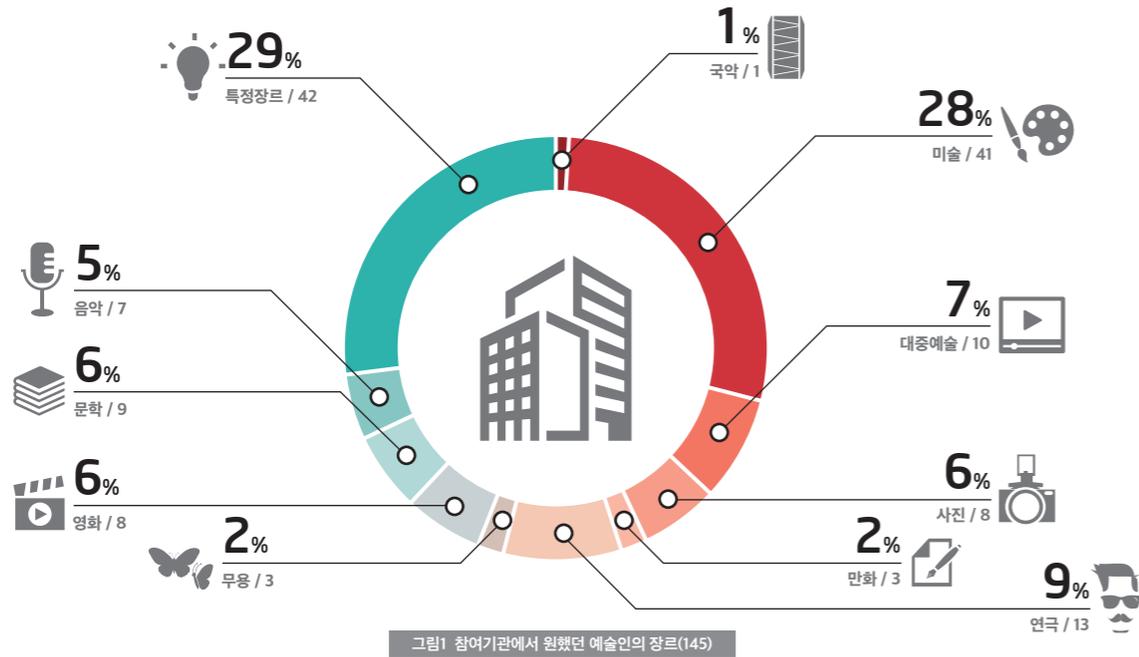
# Part 1

## 참여기관을 부탁해

# 메뉴판에 없는 메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참여기관 중 모 기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담당자를 통해 들었던 대답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예술인을 파견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어만 들었을 때는 왠지 예술인을 계약직으로 기업에 파견 보내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파견되는 예술인은 재능을 제공하는 기능인이 아니다. 이들은 정해진 메뉴를 만들지 않는다.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요리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특별히 원하는 구체적인 바도 없고, 예술인들은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술인의 특정 장르를 정해두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기관이 2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기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로부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길 원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참여기관은 이미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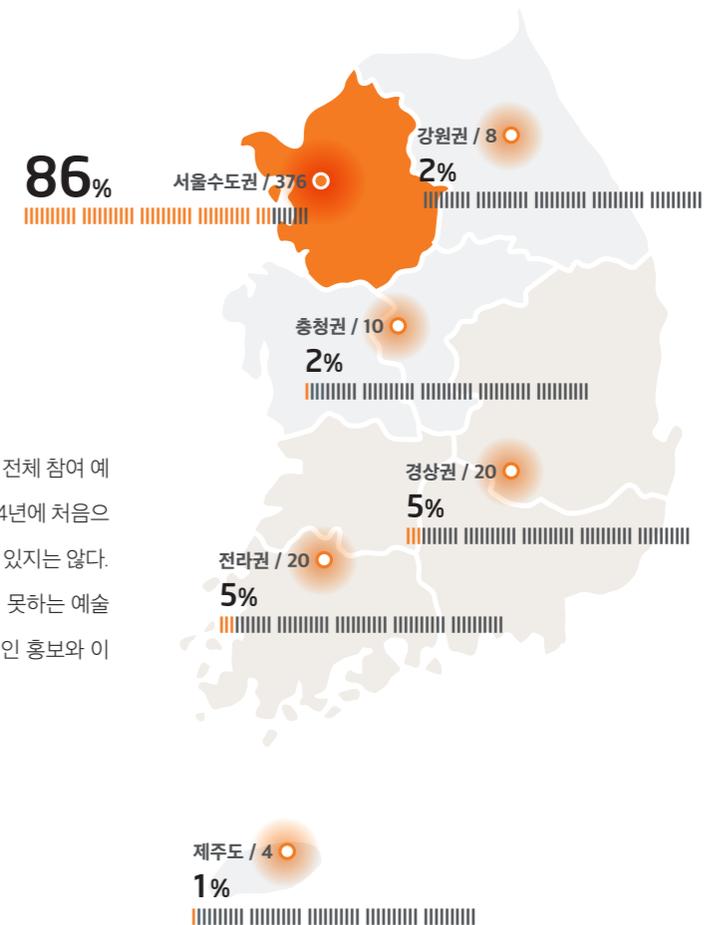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은 성과라는 목표가 있기에 이성적 사고방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예술이라는 감성은 낯선 것이고, 또 멀다. 전년도 사업에 기관으로 참여했던 한 도서관의 사서가 전했던 말이 떠오른다. “도서관에 예술이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각종 업무에 지쳐있는 사서들, 정적인 이미지의 도서관. 이들은 낯설게만 느껴지던 예술인을 직접 만났고 그의 작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예술이 일상의 공기를 즐겁게 만드는 과정을 체험했다. **무엇인가 골치 아픈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때, 기업이나 기관은 예술인의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생각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성적 사고에 지쳐있던 좌뇌를 잠시 쉬게 하고 기관과 예술인이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190명의 냉장고 주인, 438명의 셰프들.

190개의 희망 요리, 438명의 요리사

앞에서 예로 들었던 방송 프로그램의 냉장고 주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기업이 된다. 또 공공기관이 되기도 하고,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줄여서 ‘참여기관’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셰프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찾아온 참여기관은 190개, 예술인은 438명이다. 190명의 냉장고 주인과 438명의 셰프가 만나게 된 것이다. 우선 438명의 셰프들을 살펴보자.



아쉽게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의 사업임에도 전체 참여 예술인의 86%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아직 많은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심지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예술인도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2 예술인의 지역 분포(438)

장르 분포는 미술 장르의 예술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참여기관의 28%가 '미술'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술인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미술이라는 장르가 워낙 다양한 세부장르로 나뉘기도 하는, 광범위한 장르이며 한국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 중 다수가 미술 장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치일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술인은 10개의 장르로 다양하며, 각 장르의 특성에 따라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나뉜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세프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젠 요리를 부탁할 냉장고 주인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그림3 예술인의 장르 분포(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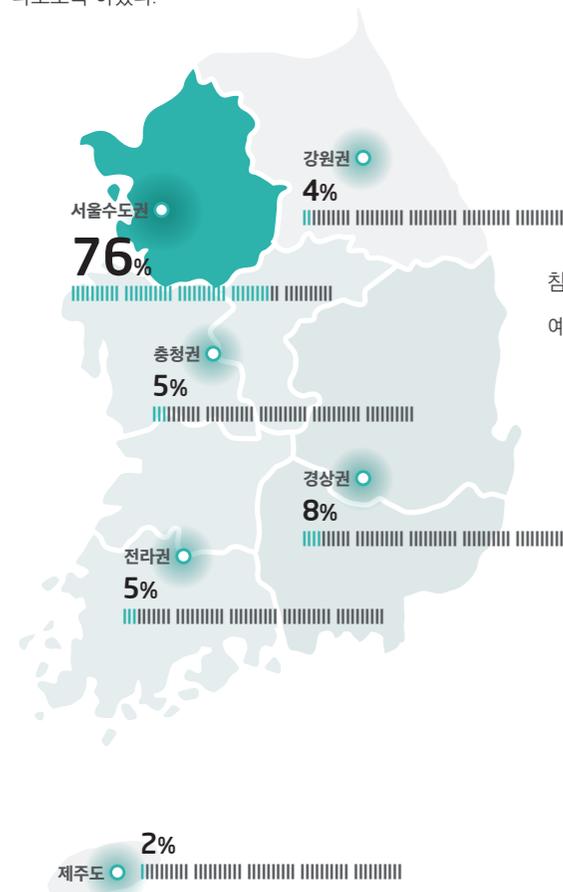


그림4 참여기관 지역 분포(190)

참여기관 역시 전체 190개 중 76%에 해당하는 144개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예술인의 지역 균형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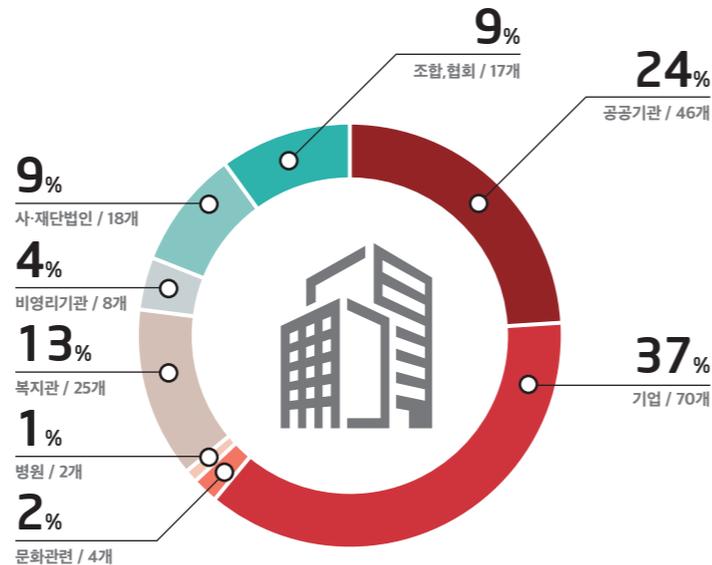


그림5 참여기관 유형 분포(190)

참여기관의 유형으로는 '기업'이 70개로 37%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시청이나 군청 등의 공공기관은 46개로 24%를 차지했다. 더불어 참여기관 중 18%는 '예술 복지' 차원으로 병원이나 복지관 및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었다. 예술에 관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에 의미를 심고 가치를 일구어내는 부문에 있어서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신경을 쓰고 있다.

# 어떤 맛의 요리를 즐길 수 있을까.

## 참여기관의 수요에 해당되는 9개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요리가 있다. 하지만 맛은 단순히 몇 가지로 구분된다. 물론 그 맛을 세밀하게 표현한다면 - 이를테면, '바다를 만나는 맛' 같은 -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우선 우리 혀가 느끼는 맛은 맵고 짜고 달고 쓴 것이 전부다. 예술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소개한 10개의 장르로 나뉜 438명의 예술인의 창의성은 저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마치 허처럼, 예술인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직무 유형	유형 소개	유형 예시
1 조직문화	조직의 문화 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예술적 개입	문화향유, 조직 내 워크숍 기획, 동아리 및 동호회 지원, 공간개선, 팀문화 투영과 혁신, 예술적 워크숍을 통한 팀워크 문화 증진 등
2 인력개발	조직원의 인적역량강화(HRD)를 위한 예술적 개입	HRD, 조직원 창의력 강화, 담당 직무별 역량 강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등
3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예술적 개입	제품/서비스/생산기술 R&D, 제품/서비스 기획, 생산라인 효율성 강화 등
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리)브랜딩, 기업의 제품/서비스 등과 관련된 의도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홍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예술적 개입	기업 스토리 개발, 슬로건 기획/개발, 기업캠페인, 팀 주제음악 작곡, 제품/서비스 브랜딩, 제품/서비스 프로모션 등
5 공동체 문화	지역 주민 간 상호관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지역 주민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술적 반사회, 우리동네이야기 등
6 주민역량강화	지역 주민의 개인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지역 동아리 프로그램, 실버세대 재취업 목적 역량 강화 등
7 지역공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재생을 위한 예술적 개입	공간 활용 프로그램, 공간재생을 통한 주민전용 심터 조성 등
8 지역특성화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차원에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원, 지역성을 기반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목적에 예술적 개입	특산물 브랜딩, 시장 특성화, 관광상품개발, 지역 브랜딩, 지역 스토리 개발 등
9 자원재생	기업이나 지역에서 폐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에 예술적 개입	폐자원을 활용한 신사업개발(기업), 폐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나 특정 커뮤니티와 리/업사이클링 캠페인(기업), 폐자원을 활용한 마케팅(기업), 지역의 폐자원(공간, 시설, 폐기물 등의 리/업사이클링(지역)

표1 예술인의 직무유형 구분

표 1은 모든 회사에서 부서마다, 개인마다의 직무가 있듯이 예술인에게도 프로젝트의 유형이라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예술인들의 활동 자체를 9개라는 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이다.)

자, 다시 냉장고 주인에게 돌아오자. 앞서 언급했듯, 참여기관에서는 '처치 곤란한 문제'가 있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참여기관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참여기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의 문을 두드렸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로부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그림6 참여기관 대상 설문조사, "사업 참여 목적"



그림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 유형 분류

본 데이터는 190개의 참여기관 중 140개의 기관에서 응답(응답률:74%)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한 데이터다. 특히, 지역 주민 간 상호관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27%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참여기관에서 원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메뉴로 내놓았을까?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관은 190개인데 프로젝트는 255개다. 이는 하나의 기관에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공동체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프로젝트가 69건으로, 전체 중 27%를 차지했다. 이를 포함하여 '소통'과 관련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55%(조직문화 개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문화 유형)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기관이 얻고자 했던 것은 '상호간의 교류'와 같은 '감정'에 관한 요구가 다수임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참여기관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해결 하길 원했던 유형과 실제 진행된 프로젝트의 유형이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술인이 참여기관의 이슈를 중심으로 예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에 집중했음**을 의미한다.

감동은 디테일에서 온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귀에 맴돈다. 여기에 운동선수와 셰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선수는 과거 어느 인터뷰에서 버섯을 좋아한다고 했다. 냉장고를 부탁한다는 이 프로그램에서 셰프가 이 선수에게 버섯을 주재료로 한 메뉴를 낸다면, 음식을 먹는 이는 감동을 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요리를 해주었다는 것. 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참여기관과 예술인은 매칭된 이후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원하는 것, 지금의 상황, 고민이 되는 부분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인이 참여기관에 적응하고 스테디 해나가는 과정과 시간을 기다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때문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표2 예술인 장르별 활동유형 구분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가 참여예술인의 수인 438명과 다른 것은 한 예술인이 다른 예술인의 프로젝트에 협업을 했거나, 6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이는 예술인 한 명이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의 참여기관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때문에 190개의 기관에서 438명의 예술인이 25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술 장르 예술인의 경우를 보면 그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동체 문화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활동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기관의 입장이라면, 기관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셰프들(예술인)에게서 맛보길 원하는 요리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형을 많이 실현한 예술인의 장르는 무엇인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참여기관을 부탁해”

## 기업 CBI(Critical Business Issue)와 지역의 난제를 예술로 해결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맛이 어떻습니까! 흠입니까아아아아?”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파견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요리에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76%의 기관이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 9%의 기관은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사실 세트 중에는 불행하게도 야메요리사가 있기도 하다.) 나의 부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인 중에서도 실력과 작업의 퀄리티는 출중하지만, 개인 작업을 위주로 하는 경우, 사회에서의 협업이 부담스럽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의 부족한 창의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한 참여기관의 인터뷰에서 담당자가 말했다. 이 사업은 결코 예술인들로 하여금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도모하려는 ‘야심찬’ 사업이 아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의 사업도 아니다. 그저 한 스푼을 넣을 뿐이다. 완자를 만드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잘 묻쳐지지 않는단다. 시간은 없고, 완자는 자꾸 부스러진다. 옆에서 누군가 계란을 살짝 넣어주니 웬걸. 완자가 뽕뽕 묻쳐진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예술인은, 뭔가 막혀있는 이 상황에 새로운 관점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들이다. 요리를 했는데 비린내가 난다면, 레몬즙을 넣으면 냄새를 잡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다.

올 한 해 진행된 프로젝트 중 결과론적으로나, 과정상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려 한다. 더불어 앞서 소개한 예술인의 9가지 직무유형에 따라 그 유형의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감성’을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감성이 사라지면 이성이 남고 그것은 곧 행위에 따른 결과만을 쫓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공식’이나 ‘관습’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는 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예술인의 창의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참여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예술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라는 분야가 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접목될 수 있으며, 예술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의 직업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참여기관들은 처치 곤란한 상황을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통해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귀사의 이슈에 대하여 기존에 없었던,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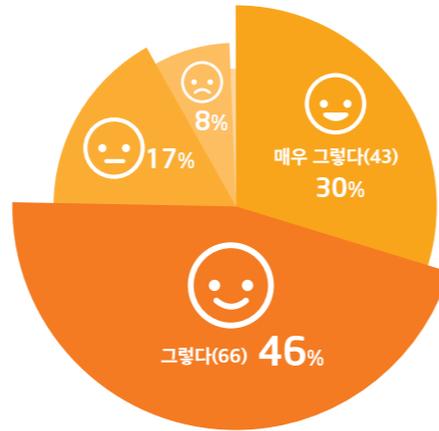


표3 참여기관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 중 (응답률 74%)

# Part 2

## 예술인의 직무유형

## Part 2

예술인의 직무유형

**조직문화** 아이코닉스, 대구사람유치원연합회, 누리안 인터내셔널, 한국여성재단

**인력개발** 스킨큐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제품/서비스** eLC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국방부,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남수정경찰서,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요양병원, 언어치료AAC센터사람과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천탁주, 샘표식품, 출판놀이출판사,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

**퍼실리테이터 인터뷰**

**자원재생** 제일모직 CSR,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지역 공간** 정읍시청, 부산시 사하구청, 부여슈퍼, 빈센트 반고흐, 보스토크, 서울시 중구보건소

**지역특성화** 양평+원주중앙, 연천+백학, 이야기너머, 석수유통, 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체 문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가리봉재생사업단, 서곡생태마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주민역량강화** 관악주민연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당진시노인복지관, 강화풍물시장, 교하도서관,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Part 2-1

### 조직문화

아이코닉스  
대구사람유치원연합회  
누리안 인터내셔널  
한국여성재단

#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아이코닉스

김형관(미술), 이민하(미술)



**성과와 실적이라는 땀별이 내리쬐는 기업에, 기업의 논리가 잠시 멈춘 그늘을 만든다.**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은 이윤을 위해 설계되고, 조직문화는 성과와 실적을 위한 업무 환경 정도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영리와 이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같은 칼로리를 투입해도 음식이 지닌 맛에 따라 전혀 다른 산출을 만들어 내고, 정확히 같은 맛과 칼로리를 섭취해도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민하, 김형관 작가는 바로 이 지점, 직원들의 관계와 마음에 주목하고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두 작가는 성과와 실적이라는 땀별이 내리쬐는 기업에,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그늘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기업의 논리가 잠시 멈춘 그 그늘 아래서 아이코닉스 직원 열다섯 명과 함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가장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진행하였다.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쓸데없음의 쓸모를 고민하다.**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회사 안에 '쓸데없는' 행위들을 만들고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소통'이었다. 수백 명의 조직원이 하루하루의 목표를 위해 기능하는 거대 조직 안에서 소통은 지시, 보고, 분담, 협의와 같은 업무적인 소통이 대부분이고, 식사나 차를 마시며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소통들 또한 업무를 함께 하는 조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눌 일 없었던 '남'으로 지내온 조직원들이 모여 업무 외적인 소통을 나눌 때, 직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두 작가는 명함에 회사로고만 공유한 채 지내오던 다양한 팀의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개인적인(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 역시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쓸데없는 고민'들 이었다. '나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조차 없다'든지, '나는 바닐라 향이 너무 좋아서 세계 각국의 바닐라 향을 모아오고 있다', '출근길에 판교는 길이 너무 막히고 양체 운전족들이 많아서 나는 출근길에 사실 많은 욕설을 내뱉고 있다'는 내밀한 고민들이 공유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나누어감과 동시에 '쓸데없는 놀이'를 함께했다. 이집트 상형문자를 배워서 파피루스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써보고, 계란을 세우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다. 또, 명리학을 공부한 작가와 함께 자신에게 다가올 화와 복을 가능해 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ICONIX



**쓸데없음의 쓸모를 전시하다.**

쓸데없는 고민과 놀이, 그리고 소통이 쌓여가면서 참여자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참여자는, 고양이라면 죽고 못 사는 직원을 만났다. 용기를 내어 고양이를 그려보기 시작하였다. 출근길에 양치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던 참여자는 자신의 블랙박스 파일을 모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순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담은 블랙박스 파일을 모아 나갔다. 바닐라 향을 모으던 참여자는, 바닐라향 큐레이터가 되어 바닐라향의 사랑스러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른 참여자들도 자기 자신을 담은 전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다.

예술인 파견사업의 마지막 달인 10월 13일, 6개월간 이루어진 아이코닉스 직원 열 다섯 명의 '쓸데없는' 소통과 놀이 그리고 고민은 전시가 되어 100여명의 아이코닉스 직원을 만났다. 블랙박스영상을 편집한 영상 작품, 고양이 모양의 쿠션에 자신과 동료의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적은 설치작품, 자신의 꿈에 대한 인터뷰를 나타낸 퍼포먼스 작품까지 십여 편의 작품이 사옥의 중심에 전시되었다. 미처 고민을 작품으로 완성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전시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오프닝 파티의 음식을 준비하며 함께 했다. 또한 전시장에는 함께 했던 놀이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보였다. 참여자의 이름은 함께 배운 이집트 상형문자로 전시장을 장식했다.

창업 때부터 아이코닉스와 함께 했던 한 선임직원은 전시를 보며 뿌로로가 탄생하던 10여 년 전을 회상했다. **“그때는 우리가 몇 명 안 되었었으니까... 정말 다 알았지. 저 친구는 딸이 많아서 점심에 매운걸 안 먹는다, 저 친구는 여자 친구랑 헤어지 지 얼마 안되어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 까지도 말아야. 근데 지금은 가끔 결재서류 보다가 이름을 보면 얼굴도 가물가물 할 때가 많아.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사육도 생기고 좋지만...”**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선임직원의 흐려진 말끝 뒤로 어떤 말이 생략되었는지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전시를 마친 참여자들은 출퇴근길에 부쩍 인사가 늘었다. 자신이 무서워하는 고양이에 대해 전시한 직원은 '아직도 무서워 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정말 예뻐서 하나도 안 무서워 하실꺼예요'하면서 고양이 사진을 들이키는 동료직원들이 많아져서 고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닐라 전시를 했던 참여자는 회사 곳곳에 숨어있던 바닐라 고수들을 만났다. 층이 다르고, 부서가 달라서 말을 섞어보지 못했던 직원들 사이에 인사와 이야기가 늘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새로운 직원을 만나면 어느 부서이지 하는 궁금함 뒤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다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 ICONIX

●○○○

기적의 조건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는 소소하지만 동시에 놀랍다. 이제 막 2년차 실험에 접어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아직은 부족한 시스템과 야근과 주말근무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직장생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적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민하, 김형관 작가는 직관과 예측보다 철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갔다. 프로젝트가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업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점을 찾기 위해 며칠동안 직장인들을 출퇴근길을 따라 걷고, 점심시간을 관찰하며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주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신, 2주에 한번 참여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실에 찾아가 참여자를 만났다.

다함께 미술관을 찾을 때에도 하나의 전시를 뽑아 공지하고 인솔해 가는 대신, 개개인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전시들의 리스트를 뽑아 전시 작가와 작품을 미리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들의 개입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도가 낮거나, 고민의 속도가 느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대로 모여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작품의 방향과 수준을 고민하는 참여자에게는 완성도 높은 다양한 사례를 맞춤형으로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기준을 높여나갔다.

조직문화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매년 많은 기업들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기업의 이슈로 조직문화를 첫 손에 뽐는다. 기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생각하고 계신 방법들을 물어보면 무엇인가 '쓸데없는' 일들로 가득 차있다. 결국 그 '쓸데'라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이를 위한 '채용 경쟁력', '낮은 이직률'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조직의 창의성은 구성원 개인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쓸데없는' 일만 하는 개인에게서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함께, 일과 성과에 편중된 조직 안에 작은 그늘을 만들어 쓸데없는 일들을 함께 작당해 볼 것을 제안한다. ☺



○○●○

# 선생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관 명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프로젝트 명	유치원 관계자 힐링 프로젝트 문학과 문화재로 힐링하기 찾아가는 현장 유치원 교육
파견 예술인	김경민(문학), 김정묘(문학), 황원철(미술)
프로젝트 소개	유치원 교사들이 동화책을 읽고 직접 만들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내면 이야기에 집중하는 글쓰기를 통해 자존감 회복과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 프로젝트와, 유치원 유아 예능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해 미술교육이론, 아동화 이론 등 미술교육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서울의 문화유적지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지방 교사들을 위해 서울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교육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사회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스트레스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 교육서비스 분야는 타 직업 군에 비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특히 초, 중,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업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유치원 교사는 그 중에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지방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에 파견된 세 명의 예술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예술인 3명 모두 연령대가 다소 높고, 두 예술인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예술인과 기관 모두 만족스러운 6개월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예술인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콘텐츠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지방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미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프로젝트다.

적은 봉급과 격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김경민 작가는 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다.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림책들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동화 이야기를 만들며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참여 교사들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작가님이 서로 위로가 되는 따뜻한 그림책들을 한아름씩 찾아와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며 계속 이런 활동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고, 향후 유치원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해했다. 그림책 만들기가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힐링 시간이었다면, 김정묘 작가의 <한 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유치원 교사들이 보다 깊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뽕 자서전 쓰기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나’가 아닌 본연의 ‘나 자신’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 쓰기, 나에게 편지쓰기, 나의 행복에 대해 쓰기 등 치유 글쓰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관계자로 늘 밝고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중압감이 글쓰기를 통해 가벼워지고,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다는 김정묘 작가는 **“참여자 분들이 글을 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유치원 교사 업무를 하면서 생겨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예술인들은 유치원 교사들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도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황원철 작가의 <찾아가는 현장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은 일종의 유치원 유아 예능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미술교육의 역사 및 미술교육이론, 아동화 이론 등 미술교육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아동들이 그린 그림을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실제 지도활동도 함께했다. 유치원 교사들이 실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음 뿐만 아니라 고령 예술인이 가진 사회적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풍성한 활동을 전개한 긍정적인 사례였다는 후문이다. 그 밖에도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을 서울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이 내용을 유치원 교사들에게 소개하여 서울 유적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거리적인 문제로 인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의 문화 유적들을 수월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며, 이번 기회로 서울에 대한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깊어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예술은 인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한 3명 예술인의 활동이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예술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미술교육을 통해 향후 예술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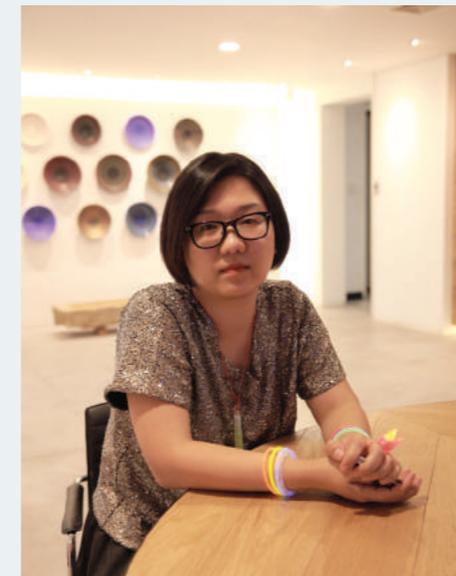


인터뷰를 다니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다. **“홍대 쪽에서 그림 작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작업 참 재미있어요.”** 뭐 이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이들은 나이에 무관하게 서로를 친구라고 한다는 점이다. 내심 부러웠다. 그런 마인드가.

어쨌든 이번에 만나게 될 기업은 의류 패션회사 누리안 인터내셔널(이하 누리안)이다. 누리안은 예술과 접목하여 기업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시작했다.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내 사회인들의 메마른 현실을 예술로 해소하며, 즐거움과 여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바이다. 패션 회사답게, 5개월 간 폐섬유를 활용한 Bucket Lis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보라 작가와 김은미 작가는 사회가 제시한 기업 안에서의 위치를 떠나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누리안 조직 내의 상하관계를 허물고 예술 안에서 서로 친구처럼 수평적인 만남을 가졌다. 누리안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인 것처럼 개인의 바람이 적힌 작은 조각이 서로 어우러져 커다란 하나의 Nurian & bucket list 가 완성된 것이다.

## 우리 친구 할래요?

기관명	누리안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명	누리안은 친구다
파견 예술인	김은미(미술), 이보라(미술), 김은정(연극), 김주현(미술)
프로젝트 소개	일상에 지쳐 메마른 중소기업에 예술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 기존의 상하관계를 허물고 예술 안에서 서로 친구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 공연을 감상한 후 이와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실제 연극 수업까지 진행한 '누리 액트'. 직원들이 각자의 소망과 생각을 원단 조각에 적고 다 함께 이어 설치 조형물을 만드는 'Nurian & Bucket list', 잠시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디스코 테마 속에서 함께 신나게 즐기는 '누리안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누리안 인터내셔널’ 김은영 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누리안 대표님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그 시작이었다고 전한다. “옷을 만드는 직업은 시간에 많이 쫓기고, 업무량이 많아서 꿈꿔왔던 것들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한 여러 분들이 선정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받아서 참 흥미로웠어요.”

패션회사는 필자 같이 비패션인(?)의 상상대로 옷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꼭 옷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직원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매출로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은영 부장의 말이다. “해외의 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00~3,000여명이 옷을 만드는데 저희는 그 직원들이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있는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싶은 거죠.”

“사회와 예술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김은미 작가가 사업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리면서 말문을 열었다. “예술가가 작업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어떤 유용한 가치로 환원 시켜 예술의 카타르시스를 예술가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하여 소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보라 작가의 소감은 재미있다. “신기했어요. 아르바이트나 강사, 편의점 알바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웃음) 자원증을 메고 다니는 것이 가장 신기했고요, ‘회의’라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필자나, 독자 여러분이나 익숙한 상황이 작가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라고 하니 재미있기도 했지만, 아 어쩐지, 기분이 묘하긴 하다.

“기업이 예술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모호하고 폭넓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호할 수밖에. 기업이나 예술가나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가 모호하다. 그것이 또 이 사업의 매력이지 않을까. 기업 리더의 의욕과 실무자들과의 생각의 갭이 보였던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다시금 한 번의 따끔함도 느꼈다.

“회의를 많이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회사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예술을 평소에 먹지 못한 특등급 한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웃음) 예술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인데...” 불쌍하게 보였나보다. 이러면 지는 건데... 그래서 열었다. 파티를! 직원들과 노는 자리를 마련해서 딱딱한 회사생활에 생기를 불어넣는. 더불어 폐섬유를 이용해서 항상 비좁고 정 없는 사무실 공간, 매일 출근하는 곳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콘서트를 하고 내가 있는 공간을 예술로 꾸며 제시해 보고 싶었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참 신나 보였다.

김은미 작가가 말을 이어나간다. “바이어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예술과 접목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서 착안하여, 직원 분들의 참여를 통해 현실 속의 중소기업 안 사회인들의 메마름에 예

술로 즐거움, 여유를 제시하고 싶었어요.(이 대목에서는 우리 회사에도 좀 외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지경이었다) 기업 안에서의 사회가 제시한 위치, 가정에서의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프로젝트로 제시했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 거죠.” 개개인이 글로 작성한 하나하나의 Bucket list는 한국의 조각보에서 착안하여 기하학 도형의 디자인으로 표현했고, 이 조각들이 서로 어우러져 결국엔 커다란 하나의 Nurian & Bucket list가 완성되었다.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조직 내 상하 관계를 허물고 예술 안에서 서로 친구처럼 수평적 만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자 방법이었다.

이렇게 딱딱한 것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목적의 작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던 두 작가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무엇일지 궁금해졌고 이 인터뷰의 끝을 이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예술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 같아요. 대중을 알게 해줬어요. 큐레이터, 비평가들한테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평범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자체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



기관 명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명	동동동 프로젝트
파견 예술인	이윤기(미술)
프로젝트 소개	한국여성재단의 경직되어 있는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하고 직원들의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동동동 프로젝트>는 착한 행동, 충전 활동, 지속적 감동을 위해 직원들이 함께 목각인형, 개인이 사용할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는 목공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를 사무실 내에 배치하여 공간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함께 미술관을 관람하기도 하고 깜짝 선물을 주기도 하는 등 직원 간의 친목도모와 화목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였다.

## 예술로 함께하는 행동, 활동, 감동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의 슬로건이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재단은 시장과 정부로부터 벗어난 ‘제3섹터’의 공익재단으로 진영의 구분 없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업이다.

재단법인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모금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이를 전담하는 기획홍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여성재단은 당초 기획홍보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파견된 예술인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 활동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짜는 것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윤기 예술인이 파견됨으로 인해 한국여성재단은 더욱 큰 선물을 받게 됐다.

이윤기 예술인과 박금희 기획홍보팀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기관 측에서 애초 계획했던 방향과 다르게 프로젝트가 흘러갔다고 들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윤기 예술인** 기존에 기관 측에서 원했던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모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었다. 기획홍보팀에 들어가 일반인들이 한국여성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 더욱 친숙해질 수 있게끔 홍보전략 및 캠페인 전략을 짜주길 바라셨다. 하지만 막상 내가 파견되어보니, 이보다 기관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모금과 재배분의 투명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 긴장감으로 인해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외적인 전략 수립 이전에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기관 측에 제의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한국여성재단 측에서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조금 버린 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

금 더 자유롭게 내가 계획한 것들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제안을 선뜻 승낙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협업에서 비롯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Q.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한다. 취지는 무엇이었나?**

**이윤기 예술인** 한국여성재단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것이 내게는 가장 흥미로웠다. 만남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재미있었고, 이를 행동, 활동, 감동의 단계로 정리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작가가 행동하면 기관 사람들의 활동이 발생하고 그 활동은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컨셉이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에 중점을 두고 내가 먼저 직원들에게 접근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그 결과 목공 활동을 통한 직원 간의 유대감 높이기와 긴장감 이완 등을 해낼 수 있었다.

**Q. 그렇다면 기관 측을 대표하시는 박금희 팀장님의 생각도 궁금하다. 이윤기 작가님과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박금희 팀장** 앞서 작가님이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단연 내부적인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 우선 외부의 예술인이 제3자의 눈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 기관을 진단해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이윤기 작가님이 자신의 주 매체인 목공으로 우리와 함께 사무실을 꾸밀 가구와 인형 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는 실로 모금 캠페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활동이었다. 모금 활동가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에 다른 팀간에 부재했던 소통도 부쩍 늘어났고, 업무 효율성까지 훨씬 높아졌다. 직함이 아닌

개인으로서 각자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 모금을 해 투명하게 쓰고 공정하게 사회에 배분해야 하는 원칙 상 긴장감이 높고 완벽성을 갖춰야 하는 재단 일의 특성을 조금은 허물고, 에너지를 일에서 사람에게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Q.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어떤 의미였는지, 혹은 예술인의 사회 활동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윤기 예술인** “예술가가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한 마을에 예술가가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예술가가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 마을의 아우라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어떠한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회 곳곳에 이러한 좋은 바이러스가 퍼뜨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박금희 팀장** 요즘처럼 테크놀로지가 끝없이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성의 순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술가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갖추려면 의도적으로 예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한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예술가들이 ‘배고픈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혹은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지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천하고 있는 이 움직임, 예술인들이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선교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분명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성과보고회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2015년 한 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신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그리고 기관담당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5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벌써 눈이 내리는 계절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의 끝자락, 6개월간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곁에 찾아온 예술적 변화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용
15:00 - 15:30	참석자 등록
	개회 및 공연, 영상상영
15:30 - 16: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인사말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성과 소개
16:00 - 17:00	2015 우리 곁에 찾아온 예술적 변화들 - 사례 및 발표
17:00 - 18:00	네트워킹 및 공연

\* 위 프로그램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참여자(퍼실리테이터, 파견예술인, 참여기관 담당자)

| 일시 : 2015년 12월 30 (수) 15:00 ~ 18:00

| 장소 :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B2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內)

| 오시는 길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도보 2분 이내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신청방법 : <http://me2.do/FSHdHX3f>

\* 본 행사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00명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 점 너그럽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 확정자들은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goartist@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본 이미지는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사용된 웹초대장입니다

Part 2-2  
인력개발

스킨큐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시와 이야기 공방

## 스킨큐어

윤석정(문학)

아무리 사람 좋은 인사팀장님도, 고민 들어 주는 동네 형과 같을 수는 없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임직원들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기꺼이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다. 사람도 자산이고, 따라서 인적역량강화(HRD)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도 그러한 도움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선의(?)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성과 압박으로 다가온다. '요즘 무슨 고민 있나?'는 사람 좋은 인사팀장님의 질문은 '너 요즘 왜 성과가 안나오나?'는 채근이 된다. 결과물만 잘 만들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터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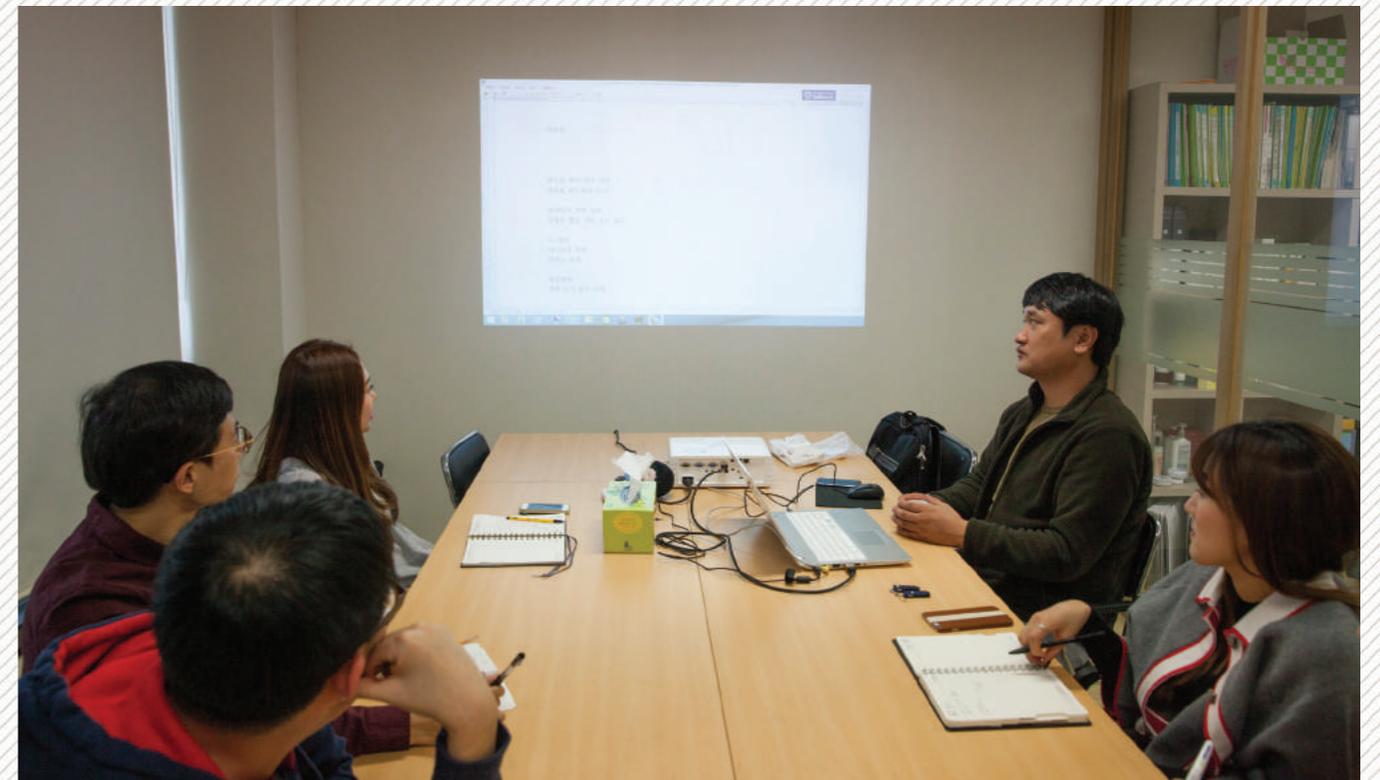
하지만 같은 질문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예술가가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윤석정 작가는 <시와 이야기 공방>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의문을 6개월 동안 실험하였다.

프로그램은 간단하다.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모여 시를 읽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었다. **시 공방**

동시에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1:1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공방**

# SKINC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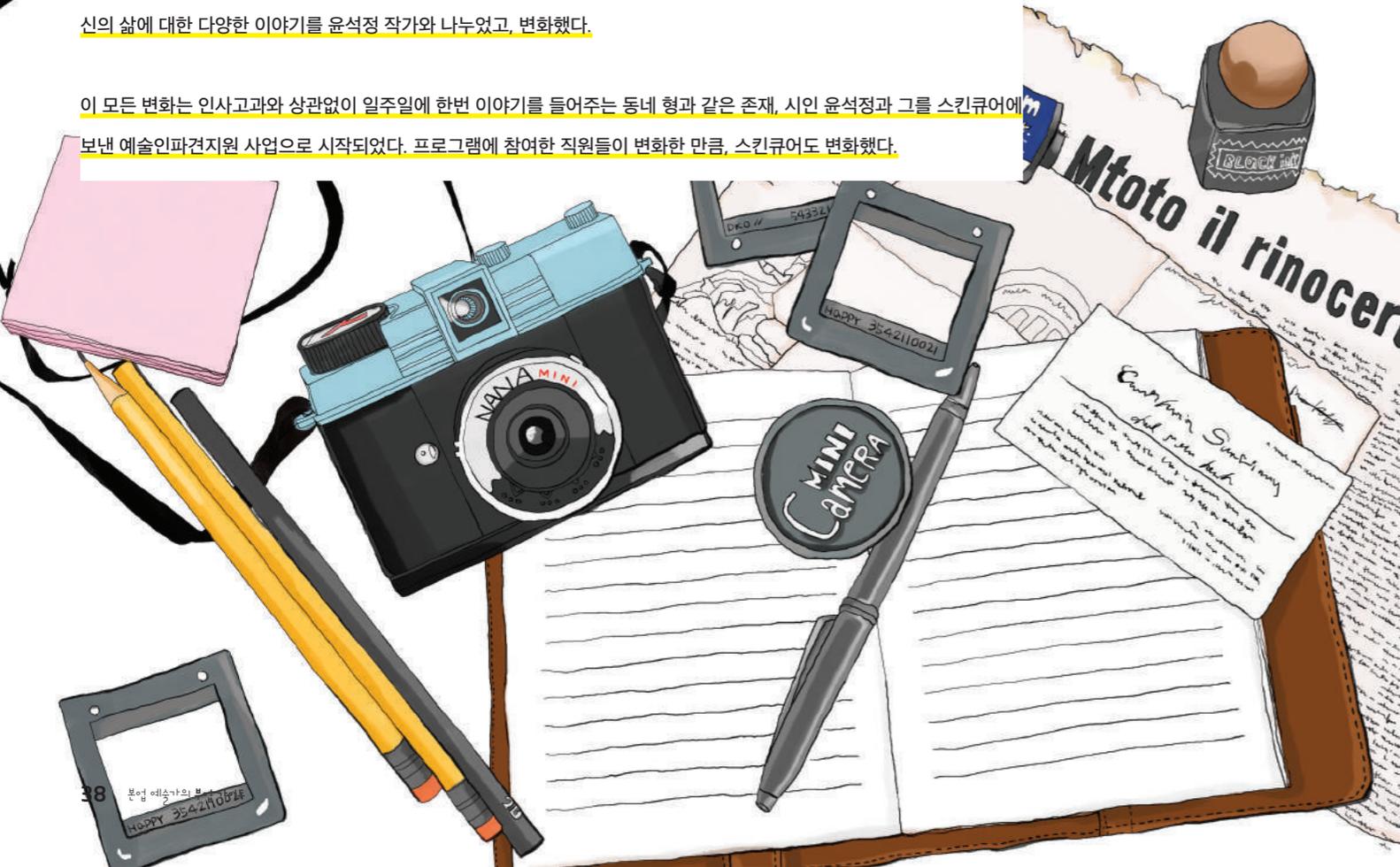
직원 A는 윤석정 작가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A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늘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고, 지금도 기다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아직 어린 시절의 응어리가 마음에 남아서 일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A는 윤석정 작가의 권유에 따라 시간을 정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9월부터 A는 일요일마다 어머니와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다. **월요일 출근길 A의 표정은 밝아졌다.**

직원 B는 여행을 싫어했다. 어디를 가는 것을 정하는 선택이 어려웠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B에게 여행이란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곳을 의미했다. B는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 없었다. 작가와 대화를 통해서 B는 자신이 여행보다 자기 자신과 홀로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행 자체보다 과정에서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B는 늦은 여름 휴가를 카메라와 시집을 들고 일본으로 혼자 떠났다. **B는 스스로를 성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덜 겁내게 되었으며, 취미로 시를 쓴다.**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이야기 공방 시간에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 동시를 쓰기 시작했고, 후반부에는 시 공방 시간에 각자 창작한 시를 공유하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그전에 나누지 못했던 개인적인 대화들이 늘어나고, 직무가 아닌 사람을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스킨케어의 직원들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고민, 불합리한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 사랑과 결혼에 대한 걱정 등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윤석정 작가와 나누었고, 변화했다.

이 모든 변화는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네 형과 같은 존재, 시인 윤석정과 그를 스킨케어에 보낸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이 변화한 만큼, 스킨케어도 변화했다.



### 스킨케어 <시와 이야기 공방>의 성공요인

스킨케어 <시와 이야기 공방>의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예술인과 기업의 열린 자세**를 뽑을 수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처음 스킨케어 찾았을 때, 스킨케어는 홈페이지 리뉴얼, 2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정해두고 있었다. 반면 예술가들을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리서치 과정을 통해 근무 환경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스킨케어는 예술가들에게 모든 직원에 대한 자유로운 인터뷰와, 회사의 대부분의 자료에 열람을 충분한 연람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제안에 귀를 기울였고, 예술가들도 홈페이지 개편 관련된 카피제작, 회사소개 및 홍보 동영상 스토리텔링 등 회사의 필요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소통과정을 통해 기관과 예술인의 의견차이가 좁혀져, <시와 이야기 공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윤석정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들 수 있다. 윤석정 작가는 시인으로, 문학과 타 장르가 결합된 공연 작품의 연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기업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기업 근무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 및 직원들의 언어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출 경험은 기업이라는 새로운 환경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적절한 설정 속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원 개인과 기업의 니즈가 함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소통)'이라는 방향의 설정과, 소규모 대상 설정을 통한 1:1 관계의 형성이라는 방법도 유효했다고 판단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대다수의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닌,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보다 작고 새로운 실험들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의 장점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SKINCURE

# SKINCURE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들, 그리고 예술가를 통한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능력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지고, 이는 구인 경쟁력을 약화해 인력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한다. 그 결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숙련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시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OECD국가평균의 36.8%에 머물러 있고, 특히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 46.6%만이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89.9%).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R&D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HRD투자 대비 R&D투자는 OECD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R&D투자를 통한 문제해결 즉 지식경제 체계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HRD 투자를 통한 문제해결(협력적 접근)에 비해 소득 분배를 악화 시킨다는 것이 해외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통한 기업 내부의 인적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실험을 2016년에도 사업의 주요한 분야로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시와 이야기 공방>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서 이미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다. 단지 도서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을 기업의 회의실로 옮겨놓았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왔다. 그 중 적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시와 이야기 공방>처럼 기업을 무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개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보다는 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본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 구성원을 삶 전체에 대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그리다



기관 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프로젝트 명	그리움을 품은 해열, 경
파견 예술인	최은경(미술)
프로젝트 소개	최은경 예술인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작업을 진행했다. 총 5명의 복지사들이 최은경 작가의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눈을 감고 촉감을 통해서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큰 종이에 물감을 뿌리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복지관은, 사업 기간 동안 진행된 활동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 활동부터 전시까지 체험해볼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상할 것이다. 복지관에 예술인이 파견됐다면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을 진행하려니.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소문<sup>1)</sup>에 군산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지역과 기관, 기업 등에 파견된 예술인으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해졌다면 그것으로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움을 품은 해열, 경” 프로젝트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어지러운 일을 가라앉히고 몸에 오른 열을 풀어내고 어루만지며, 진정시킨다는 뜻이란다. 아, 어르신 분들의 삶과 프로젝트 명이 제법 어울린다. 하지만 그 대상은 어르신 분들이 아니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최은경 예술인<sup>2)</sup>이 파견된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림을 그렸다. 쉽게 말해서 ‘직원 힐링’ 이랄까. 그렇게 최은경 작가의 작업은 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복지사분들을 향해 있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음악, 연극 쪽 협업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양지현씨의 말이다. “연극 수업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저희 복지사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어요.” 예술인과의 첫 미팅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복지관이라는 곳이 관공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 누군가가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술인이. “저희의 분야와 전혀 다른 분께서 찾아오셔서 당황스러웠지만, 반가운 마음이었죠.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의 작가님께서 손을 내밀어주셔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복지관 측에서는 미술이라는 분야와의 연계는 전혀 생각 해본 바가 없었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던 것. 이쯤 되면 최은경 작가와 복지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림에 각자의 스토리를 덧붙여서 자신의 기분, 감정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동료들은 눈물까지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직장 내에서 일적인 이야기만 했지 동료의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괜스리 미안해지기도 하고...” 아, 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셔서 그런가. 양지현씨가 뒤에 한 마디 더 붙인다. “우리 어르신들도 내면의 화려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를 어르신들과 함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타인을 향해있다. 때문에 정작 본인 안에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는 고민거리들은 시간이 지나 스트레스로 변한다. 더불어 행정적인 업무도 해결해야 하기에 복지관의 직원들을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지, 어떻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벅했다. 최은경 작가는 이 점을 지나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최은경 작가가 말문을 열었

다. “저는 그분들을 단순히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업무도 많을뿐더러 때로는 과격하든 어르신들도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었다. 복지관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어르신 분들을 향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복지사분들을 위한 작업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물론, 처음에는 ‘어르신 분들과 같이 뭔가를 해봐야지’ 하고 왔었죠. 처음부터 이런 기특한 생각(웃음)을 한 건 아니에요.” 미소를 띠며 최은경 작가가 말을 이어나갔다. “막상 이곳에 와보니 사회복지사 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더불어 이곳 복지관은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의 어르신들의 인생도 물론 궁금했지만 지방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20~30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대도시로, 가고도 싶었을 거라고 짐작해봤어요. 더불어 이곳에서의 인생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런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다. 군산에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최은경 작가. 그녀는 서울에서 오직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내려온 것. 아무 연고가 없는 이곳에 내려와 처음엔 많이 힘들었던단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협업을 하니 그녀에게도 마음 따스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작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경험도 ‘진하게’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작업에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최은경 작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되돌아본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주변에는 시각예술 전공자인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사 분들과도 연을 맺을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웃음)” ◎





<b>기관 명</b>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b>프로젝트 명</b>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동영상 프로젝트
<b>파견 예술인</b>	남정애(영화)
<b>프로젝트 소개</b>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아 복지관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15년 간의 복지관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남정애 예술인은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나누어 제작 팀을 꾸리고, 영상제작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열어 미디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영상에 예술적 안목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식이 가미될 수 있도록 연출자, 총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 ‘영상’ 만드는 복지사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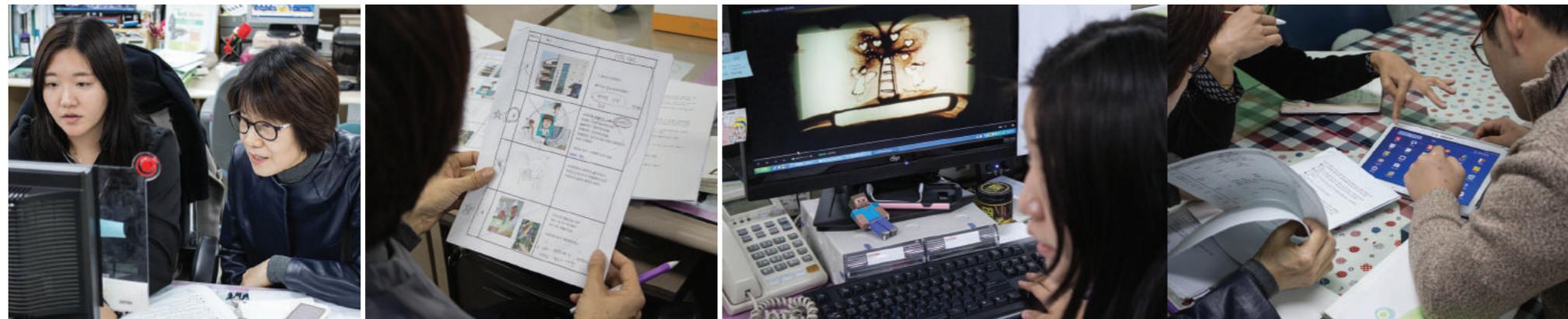
“인간에 대한 존중과 섬김을 실천하며 모두의 행복을 구현한다”는 ‘미션’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복지사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다.

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그들의 표정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러한 그들의 보람찼던 15년 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예술인이 복지관에 찾아왔다.

복지사들이 개관 15주년을 맞이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한 것.

그들은 이번 계기로 복지관에서 신선한 예술의 장을 펼쳐보길 원했다.



**Q. 사실, 심히 걱정스러웠다. 이 프로젝트를 경력 정보시스템 상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건 뭐지’ 싶었다.**

**남정애 예술인** (웃음) 프로젝트 명칭 때문 아니셨을까 한다. 기관의 개관 기념 영상을 제작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파견예술인은 진행 중이던 기관의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중도 투입되지 않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파견된 예술인은 단순 외주 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기관의 이슈와 파견 예술인의 역량이 만나 새로운 솔루션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취지라면, 기관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 이 사업의 방향성과는 거리가 멀다.

**Q. 그럼 기념 영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남정애 예술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놀리는 인터뷰어를 보고) 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다는 거다.

**Q. 직원들이 직접? 그러면, 남 작가님이 한 역할은 무엇이었나?**

**남정애 예술인** 슈퍼비전. 옆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영상 제작을 돕고,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에서 필요하게 될 영상 작업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아시다시피,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왕왕 생기게 되는데 단가가 좀 있다. (웃음)

**Q. 영상 제작 교육의 냄새가 난다.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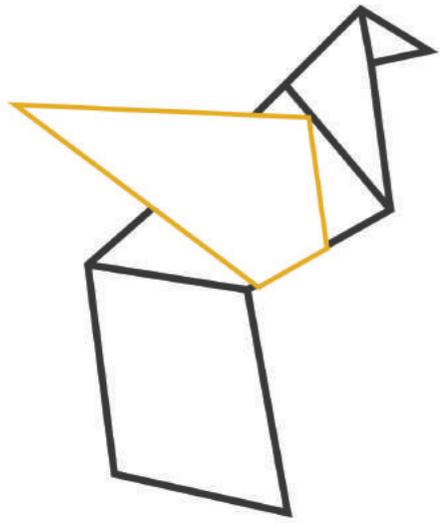
**남정애 예술인** 물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피할 순 없다. 그래서 고

민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관의 직원들은 일정 부분 감정 노동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완성해냈을 때의 창작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해보자는 목적이 있었다.

**전소현 대리** 처음에 영상 제작이라고 하면, 보통 재주가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물론 그랬고. 하지만 남작가님에게 영상 제작 방법이라든지 프로세스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결국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의 즐거움이란...

**Q.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나?**

**전소현 대리** “앞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반복되는 행정일과 여러 업무로 인해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성취감 같은 것을 맛본 것 같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모두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만 보이고, 예술을 멀리 있는 것만으로 생각했었는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동료 직원 중 한 명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작업을 본인이 하게 되어 상당히 신기해했다.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보람을 느끼게 하고. 주변 어른신 역시 ‘저렇게도 할 수 있느냐’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야깃거리가 많아졌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모로 즐겁다. 구태의연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남작가님의 프로젝트 덕에 반복되는 일상에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심포’를 느낄 수 있었다. ◎



# 웰TV & ART뱅크

## 웰라이프 휘트니스/쓰리디뱅크

**일시** 2015.10.31 pm2~pm6 | **장소** 웰라이프 휘트니스 | **남주경** 퍼실리테이터

### 웰TV

**<웰라이프 휘트니스>라는  
특정공간을 이용한 휘트니스와 예술의 공동 작업**

#### 공연

2시\_ 공간을 누리다\_최지원 (무용)  
3시\_ 휘트니스클래식\_송하영(연주),서인영,김상명,이지현(휘트니스)  
4시\_ 공간을 누리다\_최지원(무용)

#### 영상 2시\_6시

A\_ 휘트니스 클래식\_클래식과 휘트니스는 다르지 않다.  
송하영(선곡), 이한구(촬영), 이예진(편집), 이정임(안무)  
서인영, 김상명, 이지현(출연)  
B\_ 공간을 누리다\_모든 공간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지원(안무/출연), 이한구(촬영),이예진(편집), 강현석(선곡)

#### 음악 2시\_6시

웰라이프 휘트니스 위한 1000곡의 선곡\_강현석  
웰라이프 휘트니스 위한 30곡의 선곡\_송하영

### ART뱅크

**3D 프린터를 활용한 예술활동과 아트상품 개발**

#### 전시 2시\_6시

강성욱, 김민재, 박현진  
바람이\_공동창작 3D 출력물  
3D 모델링과 프린팅 및 제작 그리고 아트상품으로 기획

\* 본 공연/전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2015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주관 Well Life Fitness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Part 2-3 제품/서비스

eLC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국방부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남수정경찰서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요양병원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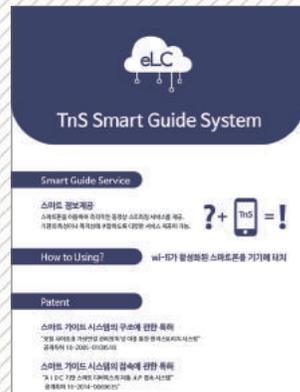


# 내 손안의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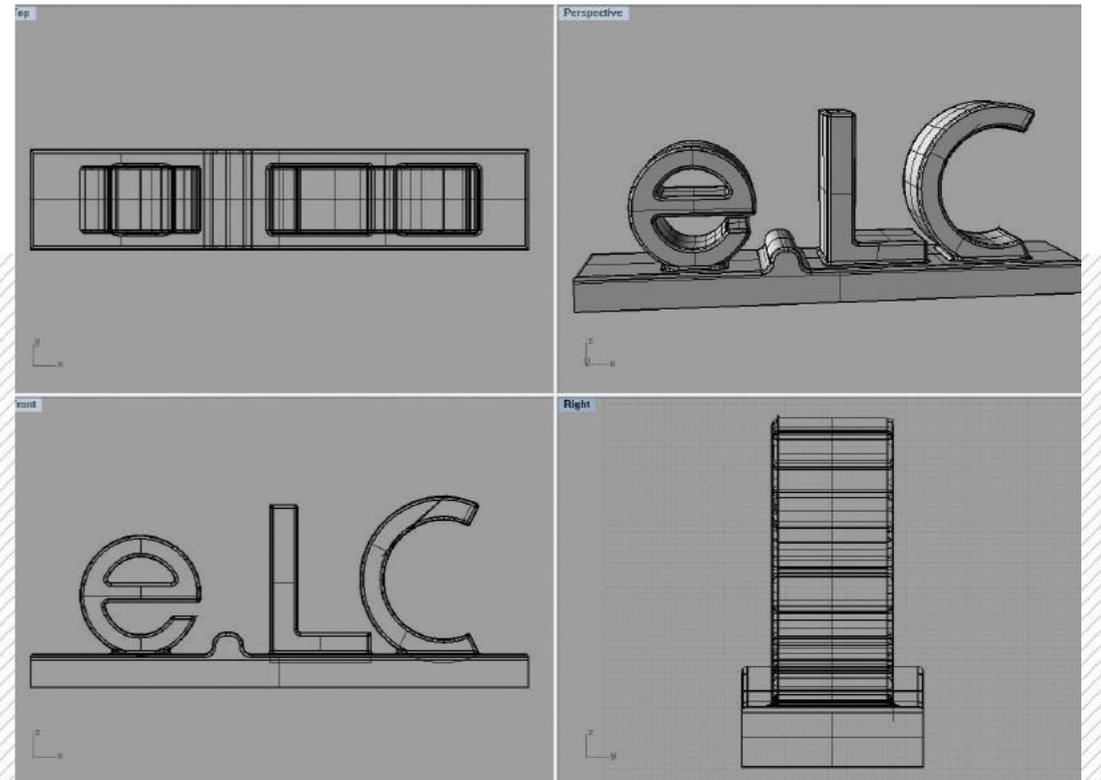
## eLC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이태용(미술)



쇼핑센터의 벽면 광고판이 지나가는 사람의 흥채를 인식해서 신원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맥주 광고를,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에게 '떠나라'며 여행 광고를 내보낸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내티 리포트>의 한 장면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인 2054년이 배경이지만, 그러면 미래의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영화에서 만큼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흥채 인식과 얼굴 인식 등의 생체인식 기술은 상용화되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 디지털 광고판은 사전에 입력된 정보만을 전해주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 Digital Signage

●○○○○○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판을 대신하여 각종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단어는 낯설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미 우리 삶과 매우 친숙한 기술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물론, 지하철 관련 정보부터 인터넷 전화까지 쓸 수 있는 지하철 '디지털 뷰'나 강남대로에 설치된 '미디어 폴', 코엑스 등에 설치된 가이드 스크린 등 실내외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Kiosk)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속한다. 단순히 입력된 내용만을 송출하던 기존의 광고판과 달리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원격으로 제공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고, 광고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용 범위를 넓혀 기존의 주 사용 목적이었던 광고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교육, 예술적 활용까지 가능한 미디어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eLC-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이하 eLC)에 파견된 이태용 작가는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콘텐츠 제공을 시도하였다. eLC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디지털 사이니지와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총 직원 4명 규모의 소규모 IT 벤처 기업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기관의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자를 주축으로 세워진 벤처 기업이기 때문일까,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디자인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어딘가 '투박하다'는 첫 인상을 주는 곳이다. 게다가 하드웨어 및 기술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기에, 기업의 제품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논의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해온 이태용 작가는 본인이 가진 디자인적 시각을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더 나아가서 기업의 환경을 비롯한 기업 그 자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파견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업과 예술인, 서로에게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일까, 처음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난항을 겪었다. eLC도 디자인과 예술인,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하였고, 이태용 작가도 바쁜 스타트업 내부에 스며들어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단순 디자인 협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태용 작가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먼저 마케팅과 디자인적 측면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디자인 적 측면은 미흡한 기업의 제품을 새로 디자인하기도 했고, 텍스트 위주로 되어있어 기술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브로슈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다. 브로슈어의 내용을 픽토그램으로 변환하여 기술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보다는 단순 '의뢰'에 가까운 느낌을 주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태용 작가도 본인의 작업이 처음 취지와 달리 기업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작업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보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작업은 이태용 작가가 사업 막바지에 '내 손의 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기업의 브로슈어와 제품 디자인을 작업하는 과정은 이태용 작가가 익숙하지 않던 기업과 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기업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eLC의 기술과 접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된

이태용 작가는 자신의 작업물과 eLC의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내 손의 미술관'은 'eLC의 기술력을 미술관에 넣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eLC의 서버에 등록하고, eLC 제품의 NFC(Near Filed Communication)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eLC의 기기에 태그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작가가 작업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기술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그리 큰 규모로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홍익대학교 건물 로비에 설치하여 행인들이 기기에 태그하여 작가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작업과 관련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용 작가와 eLC의 프로젝트는 결과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서로에게 생소한 두 분야가 온전히 이해하고 융합하기에는 다소 짧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사업 영역의 확장, 예술인에게는 기술 활용을 통한 예술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COO(Chief Creative Officer)인 존 라세터의 **'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준다'**는 말을 했다. 그는 발전 중인 기술에 영감을 얻은 인재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적 역량과 창의력을 구현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픽사의 성공비결이라 말한다. 다양하고 급진적인 21세기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둘 이상의 분야의 융합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융합형 인재'를 부르짖고, 문제 해결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 창출을 위한 창의력을 갈망하는 오늘날의 기업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그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



# Digital Signage

○●○○○○○

## 그림으로 보는 국방부



기관 명 국방부

프로젝트 명 M.A.P (Military Art Project)

파견 예술인 홍영민(미술)

프로젝트 소개 일반인들에게 국방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투장비, 국군 장병 등이 담긴 사진을 '라인 드로잉' 형태로 작업한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그림들은 향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디자인 콘텐츠, 어린이들을 위한 컬러링북 제작 등 국방부의 홍보 사업에 다방면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는 약 190여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다양한 분야에 자리하고 있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국방부가 아니었나 싶다. 공공기관이 주는 이미지는 예술이 주는 이미지와 정 반대에 서있다. 수직적, 경직, 딱딱함. 국가의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는 그 특성상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여기에 폐쇄적이고, 닫혀있다는 느낌까지 준다. 이번 사업에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국방부에서 자유분방한 예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게다가, 여성 예술인이다. 일종의 설치 미술인 '아트펜스' 위주로 작업을 해오던 홍영민 작가, 군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국방부를 1순위에 지원했던 유일한 예술인인 홍영민 작가는 미술계에서 군인을 컨셉으로, 또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지원했다고 한다. 이 기묘한 조합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국방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담당한 안상준 주무관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정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을 고루 느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딱딱하고 관료적이라 예술인의 활동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고, 파견되는 예술인을 기

관에서 선택할 수 없어 사업 초반에는 걱정이 컸다. 실제로 홍영민 작가는 기존의 자신의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군부대 담장벽화, 광복 70주년 기념 설치미술 등을 기획했지만 국방부가 가진 각종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고, 그것이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행히 홍영민 작가는 이해해주었고, 그 한계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했다. 안상준 주무관은 "국방부 내부의 경직된 시스템에 얽매이고 격무에 치이다 보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홍 작가는 국방부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평소에 떠올리지 못했던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셨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국방부와 예술인, 둘 사이에서 찾은 접점은 '라인 드로잉' 이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컬러링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라인 드로잉'은 국방부가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선화 형태로 그리는 작업이었다. 국방부를 보여줄 수 있는 헬리콥터, 항공기, 전함 등 주요 전투장비나 국군 장병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선화로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안상준 주무관은 최근 국방부에서 온라인 홍보를 위한

디자인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고, 전시 기획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작업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라인 드로잉'은 이러한 국방부의 '니즈'에 맞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아직 실제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았고 아카이브만 구축된 상황이지만, 향후 국방부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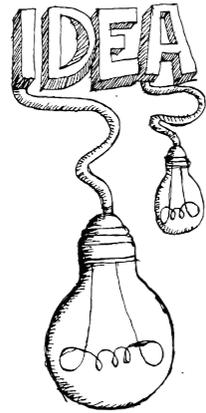
홍영민 작가는 **"저는 예술활동이 직업이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 실현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주무관님이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냐 안됐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작업이 기관에 도움이 됐냐 안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쓰이지 못했지만 나중에 쓰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이번 사업을 마무리했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홍영민 작가의 '유연함'은 어떤 기관에서도 예술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유연함', 그것이 예술이 가진 매력 아닐까. ◎



기획 : 설치미술전시 및 소공연  
대상 : 강원외국인지원센터(프렌즈)다문화가족  
기간 : 2015년 5월 7일 ~ 10월 22일  
파견예술인 : 이준우, 손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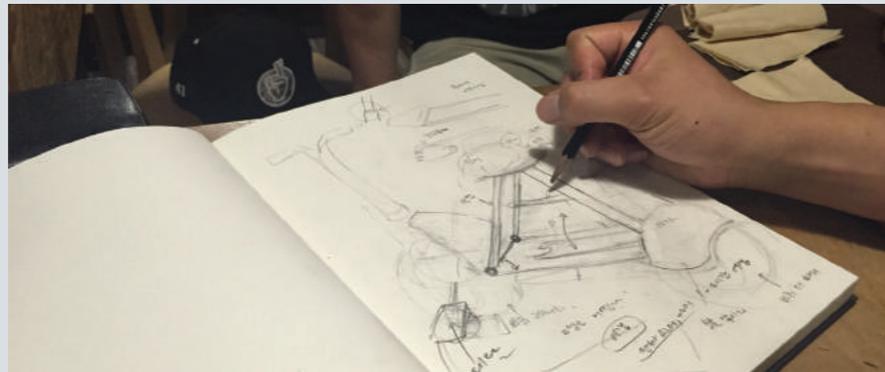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 강원외국인지원센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 기술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

<b>기관 명</b>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b>프로젝트 명</b>	문래 소공인 지원 프로젝트
<b>파견 예술인</b>	김도영(미술), 김송일(연극), 박여주(미술)
<b>프로젝트 소개</b>	문래동 철공소 골목에 예술을 가미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견 예술인들은 철공소 골목에 위치한 가게들(부영금속, 선교정일)의 간판, 서터에 디자인을 입히는 환경개선사업과 소공인 2세의 아이디어에 디자인을 입혀 시제품으로 완성하는 프로젝트, 소공인 1세와 2세의 이야기를 영상과 스토리보드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래동 철공소 골목은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거칠고 열악한 작업환경,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된 기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낮아진 업무 위험성과 강도는 젊은 소공인 2세를 철공소 골목으로 불러들였다. 가업을 잇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소공인 2세들은 기존의 투박하고 거

친 제품들에 미적인 디자인을 가미하고 싶어했다. 이들은 사업영역의 변화도 모색했다. 기존의 사업이 부품, 부속 위주였다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철공소 골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 이들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파견되었다.

예술인들은 예술이 필요한 철공소 곳곳에서 활동하였다. 먼저, 소공인 2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을 도왔다. 소공인 2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스케치로 구상해놓은 수준에 그쳐있었다. 소공인들의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술 작가들은 스케치를 도면화하고, 다소 투박했던 제품 외형에 디자인을 가미했다. 소공인 2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이디어와 예술인들의 미적 감각이 가미되자 고급화 볼펜, 나사로 만든 어르신 치매방지 보드게임, 자전거 안장을 결합한 키보드 등 기술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아이디어 상품뿐만 아니라 이들이 '팽이기술경진대회'에 출품하던 투박하고 거친 팽이에도 디자인을 가미하는 콜라보 작업을 진행했다. 소공인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리는 팽이기술경진대회에 출품할 팽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 것.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팽이들은 상품화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들은 철공소의 '제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지금, 철공소 골목은 처음 자리를 잡은 아버지와 가업을 잇고자 하는 소공인 2세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한 것. 다소 보수적이고 높은 자부심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소공인 1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먼저 공감대 형성이 쉬운 2세들과 먼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이 곳에서 가업을 잇고자 했던 소공인 2세들은 많지 않았다. 대기업에 다니던, 안경을 전공한 소공인 2세도 있었고, 비보이, 선교사로 활동하던 2세도 있었다. 이들이 철공소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대부분 '아버지'였다. 힘들고 거친 일을 평생 해

오신 아버지를 보니,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업을 잇게 된 것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힘든 '기계법'을 먹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 안타깝기도 했다. 예술인들은 이들의 '관계' 이야기를 수집해서 스토리로 만들어냈다. 둘의 대화를 담은 영상도 촬영했다. 평소 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무뎠다 해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술인들의 세심함 속에서 기업의 '홍보'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가족 앨범 같은 영상과 스토리가 완성되었다.

문래동의 제품과 사람의 변화를 담아낸 결과물들은 지난 9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선보여졌다. 소공인 1세와 2세의 이야기가 담긴 6개의 스토리는 스토리보드로 제작되어 전시되었고, 소공인과 예술인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 제품들은 시제품 형태로 완성되어 사람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기술력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갖춘 팽이들은 팽이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예술인의 손길로 완성한 주얼리 제품들이 선보여졌다. 멀게만 느껴지던 기술과 예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둘은 많이 닮아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예술이 가까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쇠를 깎는 공장 근로자와 붓을 놀리는 예술가가 '공존'하는 문래동, 이제 이들은 '공존'을 넘어 '공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둘의 만남으로 멋진 '제품'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



## 소년범 아이들의 단상인 마음 열기

기관 명	성남 수정경찰서
프로젝트 명	아트 활주로
파견 예술인	최아름(무용), 김진영(영화), 박문영(문학), 황선화(연극)
프로젝트 소개	성남 수정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파견된 4명의 예술인들은 위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 '아트 활주로'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춤, 무용 등의 몸짓과 역할극, 글, 그림, 만화 등의 예술창작활동을 함께하여 아이들의 자기 표현과 자기 치유,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도왔다. 그 밖에도 소년범 가족들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게임 등의 신체활동을 통한 친밀감 형성, 세족식, 편지쓰기 등을 진행하였고, 가족의 모습이 담긴 달력을 제작하여 선물하기도 하였다.

예술가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과 슬픔 등 여러 감정을 이끌어낸다.

그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이런 예술인들의 무한한 에너지가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도 발휘되었다.

성남 수정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인들과 함께 무용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아트 활주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Q. 경찰서에서 예술인과 협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숙 경사**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던 중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소년범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거칠거든요. '거친 이 아이들을 여러러려 하신 예술인분들이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적응이 힘들 거 같다' 이런 의문들이 많았고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Q. 예술인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궁금하다.**

**이숙 경사** 열린 나눔터에서 매주 화요일 3시에 영화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나눠요.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술인 분들이 오신 후 아이들이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을 처음 보여줬어요. 선생님들이 예체능 쪽에 있어서 그런지 표현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온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 봤어요. 예술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 가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예술 선생님'이라니, 재미있었대) 보통 센터에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식인데 작가 분들은 먼저 다가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1달 과정이 지나갔을 때 프로그램을 더 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는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고요. 확실히 전문 예술인분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Q.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곳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숙 경사** 소년범 친구들이 하나를 했다고 해서 확 바뀐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반감은 없어진 거 같아요. 아이들이 경찰관이나 부모님들

한테 반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죠.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하고 물어봐도 상담도 안하고 사고치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한 이후로 많이 변했죠. 대인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내는 삶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 같아요. 이걸 경찰서라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귀감이 되었죠.

**Q. 아이들이 수업은 잘 따라오나? 비범한 친구들 일텐데..**

**이숙 경사** 아니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발표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그리더라고요. 예술인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시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의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부분 보다는 마음이 아픈 모든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아이는 '처음에는 수업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 같아서 좋았다'라고 적힌 엽서를 저에게 주었어요. 이 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최아름 작가는 오히려, 담담하게 '내 어릴 때를 보는 것 같다'는 말로 아이들을 표현했다. 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은 교육이 아니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만화도 그리고 무용도 하고 그랬단다. 선도 프로그램 같은 것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리 만무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스며들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 여기서도 최아름 작가는 여느 예술인처럼 아이들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난 사업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친구들 보고 싶어서 어찌죠."** ◎



**‘눈높이는 같게, 문턱은 낮게’**

올해로 두 번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캐치프레이즈다.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열떨결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심현지 대표는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어도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우리 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장애’라는 단어를 벗어 던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업이었다.”며 처음 사업에 지원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작년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올해도 이 소중한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황태환, 여수진 두 예술인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평소 가지고 있던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장애인들은 우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센터를 방문한 첫 날, 이런 걱정들은 기대와 행복으로 변했다. 센터에서 만난 그들은 다소 불편할 뿐, 누구보다 깊은 생각과 큰 열정,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가능성을 본 두 예술인은 세심한 시선으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참여자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갔다.

황태환 예술인은 그들이 가진 깊은 생각과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할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 <맛있는 이야기들>을 진행했다. ‘나’에 대해 쓰기, 인상적인 경험 쓰기, 소중한 추억 쓰기 등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갔다. 황태환 예술인은 이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왜소장애인 A씨와는 함께 취업, 진학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것을 글쓰기와 연결

지어보자고 제안했다. 여행과 사진, 글에 관심이 있는 중복장애인 B씨와는 함께 주변 관광지를 답사하고, 사진촬영을 하며 소재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수진 예술인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기쁨, 슬픔 등의 정서를 연극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극 프로그램 <두근두근 내 마음 놀이터>를 진행했다.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특징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랜 시간 활동하기 어렵고, 연기는 것이 다소 어려운 성인장애인 반에서는 독백 형식의 라디오 드라마를, 지적 장애로 인해 대사 암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수장애인 반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별주부전’을 함께 했다.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이 쓴 글에는 비문이 너무 많고 산만했으며, 맞춤법이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연극 수업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음악소리를 힘들어해서 귀를 막고 구석으로 숨는 참

여자도 있었다. 공연을 앞두고 공연 당일에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해 막막할 때도 있었다. 지역 예술인이 부족한 문제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연에서 연출을 맡아줄 예술인을 섭외하는 일도 힘이 들었다. 하지만 두 예술인의 6개월 간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두 예술인은 인위적인 ‘완벽’을 추구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표인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자존감 회복, 더 높은 목표설정을 돕는 것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인들은 자신을 풍부하게 표현한 글을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고, 노래 소리를 싫어하던 학생은 박자에 맞춰 또렷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센터는 두 예술인에게 협조적이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술인과 장애인, 그리고 센터의 노력은 10월 17일 결실을 맺었다. <맛있는 이야기들>에서 완성된 글들은 작가의 손길을 거쳐 책으로 완성, 전시

되었고, 자율판매의 형태로 센터의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쓰였다. <두근두근 내 마음 놀이터>를 통해 완성된 두 개의 공연은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선보였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넘어서거나 긴장해서 대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고,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두 팀은 앞으로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꾸준히 공연을 할 예정이며, 실제로 여러 곳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두 예술인은 장애인과 예술인이 예술을 통해 서로 편견 없이 바라봤을 때 장애인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항상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여겨졌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낸 책과 공연을 전달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주체’로 나아갈 것이다. ◎

**우리가 만들어 낸 예술작품**

<b>기관 명</b>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b>프로젝트 명</b>	맛있는 이야기들 / 두근두근 내 마음 놀이터
<b>파견 예술인</b>	여수진(연극), 황태환(문학)
<b>프로젝트 소개</b>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 활동 프로그램. 두 예술인은 장애인들과 함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글쓰기 수업과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연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직접 연극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극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각각 에세이, 소설이 담긴 책과 라디오 드라마, 어린이 뮤지컬 두 편의 공연으로 완성되어 기관 외부에서 선보였다.





요양병원에 예술인이 파견되어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환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간단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환자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요양병원에 예술을 더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한울요양병원에 파견된 세 명의 예술인의 활동은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상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 요양병원 환자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담아낸 걸까? 아니면 이들의 예술활동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의미일까? 궁금함을 더하는 이름이었다. 한울요양병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른 요양병원에 파견된 예술인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 명의 예술인이 주목한 지점이 조금 달랐다. 환자들의 예술활동이 추가 아니라 그 예술활동을 하면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먼저, 세 명의 예술인은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병동을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이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화상 그리기, 찰흙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활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들을 뽑아 함께 하면서 위촉되어있는 환자 분들에게 생기와 자신

감을 불어넣고,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를 제 2의 가족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미술활동으로 만들어진 작품에서 묻어나는 각자의 특징,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이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 한다고,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예술인들의 독려 속에 조금씩 용기를 내었고, 거동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요양병원 곳곳에 새롭게 설치한 솜씨자랑 게시판에 실어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만들어진 작품,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화 하여 미니북을 만들어 환자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을 듯 하다. 예술가들의 시선은 환자들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환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퀵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였다. '퀵서비스'는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친할머니께 방문하여 바깥 사진 등을 보여드리곤 했던 천근성 작가의 아이디어로,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바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달성공원, 수성유원지, 대구 모노레일 등 한울요양병원이 위치한 대구의 가깝고 친숙한 장소들로 시작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섯 환자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추억의 장소, 그리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고향 등에 방문하여 환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환자와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사진 앨범으로 제작하여 환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10월 말 한울요양병원 로비에서 많은 환자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를 진행하였다. 영상을 보고 서로 웃고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눈물나는 애잔한 장면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한울요양병원의 '이야기'는 예술인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본다면 예술인의 활동이 기존의 단순한, 그리고 일시적인 형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드립니다

<b>기관 명</b>	한울요양병원
<b>프로젝트 명</b>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
<b>파견 예술인</b>	천근성(미술), 홍준원(영화), 신숙자(미술)
<b>프로젝트 소개</b>	한울요양병원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쉬운 미술활동 프로그램과 바깥활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바깥 풍경이나 어르신들의 고향에 대신 방문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퀵 서비스'를 진행했다. 미술활동으로 만들어진 작품과 이를 만든 어르신의 이야기, '퀵 서비스'를 통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은 각각 미니북과 사진 앨범으로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 그림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b>기관 명</b>	언어치료 AAC 센터 사람과 소통
<b>프로젝트 명</b>	알기 쉬운 기초생활 매뉴얼 / 미술 나들이 '작업실에서 미술관까지'
<b>파견 예술인</b>	심혜린(미술)
<b>프로젝트 소개</b>	<알기 쉬운 기초 생활 매뉴얼>은 컵라면 끓이기, 식빵에 잼 바르기 등 비장애인은 쉽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기초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단계별로 나누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기존의 사진으로 된 시각자료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언어치료센터'에 미술 작가가 파견된다니, 아무리 봐도 어색했다. 전문용어의 느낌이 풀풀 나는 'AAC'가 이러한 어색함을 더한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돌려 센터 이름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사람과 소통'. 예술은 말 없이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예술인의 시각이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언어치료 AAC센터 사람과 소통(이하 '사람과 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치료와 구어(말) 이외의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이를 통한 치료를 하는 곳이다. 이 곳에 파견된 심혜린 작가는 미술을 통해 어떤 소통 방법을 전달했을까?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심혜린 작가는 가장 먼저 기존에 '사람과 소통'에서 언어치료 활동을 위해 사용하던 시각 자료들을 살펴 본 뒤, 자료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람

과 소통'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시각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각 자료들은 주로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장애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자료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소통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자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혜린 작가는 이런 시각 자료가 진정한 '소통'의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기초 생활 매뉴얼>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알기 쉬운 기초 생활 매뉴얼>은 컵라면 끓이기, 식빵에 잼 바르기, 밥 짓기 등 기초 생존에 필요한 간단한 활동들을 선정 한 뒤 이를 쉽게 따라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림 매뉴얼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해가 어려웠던 기존 사진 자료 대신 각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현재 사람과 소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통과 치료 수업에서 시각자료로 사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사람과 소통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술인의 세심한 시선과 예술 활동이 기존 자료들의 효과를 배가 되게 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심혜린 작가의 '예술을 통한 소통'은 <미술 나들이 '작업실에서 미술관까지'(이하 '미술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미술나들이>는 심혜린 작가가 실제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미술관, 전시관, 작업실 등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찾아가 작품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을 통해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는 심혜린 작가, 예술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

나래대학  
김민지  
박상수  
박해찬  
안윤주  
유지영  
이형준  
인기수  
한예은



예술인  
김현정  
박소은  
홍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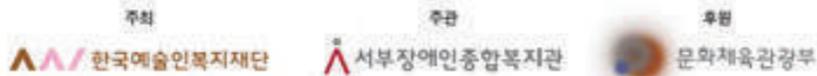
어디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모여 출발)

언제 2015. 10. 26 (월) 오후 5시

궁금증 ☎ 070-7113-5724 김예림 사회복지사

✉ sowouldyou@openlife.or.kr

★ 본 행사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Part 2-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천탁주  
생표식품  
출판놀이출판사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



# 인천택주 그 히스토리 프로젝트

인천택주

유희경(대중예술), 주희란(미술)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역사 편찬

온 나라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시끄럽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토록 시끄러운 것은 비록 그것을 누가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다르더라도, 역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대부분의 국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왜 중요할까?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역사는 단순히 멈춰있는 과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거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 남과 대화하고, 설득하려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기업이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 없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

## 인천주조, 40년의 역사

인천택주는 1974년 대화주조, 동영주조, 부림주조, 영화양조, 인천양조 등 인천지역 10개 주조회사의 11명의 주주대표가 모여 만든 합작회사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세 행정 혁신을 위해 6대 도시의 주조장을 통합해 대단위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인천지역 주조회사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이다. 10개가 넘는 양조회사의 종업원, 사무원, 사장님들이 하나의 회사로 갑자기 묶였다. 종업원이 170명이 넘는 거대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각자의 생산시설을 갖춘 11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길은 당연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함께 머리를 맞대 국세를 낸 출고량 비율대로 할당을 받아 출고하고 수익도 비율대로 나누기로 극적으로 합의 하였다.

70년대는 전체 술 소비량의 70%를 막걸리가 차지하던 시대였다. 인천주조는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새로운 공장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시련이 다가왔다. 수요가 많아지자 유통업자들이 물을 타기도 하고, 방부제 등 이물질을 첨가하는 제조사들이 늘면서 막걸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다.

인천택주의 전성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막걸리 열풍의 2010년 보다 20년이나 일찍 찾아왔다. 쌀막걸리의 제조가 11년만에 허가된 1990년, 인천택주는 전국최초로 쌀 100%의 쌀막걸리를 개발 '소성주'라는 브랜드로 출시했다. 또 팩으로 된 프랑스의 와인용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 상온에서 6개월 이상 유통 가능한 종이팩 막걸리를 최초로 개발하여 유통과 휴대에 혁신을 일으켰다. 93년엔 미국, 아르헨티나로 수출길이 열렸고, 국제식음료대상 주류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1997년, 우리에게 IMF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가장 값싼 술 막걸리를 살 돈도 없었다. 어음이 늘어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빛이 20억을 넘어갔다. 다들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6년을 주주들은 배당 없이 십시일반 빛을 갚아나가며 버텼다.

IMF가 지나고 막걸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5년

●○○○

과감한 시설 투자와 함께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미니스톱과 GS25에 소성주가 팔리게 되었다. 1974년에 모인 분들이 상당수 후계자들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10개 주주회사의 주주대표들이 인천주조를 지키고 있다.

**40년을 정리한 7개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천주조의 역사를 이렇게 쉽고 짧게 정리해 기술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각 시대에 인천주조에서 생산된 막걸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재료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상세한 역사를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한편의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책은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한 유희경, 주희란 작가가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라는 책이다.

인천탁주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홍보마케팅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적 접근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취재과정에서, 인천탁주의 역사가 11개의 참여회사와 각각의 사람들의 기억에 파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 새로운 디자인의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패키지와 마케팅의 기본이 될 인천탁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애초에 회사가 원하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11명의 주주와 과거 근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자료를 모았다. 11개 회사의 과거와 현재 공장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흠여져있는 사료들을 모았다. 6개월은 너무 짧았다. 지원사업의 기간은 끝났지만, 작가들은 인천양조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노력은 결과를 만들었다.

11월 27일 인천탁주협동제조 제 1공장에는 인천탁주 역사관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곳에 113페이지에 달하는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라는 책자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아카이빙**

인천탁주의 사레처럼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시작점이 되는 아카이빙 분야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흔히 아카이빙이라고 하면 사진작가의 작업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흠여진 자료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수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취재를 통해 채워나가는 일에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인천탁주 프로젝트의 유희경 작가는 베테랑 방송작가이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오면서 쌓아온 인터뷰, 자료조사, 글쓰기 등의 역량들이 본 프로젝트에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미술 분야의 주희란 작가는 책자에 필요한 중요한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인터뷰의 촬영을 담당하였다. 만화, 영상, 미술, 사진 등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기획과 취재는 몸에 배어있는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이 역량들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아카이빙 작업을 만나, 예술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아카이빙 프로젝트들이 이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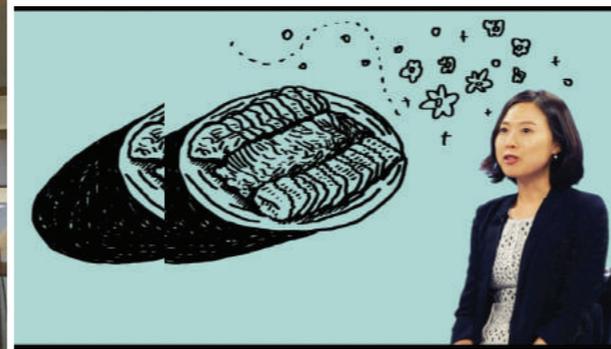
인천탁주 프로젝트에는 본 지면에서 소개한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 프로그램 이외에도 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을 통한 지역 축제 개발 프로젝트인 <인천탁주, 문화로 즐기다>



2016년 선을 보일 소성주의 새로운 라벨링 작업인 <인천탁주, 디자인 입다>, 인천탁주를 위한 <막걸리송 제작>,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를 전시화한 <맛있는 소리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휴대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인천탁주의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가까운 미니스톱이나 GS25를 찾아 소성주 한 병을 구입해서, 막걸리에 담긴 각자의 역사를 떠올리며 막걸리 익는 소리와 함께 막걸리 한잔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





## 우리가 몰랐던 샘표식품

기관 명	샘표식품
프로젝트 명	오감의 샘
파견 예술인	이명진(영화), 김선휘(미술), 이우성(미술)
프로젝트 소개	샘표식품의 창립 70주년 맞이 홍보영상을, 기존의 기업 홍보 영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작업하였다.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샘표식품 임직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영상 인터뷰(이명진 작가)와 미술 분야의 김선휘, 이우성 작가의 드로잉이 결합된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한국인의 밥상이 근간이 되는 식품이라면 아무래도 간장을 빼놓을 수 없다. 간장은 공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그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단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집에 고추장이나 된장은 없을지 언정 간장 정도는 있을지도. 그리고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드시 조미료 수납장에 이 회사의 간장이 있을 것이다. 최초의 간장 브랜드 '샘표'를 앞세워 우리 나라 간장 시장에서 무려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70년 된 전통 있는 기업, 샘표식품이다.

내년이면 인간의 나이로 고희에 이르는 샘표 식품이지만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젊은 마인드로 유명하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샘표의 오송R&D 연구소는 딱딱한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연구원들이 즐거움을 찾고 창의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부를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이 인테리어, 구성 및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고, 이는 예술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업 사례로도 꼽힌다.

이렇듯 문화예술을 존중하는 기업 샘표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예술인들과의 손을 맞잡았다. 2015년 중무식 때 진행할 창립 70주년맞이 전시를 기획하고, 샘표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것. 샘표식품 홍보팀 오윤아 차장은 말한다. **“사무적인 노하우를 가진 우리들이 아닌 새로운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워낙 예술인들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샘표식품이었지만 파견예술인들과 첫 미팅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걱정’이 우선이었다고 한다. 과거 잘 된 협업도 있었지만 그 때는 그 때고, 창의적인 마인드만큼 개성도 그만큼 강한 예술인들이기에 늘 원활

하게 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우였지. 오윤아 차장은 세 명의 예술인 모두 배려심이 깊고 의견도 잘 융합해줘서 어느 때보다 작업이 즐거웠다고 전한다.

샘표식품을 찾은 파견예술인은 영상 분야 이명진 작가, 그림 분야의 김선휘, 이우성 작가였다. 이들은 비록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로는 달랐으나 처음부터 샘표식품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구나 아는 곳이지만, 그래서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 뭔가 재미있는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기업과 예술인이 만나 언제나 행복한 상황만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결과가 중요하다. 예술인은 과정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방향성을 조율하는 것이 늘 원활할 수는 없다. 이 때에 퍼실리테이터가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했고 사측과 파견예술인들은 샘표식품의 마케팅 전략을 마련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순항할 수 있었다.

**“예술인들이야말로 사회를 한 발짝 앞서서 내다 보는 사람들이예요.”** 오윤아 차장이 소감을 말했다. **“그 분들이 사회와 많이 연결되었으면 해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딱딱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인들로 하여금 생각들이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예술인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협업을 통해 사측과 예술인 모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간장이 식탁의 간을 적절히 맞춰주듯, 그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균형’이라는 간장을 맞본 값진 경험이었을 것이다. ◎

○○●○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작은 출판사. 그리고 예술의 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인. 걸로 보기엔 그다지 접점이랄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술인 3명 중 한 명은 '연극 배우'다. 출판사와 배우. 기대가 앞섰다.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게다가 이 이야기의 '기관'으로 등장할 출판놀이 출판사(이하 '출판놀이')는 올해 처음 태어난 곳이다. 어느 곳보다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곳에 그림책 분야의 김세진, 조숙경 작가와 연극분야 주혁준 배우가 찾아왔다.

'출판놀이'의 꿈은 아름다우면서도 꽤 큰 그림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통해 아동문학의 본질은 자원이 아닌 흥겹게 노는 낭만성과 놀이 정신이니, 작가들 스스로가 독자들과 능동적으로 교감하면서 출판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자는 것이었다. 말이 좀 어려웠다. 쉽게 이야기해서 출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출판사가 되자는 '출판놀이'의 이영애 동시(童詩)팀장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동문학 작가가 아닌 외부의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다고 한다. 때문에 예술인들도 '출판놀이'의 야심찬 생각을 듣고는 당황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을 것. "일반적인 출판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뜬금없는' 느낌이었을까요?"(웃음) 어떤 것이 뜬금없었는지 궁금했다. "미래의 방향성을 넓게 두고 고민하는 곳이었고, 출판사에서 '놀이단'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출판놀이'의 '동시 놀이단'은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동시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처음부터 출판놀이에서 기획이 완성되었던 게 아니라 파견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학교, 도서관, 서점 등을 찾다니며 아이들과 교감하고 신

나는 놀이를 벌이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출판놀이' 측은 이처럼 어린이 중심으로 동시 놀이를 하는 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많으며,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시에 대한 좋은 영향이 뿌려지길 희망했다. 이영애 팀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이미 존재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기에 처음 단계부터 같이 기획하게 되면서 예술인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의 뼈대가 잡혔고,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놀이단 행사나 수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작은 출판사. 그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출판놀이'와 작가들은 원활한 협업 아래 창의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작지만 아름다운 꿈을 세상에 조금씩, 내놓을 수 있었다. ◎

## ‘놀이’로 알리는 동시의 가치

기관 명	출판놀이 출판사
프로젝트 명	출판놀이 동시 놀이단
파견 예술인	조숙경(문학), 김세진(미술), 주혁준(연극)
프로젝트 소개	자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판문화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태어난 출판놀이 출판사는 동시를 알리기 위해 예술인들과 함께 출판사에서 출간한 동시를 바탕으로 연극 대본을 집필, 놀이용 소품을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등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 동시를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바탕으로 한 연극과 놀이를 진행했다.



< 셰익스피어 베이케이션 > 4대 희극편 / 연인들

# “혼자 왔다가 정다워 가는 낭독회”

“독서휴가 ‘셰익스피어 베이케이션’을 함께 즐길 청춘남녀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커뮤니티 낭독단 '오봇하니' 멤버가 되시면 일주일에 1회 "셰익스피어 베이케이션" 데이 날, 테이블에 오봇하니 둘러앉아서 인간 감정과 관계 묘사의 끝판왕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속 주인공들 대사를 역할을 나누어 소리내 읽고, 망원시장의 아름다운 먹거리도 함께 나눕니다.

7.23 - 8.13	➤➤➤➔	4각 로맨스 환타지 "한여름밤의 꿈"
8.20 - 9. 3	➤➤➤➔	브로맨스?+연애+법정 드라마 "베니스의 상인"
9.10 - 9.24	➤➤➤➔	빈털터리 청춘의 사랑, 네 쌍의 결혼식 "AS YOU LIKE IT"
10.1 - 10.15	➤➤➤➔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 "십이야"

대상 | 책읽기, 글쓰기, 여행을 취미 또는 일로 하는 청춘, 그외 전통시장을 애정하는 청춘 남녀 10명  
 일시 | 매주 목 11:00-13:00 총12회 7.30-10.15 / 7.23 (예비모임)  
 장소 | 망원시장 공방카페 비밀라, 망원시장고객센터 문화공간  
 회비 | 1작품 만원 4작품 3만원 (음료 별도 구매)  
 문의 | 010-4257-0793 (문자로 이름, 참가하고픈 이유 보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전회 참가자를 우선 접수합니다)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 망원시장상인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 공방카페 비밀라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 '손'으로 짓는 공정무역 이야기

<b>기관명</b>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b>프로젝트명</b>	예술로 말하는 그루의 공정무역 이야기
<b>파견 예술인</b>	김영혜(문학), 오세나(미술)
<b>프로젝트 소개</b>	예술을 통하여 공정무역 및 그루의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오세나 작가는 네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한 엽서와 형검인형 제작을, 김영혜 작가는 공정무역 생산자의 수공예과정을 그림으로 담은 포스터를 작업하였다. 두 작가의 작품은 새로 작업한 설치물과 더불어 시민청 지구마을에서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여졌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가난한 여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들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표와 이념 아래 공정무역을 직접 실천한다.

이런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방식 중 대표적으로 패션브랜드 '그루'가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각종 의류 및 소품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그루'는 조금 더 쉽고 색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고자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의 박선영 팀장은 예술인이 파견되어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결정했다. 예술의 힘을 빌

려 공정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공정무역을 하는 해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대중에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기업 측은 참여 결정이 난 후 예술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기존에 바라는 협업과 부합하는 예술인들이 파견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첫 미팅을 가지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손으로 작업하고 그림을 그리는 김영혜 예술인과 오세나 예술인이 수작업 제품군을 주로 판매하는 '그루'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있어 안성맞춤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예술인과의 장기간 협업 프로젝트는 발전적인 경험이었다. 이전까지 진행해온 외주에 기반한 디자이너 혹은 예술가와의 협업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한 식구처럼 예술인들과 '같이' 일을 해나갔기 때문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루'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술인들이 엽서 및 포스터 등의 제작, 그리고 전시를 통해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루' 특유의 '따뜻함'을 잘 풀어내줬기 때문이다. 기존에 브랜드가 지니고 있었던 따뜻한 이미지에 손으로 만들어진 각종 작업물 등이 더해져 한 층 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외부에 홍보가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과정은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업 측에서 만족감을 느꼈기에, 기업 내 분위기도 역시 큰 긍정의 에너지로 휩싸일 수 있었다.

박선영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이 기업의 평소 철학과 맞닿아 있다면 충분히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느꼈다.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를 이색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편, '그루'에 파견 돼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두 예술인 김영혜, 오세나 작가는 이전 사업에 참여했던 지인들을 통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루'와의 첫 미팅이 있기 이전에 작가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을 했다. 하지만 처음 기업 담당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진 후 '걱정'은 '기대'로 변할 수 있었다. 부담감 없이 편하게 대해준 회사 사람들 덕분에 두 예술인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사업에 임할 수 있었다.

두 작가 역시 '그루'와 마찬가지로 처음 협업을 해 보는 것이었다. 오세나 작가는 그림책을 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보니 출판사와 '일 적인' 관계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출판사와 일을 진행할 때는 책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음대로 못했다면, 이번 사업은 무엇이든 마음 편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김영혜 작가 역시 출판사와의 그림책 제작 협업이 유일한 경험이었는데, 주로 출판사가 주문하는 것에 따라 작업을 해왔다. 그에 반해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기획에 참여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감은 물론, 기업이 자신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었기에 뿌듯한 작업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루'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더 나은 삶을 짓다'에 대해 오 작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짓는' 행위예요.”**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작가는 네팔의 아이들이 '지은' 그림들을 작업에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무엇보다 작품을 통해, 공정무역이란 '원조'가 아닌 서로가 교류하여 함께 나아가는 '무역'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김 작가는 공정무역 국가의 생산자들이 수공예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했다. 그들이 만든 '그루'의 제품이 워낙 예뻐 손으로 만들었다는느

낌이 잘 안 들기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포스터다. 또 '그루' 직원이 네팔에 출장을 가서 현지 생산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시각화 한 설치 작업을 전시하기도 했다.

오 작가에게 이번 사업은 집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끔 계기를 만들어주었기에 특별했다. 예술인이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항상 집에서 작업을 하며 아이를 키우다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로 나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평소 좋아했던 기업인 '그루'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기존에 해볼 기회가 없었던 포스터와 설치물 작업을 시도해봤던 점을 이번 사업이 가져다 준 변화로 꼽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그루'에게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기업철학의 진정성을 가져다 주었고 두 예술인에게 역시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다양한 배움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기존 작업과 병행이 가능한 '방법'이 되어주었기에 두 예술인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업이 자신의 예술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그루'와 두 예술인의 협업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공정무역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길 기대해본다. ☺



Part 2-5  
퍼실리테이터  
인터뷰

# FACILITATOR INTERVIEW



[ 퍼 실 리 테 이 터 특 집 ]

2016년 퍼실리테이터 참여 희망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4인 인터뷰

## FACILITATOR INTERVIEW



퍼실리테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조력[협력]자”이다. 최근 기업의 HRD부터 문화예술영역까지 두루 쓰이고 있는 용어이지만, 딱 부러지는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단어이기도 하다. 일을 돕고, 잘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환경의 어떤 일이나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무의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190개 현장(기업/기관)에서 438명의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2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당연히 현장의 필요와 아티스트에 역량에 따라 다른 ‘일이 잘되게 하는 활동’, 즉 퍼실리테이팅이 요구되었다. 60명의 퍼실리테이터들은 자신만의 역량, 경험, 성격을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의 퍼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갔다.

60명의 퍼실리테이터 중 4명의 퍼실리테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퍼실리테이터들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만의 퍼실리테이팅 방법을 상상해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 선정은 활동 방식,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체 퍼실리테이터의 다양성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김미남 퍼실리테이터(57세/여/구상계열 서양화가), 김월식 퍼실리테이터(47세/남/커뮤니티 아티스트), 류성호 퍼실리테이터(43세/남/전시기획자), 김보경 퍼실리테이터(32세/여/공연기획자)와 진행하였다.



김미남 퍼실리테이터



김월식 퍼실리테이터



류성호 퍼실리테이터



김보경 퍼실리테이터



## 퍼실리테이터, 그는 누구인가?

‘퍼실리테이터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하고자 퍼실리테이터들에게 보통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물었다.

**김민남**\_\_\_\_\_ 서양화가라고 소개하지요. 구상계열이구요. 캔버스 작업을 주로 해왔어요. 다양한 소재, 재료를 혼합해서 입체적으로 올리는 작업들이예요. 가능하면 남이 봐서 행복한 느낌의 그림, 철학적 이미지를 가지고 난이도 높은 해설을 요하는 작품보다는 봐서 편한 작품. 감성이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하고 행복한 거 있자나요...

**질문자가 다음 질문의 진행을 위해 멈출 때까지 김민남 퍼실리테이터의 답변은 계속되었다. 얼굴 가득한 미소와 하이톤의 낭랑한 목소리, 다소 빠른 말투. 무엇인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이웃집 어머니나 이모와 같은 친밀함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김민남 작가는 스스로를 오지랖 넓고 나서는 성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월식**\_\_\_\_\_ 대한민국 아티스트라고 대답합니다.

**워낙 짧고 굵은 답변이라, 아티스트라고 하면 뭐하는 아티스트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뭐든 하는 아티스트라고 대답해요(아저씨웃음). 특별히 요즘은 (커뮤니티) 아티스트라고 팔호가 쳐있긴 하지만, (커뮤니티) 아티스트 이전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팔호 좋아하지 않아요.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예술이 장르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구나 판단이 서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호가 쳐지려면 태도나 목적성에 팔호가 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누가 불러줘야 예술가 잦아요. 돈이 없으니까 대관도 못하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90년대 말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희공간 같은데서 혼자 전시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엔 가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도 맘에 안 들고, 철거하기 전의 공장이나 빈 집 이런 곳이 자꾸 땡기더라구요. 그런 방식이 나한테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안 거지. 원래는 마을미술이나 공공미술 이런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요. 현장미술이랄까, 현장 작업이란 말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때 했던 내용실현, 형식실험들이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빛도 모르고 야생에서 땡집이 길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현장에 관심 있는 작가처럼 보여진거고.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다 보니, 현재의 자신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이어졌다. 예술인 증빙 제도상 “미술” 장르로 구분되는 두 퍼실리테이터는 말투와 인상만큼이나 다른 작품세계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남 작가는 작업실에서 캔버스 위주의 작업을, 특히 대학시절부터 30여 년간 나비를 소재로 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반면, 김월식 작가는 두 번째 개인전에서 첫 번째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부셔서 성냥과 비행기를 만들어 태우고 날려버린 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고 한다.**

**김보경**\_\_\_\_\_ 공연기획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장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장르 음악의 콘서트, 무용, 장르를 말 할 수도 컨템포러리 공연. 그래서 상대방에 맞게 그때그때 설명을 해요. 그러다보니 명함도 6개가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의 정체성을 잘 들어내는 명함은 ‘프로젝트 남김 코디네이터 김보경’인 것 같네요. 무대뿐 아니라 관객과 공간을 포함한 연출을 하는 공연을 지향하는 집단이예요. 이외에도 음반기획 프로젝트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씬데이페스타 축제 기획팀장 등을 맡고 있어요. 늘 다섯 개 이상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네요...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바쁜 삶을 살게 될까 궁금해져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저는 대학교를 과외활동을 위해 갔어요. 고등학교때 리스트가 있었어요. 대학교 가서 할 과외활동. 결국 그것들을 대학교 가서 다했어요. 밴드활동, 영화촬영, 극토대장정... 제가 하나에 꽂히면 엄청 파는 스타일이라서. 그 여러 가지를 다 참 열심히 했어요. 드럼을 배우면 손에 피가 날 때까지 하고, 기타를 배우면 주변에서 켈 잘할 때까지 하고. 뭐든지 직접 해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다해보니 공연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술단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립극단 등 국공립 기관의 기획팀, 제작팀에서 주로 일했어요. 3년 전부터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류성호**\_\_\_\_\_ 보통 독립프로듀서라고 소개하고요. 기관에서 일할 땐 지금 속한 협동조합 ‘플랜비협동조합’이사 명함을 써요. 독립기획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다른 공부를 하다가 미대에 좀 늦게 갔는데, 전시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꺼 주길래 전시를 직접 만들게 되었어요. 부산 지역 7개 대학 모아서. 그리고 나니 주변에서 불러서 전시 기획을 할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시랑 기획을 같이 했었는데, 다들 너는 기획만 하고 작업은 치워라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림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기획자의 삶을 살았죠. 기획자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쓰긴 하는데, 매개인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아티스트를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욕망이 있는데 구체화 할 줄 모르는 작가들에게, 그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그러다보니 2003년 부터는 매년 최소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부산비엔날레 서브디렉터처럼 점차 비중 있는 일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문화예술쪽 기획자로 인지되어 있는데, 콘텐츠를 만들기 보다는. 문화는 사회나 그 지역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사회적 흐름이나 지역을 만드는 작업에 관심이 많아요.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작동되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한편에 크리에이티브한 아트웍을 잘 뽑아내는 기획자들이 있다면, 저는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에 더 관심을 갖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업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확장시키고 싶어요. 물론 작가가 원할 때 말이죠.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의 만남

**두 명의 작가와, 두 명의 기획자. 다음으로 이들에게 각각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물었다.**

**김민남**\_\_\_\_\_ 작년(2014) 아트허브를 보고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뭐하는 건지 전혀 몰랐는데, 궁금함을 못 참는 성격 때문에 방문했다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노인 복지 같은 건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활동으로 참여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활동 없을 때 연금 같은걸 주는 건가 했지. 아니면 예술촌을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해주거나. 알고 보니까 콜라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 파견 사업전에 콜라보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 작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내 그림을 한복천에 올려서 패션쇼에 서기도 하고, 가방에 도안을 입히기도 하고, 장근석이라고 그 예쁘장한 친구 있자나. 미남이시네요 나온. K-pop스타 전시하고 그 친구나, 그 눈썹 진한. 아. 송승헌이 그림 그려서 상품화 하기도 하고. 크리넥스에도 작품도 실리고. 그게 콜라보의 전부인줄 알았지. 파견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김민남 작가는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파견 예술인으로 참여했다.**

막상 참여하고 보니까. 파견사업에서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은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 한참 헤맸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 너무 창피했어. 뽕뽕뽕뽕하고 기획 같은거 잘하는 젊은 사람이 가득했는데. 나같이 그림만 그리던 아줌마가 올 곳이 아니구나. 나이 많은 예술가가 눈치 없이 끼지 않을 자리에 끼어 방해한다고 욕먹겠구나. 그래서 욕먹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땀별에 매일 혼자... 사업 마지막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조형을 설치했는데, 그게 8킬로 짜리 72개였다고. 한 개 무게가. 그거 하나하나 실어 와서 집에서 채색하고, 가져다 설치하고. 젊은 작가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딱 정해진 시간만 나오더라고. 나중에 내가 작업이 일찍 끝나서 오히려 다른 작가들을 도와주게 되었지. 사업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젊은 작가들하고 진짜 콜라보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끝난 게 너무 아쉬웠어요.

**2015년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김민남**\_\_\_\_\_ 1년차의 멘토 류성호 선생님이 담당 멘토였는데. 내가 경상도라 류 발음이 안되니깐. 그냥 유 선생이라고 할게요(웃음).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작가도 기획을 해야 하는구나, 기획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깨달았어요. 유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기획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 재미도 있었어요. 작년에 유선생님께 배운 걸로, 작년 사업 끝난 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서 레지던시 사업이 있었는데. PPT도 직접 만들어서 과정, 이유, 결과, 앞으로 재



단에 바라는 것. 답아서 발표를 직접하게 되었어요. 내가.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 퍼실리테이터 1차 공모 났을 때는 사실 망설이다 못 넣었는데 추가 공모 뜨드라구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유성호 선생님 하듯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냉큼 지원했어요.

**김월식** \_\_\_\_\_ 사업 자문부터 결합했습니다. 사업시작 전부터. 이게 과연 되겠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파견사업보다 복지재단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컸던 거 같아요. 예술인 활동 증빙이 너무 불합리했었고. 예술인의 조건이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던 거죠. 예술인 쪽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의 주변인들 학자들이나 이론하시는 선생들 경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간섭하고..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야에도 그런 불만이 있었고. 심사 같은데 가도 예술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술가를 대변하는 역할로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첫 인연이었어요.

**류성호** \_\_\_\_\_ 함께 작업했던 친구가 소개해줘서 자연스럽게 결합했어요. 내가 해왔던 일이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티스트가 누구랑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을 때 도와주는 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작가들이 기관이나 기업이랑 협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주로 사회나 기업에서 어떤 역할이나 능력을 선호한다는 것을 캐치해서 알려주는 역할, 가치를 발견해서 강조해주는 역할에 집중했었어요.

**김보경** \_\_\_\_\_ 사업을 보자마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티켓을 팔아서 공연을 할 상황은 안 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쪽을 넓히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고... 그래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과 비슷한 아트콜라보레이션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공을 엄청 들었죠. 하지만 결국 다 잘 안되었어요. 기획서 쓰고 미팅은 엄청 많이 했는데.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사업을 알게 되었죠. 봤더니,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의 지점과 맞아 떨어지는 게 참 많았어요. 사업을 알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기대가 더 커졌죠. 아트콜라보레이션을 넘어서 예술의 개입으로 상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한 실험들도 해볼 수 있었고. 제가 어차피 이 방향으로 나갈꺼기 때문에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어요.

## 그들의 프로젝트

**올해 그들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였을까? 그들의 목소리로 설명을 전하고 싶지만, 이 글의 목적이 퍼실리테이터의 “프로젝트”가 아닌, “퍼실리테이팅”에 맞춰 있는 만큼 간략한 소개로 대신한다. 이들의 프로젝트에 자세한 내용은 사례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김월식	김미남	류성호
프로젝트;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프로젝트; 양평티끌예술광장 프로젝트	프로젝트; Alternative Jeong-eup
참조 페이지; p.22	참조 페이지; p.107	참조 페이지; p.91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퍼실리테이팅 방법론에 대해 물었다.**

## 김월식의 퍼실리테이팅 - 냉정한 거리에서, 함께 학습하는 덕장

**김월식** \_\_\_\_\_ 초반에 냉정한 거리를 둘 수 있었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인정, 선후배 같은 거 상관없이 사업을 가지고만 설득할 수 있는 구조. 그 안에서 존중과 배려는 물론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 신나서 프로젝트를 했느냐? 속된 표현이지만 예술가를 어떻게 쓰느냐, 예술가를 신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서 어느 정도 알았던 거죠. 예술가는 존중 받아야지 그때 비로소 훨씬 더 성과라기는 뭐하지만 암튼 작업이 잘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민청 전시를 하잖아요. 작가들 면면을 보자면 예술원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와 유명세를 치르는 작가들, 그리고 모두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들이 참여했지만 아티스트피는 모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근태라는 큰 우산아래에서 민주주의의 내일을 생각하는 작가들이 모인 전시이니까요. 김근태 재단 관계자들이나 기획자 모두 작가들을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시니까 작가피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한 전시 선택의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신나게 하자나. 가치와 명분에 움직이는 게 예술가인



거죠. 다 마찬가지로 같아요. 잘하시고요. 잘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그 가운데 내가 다양한 선례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되고.

**김월식 퍼실리테이터의 조는 사업 초기부터 매달 모여서 각각의 예술가가 PPT로 진행과정을 진행했다는 말을 미리 들었던 터라 그에 대해 물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냉정한 거리 같은 건데. 친한 사람들이랑은 못해요. 내가 무늬만 커뮤니티(김월식 작가가 수년째 함께 작업해오고 있는 그룹이다.) 작가들이랑 앉아서 이게 될까요? 진지함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된 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논의과정에서 나온 방식인지, 다른 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해서 추가 작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예술가는 없었는지 물었다.**

제가 제안을 드렸죠. 반발은 전혀 없었어요. 운인거죠. 너무 좋은 분들만 오셨어. 우리조에...(웃음). 물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 쓰지 말고, 매달 조금씩 정리하자구요. 얼마나 충실한 보고서가 나오겠냐, 나중에 회고해서 쓰면 날아가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합리적이라고 다들 생각하신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례 같은게 된거예요. 매달 한 달 작업을 성찰해서 PPT로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PPT 작업에 익숙한 작가도 있고, 낯선 작가도 있었을 텐데?**

일인당 일피티가 아니고. 팀단위로 준비하니까. 다들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놀랐습니다. 너무 열심히들 준비를 해 오셔서. 그게 첫 번째에 분위기를 딱 타니까 두 번째부터 형식이 되었고. 이만한 작가 역량이 컸습니다. 그런 걸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 같아요. 수업 교안 준비도 해오시고. 다른 분들이 또 '저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금방 다들 캐치를 잘하시고 적용하시더라고요. 모델을 제시해주는 역할하고 스스로 학습이 다 잘 이루어진 거죠.

**좋은 퍼실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제안하는 것들. 자기 생각들이 그전에 있으면 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을 읽는 눈. 그다음에 순발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어떤 분이 퍼실에 적합하나 할 때 그 사람이 작가나 기획자나 하는 것보다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작가가 균형감각을 갖기가 힘들습니다. 균형감각을 가진 게 작가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편협하고, 외골수에 감각적이고. 직관이 물론 상황을 읽는 눈이란 또 연결이 되긴 해요(웃음). 좌뇌와 우뇌의 밸런스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의 퍼실리테이터들에게 꿀팁을 하나 부탁드렸다.**

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이 구조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곱이던 여덟이던 작은 커뮤니티잖아요. 자율적으로 물을 지킬 수 있게 독려하고. 물론 퍼실도 물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매주 가기로 했으면 매주 가야 합니다. 접촉면이 중요한 거예요.

**김월식 퍼실리테이터의 스타일처럼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에 회의를 가진, 일대일로 파견예술인들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도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도 물론 애매한 절충주의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개인적이고 편협성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접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쪼개서 기능에 맞게 넣으면 결국 도구화되기 쉬워요. 작가들이 조율도 해보고 밀어도 보고 우겨도 보고. 이런 게 아카데미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불가능하고. 이게 오히려 절충이라기보다는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돼요. 이만한 김형관 예술인은 다르거든요. 그 런데도 서로의 장점이 돋보이게 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워낙 세련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 김미남의 퍼실리테이팅 -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제비

**김미남** 이번엔 꼭 젊은 작가와 콜라보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결심했지. 그것도 전혀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하고 콜라보를 해보자 하고. 서브잡페어 할 때, 드러머, 영상미디어작가, 무용가, 동화일러스트 등을 만나서 신신당부했다. 꿈을 나눴다. 꼭 해보고 싶다. 프로젝트 사업이다. 혼자서는 힘들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콜라보하자! 혹해서 다들 1순위로 지망해줬다. 매칭도 한 번에 다 라인업이 계획대로 했다. 열심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양평터널에 그 세작가가. 원주시장은 윤보현, 이민영 이 작가분들은 내 소개로 예술인증빙했으니깐 당연히 나한테 지원했고. 속초작가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홍대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아야진으로 이사를 갔다. 외롭고 적적해서 지원했다. 원주까지 오기도, 다른 작가와 말하는 것 겁이 난다. 그래서 내가 언니처럼 해줄테니 오라고 설득했지. 결국 올기로 한거야. 이준우 작가는 연구하는 작가인데. 중앙시장 윤보현 공예, 이민영 사진, 이영순 문학, 전부 다른 분야를 모았다. 8명. 전혀 다른 작가로 협업을 제대로 해보자.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작가들이 흩어져 있어서 소통이 힘들진 않았는지?**

힘들었지. 하여튼, 파견예술인 할 때보다 다섯 배는 힘들었어요. 한 달에 20일쯤 뛰어다니는 거 같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호호. 소통은 일단 손영은 작가를 좀 고려했어요. 예술적으론 정말 천재야. 근데 인간관계가 싫어서 도시를 떠난 작가거든. 사업 전엔 우울증도 오고 그랬데. 근데 사업 짝궁이 된 이준우 작가가 부끄럼이 많아가지고 말수가 없으니까. 손영은 작가가 평생 살면서 말을 이번에 쟈 많이 했다. 호호. 맞아. 사업 끝나니까 다시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속초 퍼실을 지원해보라고 했지. 양평 작가들한테 손해 좀 보라고 했어. 요고 하나만 손해 좀 보자. 양평 작가들은 다 차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지 않냐 했지. 요고 하나만 손해 보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암튼 그래서 우리는 매번 원주에서 모이기로 했다.

**특별한 방법론이 있으셨는지?**

방법론 보다.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주어야 한다. 작가가 필요한 걸 줘야하는 역할이다. 뭔가 사업에서 다들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주에서 모이자고 한 거야. 윤보현씨가 파견사업 참여하다가 원주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장으로 갔자나. 거긴 예술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서로 자주 만나면 일이 생길 꺼 아니야. 장점도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좀 사심이 있었던 거지. 모일 때마다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민영씨는 12월부터 정식으로 취업했자나. 중앙시장에. 가장 어린 작가부터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머지 작가들은 어찌되었건 프로젝트 하나씩은 연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훈 작가도 시장에 초청되어서 공연도 했고, 엄희권 작가 영상 미디어도 내년에 초대 공연하기로 했고. 원주 시장 말고도 시장거리 페스티벌 감독도 소개시켜서 거리페스티벌에 출연도 하고. 앞으로 시장 공연마다 초대하기로 하고. 손영은 작가랑 이준우 작가 작품은 원주 중앙시장에 자리를 만들어서 영구 설치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중앙시장 벽화나 그림 작업에 결합하기로 하고. 또, 고대훈 엄희권 작가는 문호리버 마켓 기획단장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공연때 와서 보고 너무 좋아라 하는 거라. 12월 19일 리버마켓부터 일단 결합하기로 했지. 암튼 작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최대한 연결하고 다녔어.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영순 작가는 인문학 강좌로 연결시키고. 그분이 말을 낭랑하게 잘하고 차분하게 전달하거던. 사회적 활동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또다시 끊지 않으면 계속될 기세였다. 결국 김미남 퍼실리테이터와 작업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개인작업을 위해 사양한 경우인 한분 예술가를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에 결합되었다. 퍼실에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묶어주는 역할. 파견기관과 예술가. 예술가와 예술가. 다들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처음 두달이 어려운데 그걸 잘 이겨내야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 기획서 써나가는 것이 일련의 훈련이다 설득해야지. 대화도 중요하고. 시작 전에 이해를 얼마나 가지고 시작하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기업도 예술가도.

## 류성호의 퍼실리테이팅 - 고지를 향해 앞서 뛰는 돌격대장

**류성호** 기관은 항상 기능을 요구해요. 예상할 수 있는 형태들이죠. 하지만 저는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걸 예술인 파견사업의 이름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다 빼고 했어요. 빼고 하려면 저항이 있죠. 초반엔 그 저항을 최소화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기관의 저항을 줄이는 비법이라도 있는지.**

처음엔 우리가 새로 제안한거 다 싫다고 했어요. 벽화같은거 요구하는데. 그 결과는 이후 모델도 안나오고. 뻔한 결과가 예상되어서. 이럴 때 실험을 해봐야 한다. 모험을 해봐야 한다. 자기 투자가 작을 때 실험이 가능한 거다. 끝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은 설득이었을 텐데, 어떻게 설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류성호 퍼실리테이터가 꺼내 보여준 노트북의 속에서 그 답이 보였다. 그의 기관 제안서는 80장의 꼼꼼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올해의 분야별 접근 방법은 물론 3년 단위의 사업계획이 담겨있었다. 그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폴더에는 1711개의 파일이 10.3GB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퍼실리테이팅 방법에 대해 물었다.**

전 솔직히 많이 푸시 했어요. 방향만 정해두고 도와주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떠한 정도까지 퀄리티를 원하는지, 각각의 아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했어요. 다른 조보다 훨씬 힘들었을 꺼예요. 많이 좌충수련 부분이죠. 근데, 작가들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추가적인 작업을 만들지 다 구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개별적인 접근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전 집단적인 방식이 이 경우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 있고. 커머셜 같은 결과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나는 후자를 택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네가티브한 느낌이 먼저 전파될때가 많아요. 철저하게 일대일로 대화를 했어요. 물론 초반 리서치 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진행했죠. 8박 9일 합숙 했어요. 아무튼 결과와 퀄리티를 선택했고. 그래서 개별 작가들에게 퀄리티의 기준을 높여서 제시했어요.

**원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다.**

퀄리티가 나와야지만 작가가 그 결과를 부업이나, 연속작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던요. 실제로 작가가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아깝자나요. 정확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읍에서 성공을 해봐요. 그게 지역 관광 안내서라고 치면, 그것을 적용할 지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결과만 나오면 그거 정말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알아요. 이정도 시간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퀄리티를,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구조란걸요. 그러니까 번외로 더 일해서. 투자를 더 해서, 기업이나 기관이랑 이렇게 일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 당신만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내년도 퍼실리테이터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좋겠냐는 질문을 못들은 것인지 류성호 퍼실리테이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념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다.**

파견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개발자의 지향점이 느껴져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자나요. 그러니까 콘텐츠 진흥원 같은 기관하고 협업이 되어야 해요. 그쪽엔 인큐베이팅이나 콘텐츠 지원 사업들이 있자나요. 이쪽에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쪽에서 인큐베이팅 하는거죠. 6개월 내에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500명에 50명, 10명이라도 실제로 전환될 수 있게. 콘진원쪽에서 실행비, 프로모션 같은걸 도와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단에 전해드리려고 기획서를 쓰고 있거든요.

**류성호 퍼실리테이터, 그는 천상 기획자이다.**



## 김보경의 퍼실리테이팅 - 텔레포트와 주문을 시전하는 마법사

**김보경** \_\_\_\_\_ 저는 사실 일할 때는 어떻게 하나하면. 저만의 방법이긴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일할 때는 껏속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밀착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저는 잘 맞았고. 그래서 저는 이사업도 그렇게... 개별 밀착으로. 전체는 오히려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도로. 작위적이랄까. 사실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관계면 작위적이지 않은데. 예술가는 누군가가 그렇게 지시하고 해서 절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모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하면 피하는 성격을 많이 보았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더라도, 한명이라도 이러한 게 보이면... 그래서 저는 안했어요.

**김보경 퍼실리테이터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껏속말로 사업을 진행한 걸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근데 사실 이걸 하면. 저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예술가도 기관담당자도 엄청 많이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일이 되요.

**본인의 성격 중 어떤 측면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진정성? (웃음). 제가 완전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어요.

**진정성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사업이 더 잘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급히 물었다.**

보고능력어요. 기관이랑 하다보니까. 제가 단체에 있을 때도 보고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편찮은데. 형식적인 문서보고가 부족하거나 생각했어요.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를 문서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깨달았어요. 보고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이 들고, 7-8월에 확 쳤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되었어요.

자책에도 불구하고 김보경 퍼실리테이터는 올해 7~8월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7-8월은 세정에 살았어요. 하루 종일 있는 적이 많고. 10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 가고. 하루에 네 번 정도 미팅을 하고. 덕분에 휴가를 못 갔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직 2년차로 다소 부족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이들의 노력 덕분에 순항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56명의 퍼실리테이터들도 각각의 방법을 가지고 2015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에서 사력을 다했을 것이다.**

### 퍼실리테이터의 매력

**김월식** \_\_\_\_\_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내 능력과 저 사람의 능력이 만나면 어떤 그림이 되겠구나 하는 상상 같은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거죠.

**김민남** \_\_\_\_\_ 기관과 대하는데 자신감이 엄청 생겼어요. 변영희 회장님, 양평 군청, 축제 기획자.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구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보경** \_\_\_\_\_ 작가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업이랑 밀착해서 일을 장시간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기업문화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언어 같은 것. 저도 안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기업의 역학이랄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퍼실리테이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점은 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예술가들이 함께할 것이고, 따라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훨씬 더 다양할 것이라는 점이다. ◎**

## Part 2-6 자원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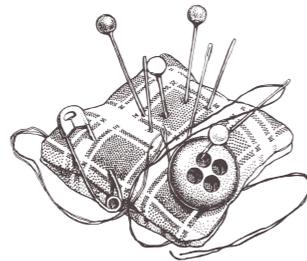
제일모직 CSR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거나 김장 담그기, 연탄 나르기를 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기업이 그런 일을 했나?' 하며 잊혀지기 일쑤고, 가끔 보여주기 식으로 활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지만 삼성물산 패션사업부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일반적인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과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CSR스토어 하티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쇼핑이 곧 기부가 되는 공간'을 모토로 아티스트들과 시즌 별로 협업하여 디자인 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폐원단 활용을 통한 신진작가 지원 활동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한 인테리어 등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상생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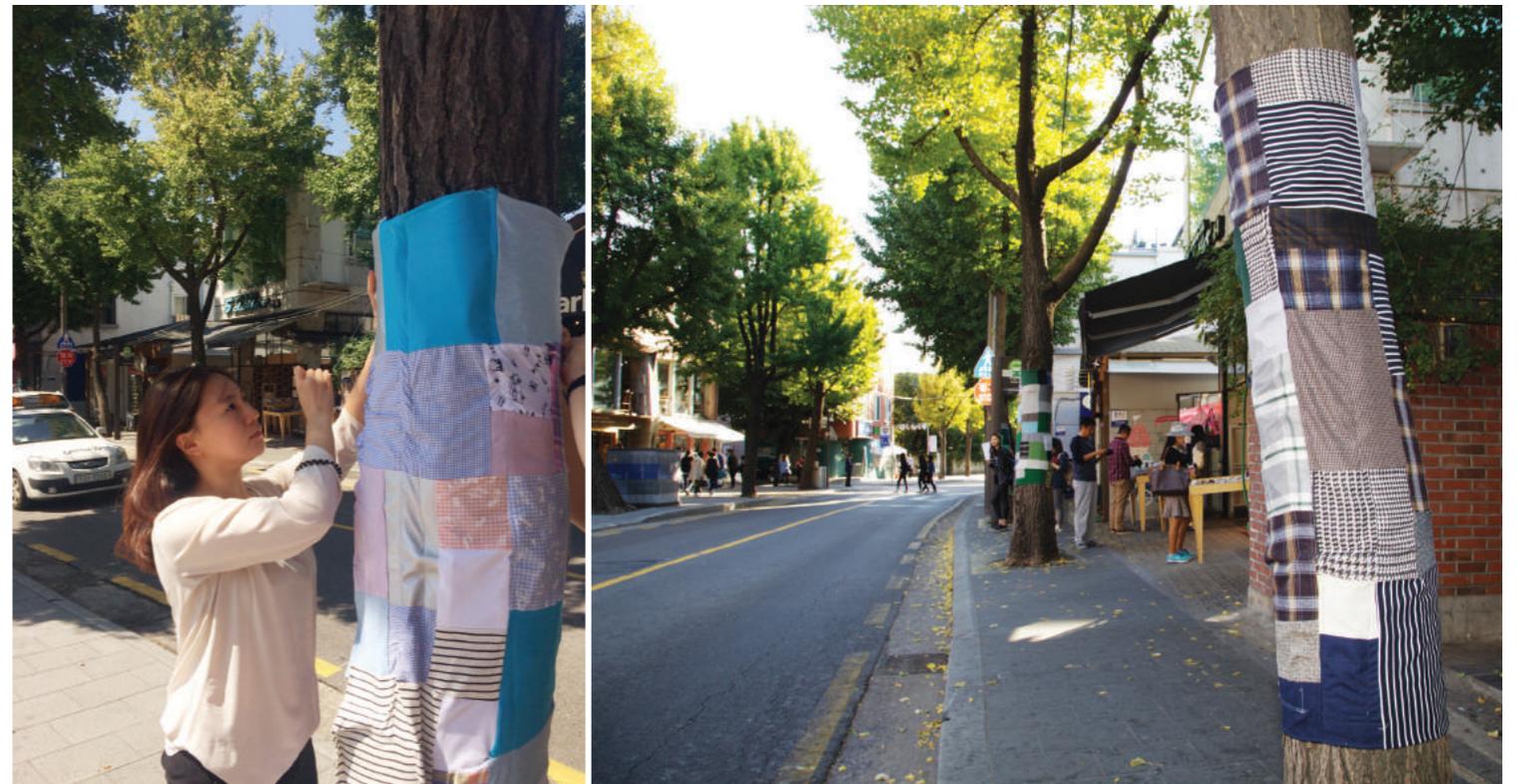
## 기업이 남긴 폐자원, 새롭게 태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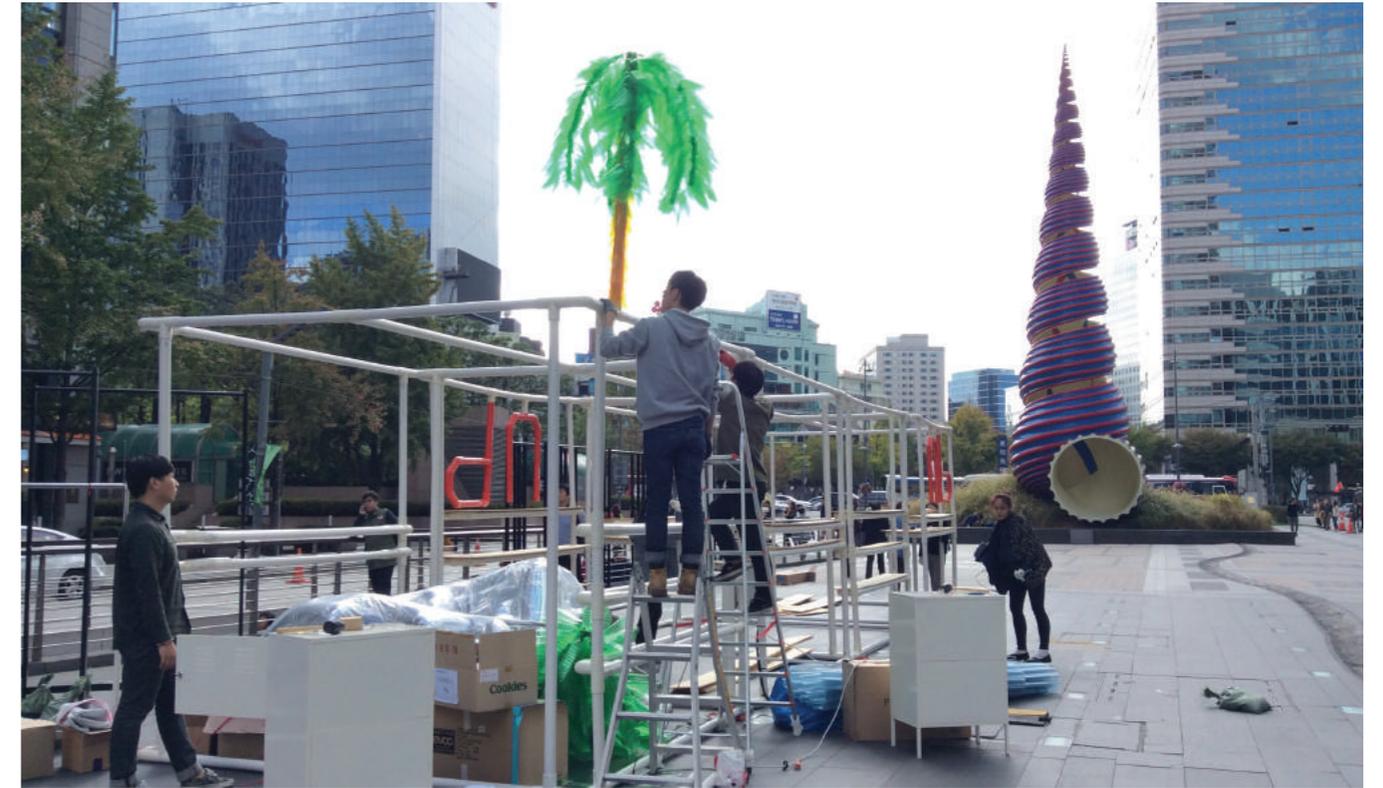
기관 명	제일모직(패션)CSR
프로젝트 명	Heart for Tree
파견 예술인	강민정(미술)
프로젝트 소개	제일모직 패션사업부의 사회공헌을 위한 CSR스토어 '하티스트'에 파견된 강민정 작가는 사회공헌과 공공미술을 결합한 형태의 프로젝트 <Heart of Tree>를 진행했다. <Heart of Tree>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의 폐원단을 활용하여 하티스트 매장이 위치한 삼청동의 가로수를 위해 옷을 만들고, 이를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신입직원들과 함께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곳에 미술작가가 파견됐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미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던 곳이니까 뻘한 디자인 협업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강민정 작가의 <Heart for Tree> 프로젝트는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빛나간, 하티스트의 설립 취지인 '사회공헌'을 훌륭하게 반영한 사례였다. 강민정 작가는 하티스트를 방문하여 하티스트 매장과 기업, 그리고 매장이 위치한 삼청동 주변을 꼼꼼히 리서치 했고,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냈다. 사내 직원들이 CSR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이 다소 일률적이고 단조로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삼청동은 서울 도심 속에서 작은 정원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곳으로, 이 부분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기업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었다. 강민정 작가의 <Heart for Tree>는 이 두 가지 포인트와 하티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 패션사업부의 '패션사업'을 결합하여 진행된 프로젝트로, 남은 자투리 원단을 모아 추운 겨울 나무를 위한 옷을 만들고, 이 옷을 하티스트 매장 주변 가로수에게 입혀주어 '나무 옷 길'을 조성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민정 작가는 자신의 분야를 살려 한국의 미, 조각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투리 원단을 이어 붙이는 형태로 나무 옷을 제작하였으며, '삼청동', '친환경', '하티스트'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색상을 조합하여 아름다움과 공공성을 동시에 살리곤 했다. 또한 1인 파견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민정 작가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업사이클 분야의 사회적 기업 '터치 포 굿'과 협업하여 나무 옷을 제작하였고, 사회공헌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나무 옷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패션사업부의 신입사원 약 30여 명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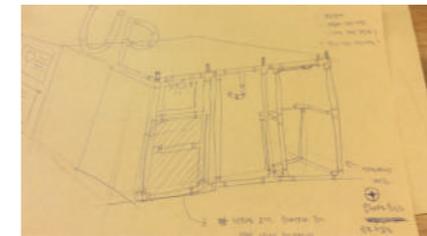
강민정 작가의 <Heart for Tree> 프로젝트는 예술가에게도, 기업에게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남았다. 기업의 CSR 활동과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기업 내에서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리는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기업의 사업분야를 살리고 (패션사업부에서 폐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공헌하는 활동(공공미술 프로젝트)을 진행한, 바람직한 CSR 사례로 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추운 겨울, 나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이번 프로젝트가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 지는데 한 걸음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





## 알고는 있었지만, 다가서지 못했던.

<b>기관 명</b>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
<b>프로젝트 명</b>	업사이클링 전시 모듈화 기획 지원
<b>파견 예술인</b>	조혜진(미술), 유영진(미술), 윤재민(음악)
<b>프로젝트 소개</b>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의 전시에 활용되는 부스의 모듈화를 통하여 다수의 전시 참여 때마다 조립과 해체가 가능,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더불어, 부스의 소재는 폐자원이거나 저렴한 파이프라인 등으로, 제작비 역시 자원재생 차원에서 많이 절감하였으며 협회 측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그들만의 부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다. 고민이 고민인 이유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식혀두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민이 아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이런 고민이라는 것이 있다.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업무들이나 이슈로 인해 방치해 두다보니 이것을 세련된 방법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조직 내의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그 고민거리를 담당하기엔 지금 상황으로도 벅차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와 참여 예술인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해주는 이들이다.

"우리는 '색다른' 부스가 필요해요."

여기에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회가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시 참여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업사이클 제품이 '예쁘게', 또는 '멋지게' 보이게 하려면 부스도 다른 부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톱골텐트를 생각해 보라. 그 안에서 업사이클 제품을 선보인다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단순히 '재활용 캠페인'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큰 규모의 기업들이 모인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대표들도 일당백을 하는 이들기에 전시를 위한 부스 같은 부분까지 신경쓰기에는 너무 바쁘다. 쉽게 말하자면, 업사이클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색다른' 부스가 필요한데, 그 부스를 만드는 데 신



경을 쓰기에는 일단 바쁘고 예산도 많지 않으며, 참여하면 좋을 박람회나 전시 요청은 자주 들어온다.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의 고민은 이것이었다. '우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부스가 필요하다.'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는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고, 이곳에는 3명의 각기 다른 장르의 젊은 예술인들이 협회를 알고 있던 한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매칭이 되었다. 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시에 많은 초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참여할 때마다 부스를 대여하고,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해당 이슈에 대해 협회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파견예술인들은 '부스의 모듈화'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윤재민 작가는 3D도면을 통해 실제 이것이 구현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 협회 측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음악 장르의 작가였지만, 그는 3D 작업까지 가능한 능력자였던 것. 조혜진 작가는 부스의 미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기존에 설치미술 작업을 주로 해오던 그녀는, 부스의 차별화 포인트로 업사이클이라는 장르에 맞게끔, 버려진 패트병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도맡았다. 유영진 작가는 그 부스에 놓여질 업사이클 제품들을 더 돋보게 할 수 있도록 사진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협업을 지켜봐 왔던 협회의 박미현 대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회상했다. **"사실, 기업이 아이디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화의 문제지요. 다들 바쁘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올해 같이 작업을 했던 세 작가님들은 바로 그 지점을 잘 끊어 주신 것 같습니다."** ◎



# 천 천 히 살 아 가 는 삼



## SLOBBIE X ARTIST

가 시 는 웹툰

설 치 정 민 희

도심 한복판 '홍대'에서의 슬로우라이프를 전하는 카페 슬로비. 이 곳을 오가는 분들의 느리게, 혹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웹툰으로 작업 하였습니다. 웹툰 속 장면을 공간 전시로 확장해 슬로비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소통 하려 합니다.

천천히라는 의미와 그 단어가 사용 되는 예문을 찾아 나열해 놓았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향하는 삶에 대해 다시 말하여 보고자 합니다.

| 일 정 | 2015/10/19-12/28 | 장 소 | 홍대 카페슬로비 | 전 시 작 가 | 가 시 는 & 정 민 희



\*본 전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Design 손현심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 Part 2-7 지역 공간

정읍시청  
부산시 사하구청  
부여슈퍼  
빈센트 반고흐  
보스토크  
서울시 중구보건소



#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사업으로서의 가치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시선과 역할

정읍시청

염석무(연극), 채충명(연극), 박선옥(연극), 박인선(미술), 이성진(영화), 이승연(미술), 최진성(미술)



●○○○○○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업으로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계획했다. 지역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과 실현하는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과 다른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예술인들의 가치를 지역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인력으로서의 예술인을 인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정읍시청의 경우 사업 실행 1차 년도에 가능성을 이해한 지자체에서 먼저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었던 곳이다. 2014년 가을에 파견사업의 주요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던 멘토와 재단 담당 직원을 지역에 초대해 팸투어를 비롯해 주요 간부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고, 구체적 사업 내용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파견작가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5년 사업의 경우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작가들이 정읍시청에 파견되면서 결과적으로 작가 당 집행 가능 금액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부분은 정읍시청에 지속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역민과 관계하고 지역에 기능하며 지역에 남겨놓을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모

두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 사업의 방향과 가치를 제안하고 구체화에 대한 과정을 조율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본적인 지역 리서치와 사업 진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의 퍼실리테이터, 소모적 결합이 아닌 생산적 계기로 프로젝트의 직접 실행을 담당하는 예술인,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확장시키는 주체로서의 지자체가 모두 함께 말이다.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사실 계획이 크고 진지했던 만큼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도 작지 않았다. 특히 참여 작가들의 고민을 체감하는 시간이 많았다. 정읍시청 사업은 시작할 때 주요한 방향과 역할을 설정하고 매칭된 작가들이 관련 작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주요한 사업 방향은 정읍시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과 다른 방법을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상징적인 지역 특산물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브랜드하는 패키지 리뉴얼 프로젝트의 이승연(미술, 디자인), 지역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의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고민한 채종명(연극기획, 축제기획),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주요한 활동과 인적 자원을 리서치한 최진성(미술작가, 커뮤니티아트), 스스로 여행을 디자인하고 기

록하며 체험을 공유하는 20~30대 여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여행책자 제작 준비 프로젝트의 박선옥(연극, 여행작가), 정읍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 조형물을 제작하고 흥미를 유도해내는 박인선(미술), 전문 연극배우들이 참여해 주목의 대상으로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주민들의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한 염석무(연극), 지역에서 집중하고 있던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동학농민혁명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관련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무용수를 섭외해 댄스필름을 제작한 이성진(영화, 영상)으로 정읍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승연 작가와 팀으로 함께 활동하는 영국인 작가 Alexander Augustus(미술, 영국), 최진성 작가와 함께 활동하는 달문(미술, 전주) 작가가 자발적으로 정읍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에 동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성진 작가가 제안해 동학농민혁명 댄스필름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무용수는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양길호(현대무용)였다. 이렇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작가 7명과 자발적 참여작가 3명이 더해져 도합 10명의 아티스트가 정읍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했다.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고민과 갈등을 많이 동반하는 사업 초기 구상과 실천에 참여하며 앞으로 정읍시청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함

께 작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몇 가지의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역 문화콘텐츠 생산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투여한 최진성작가와 달문작가, 아주 구체적인 사업으로서의 지역 특산품 패키지 리뉴얼 작업의 이승연작가와 Alex 작가, 동학농민혁명 댄스필름을 제작하는 과정에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그래픽노블 작가를 정읍에 초대해 관련 콘텐츠 생산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던 이성진 작가, 작업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시선과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홍보를 고민했던 박선옥 작가 등의 작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 콘텐츠진흥원, 중기청, 디자인재단 등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



<b>기관명</b>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b>프로젝트명</b>	사하드로잉
<b>파견 예술인</b>	오세린(미술)
<b>프로젝트 소개</b>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의 평생학습과 홍보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세린 예술인을 주축으로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한데 모여 사하구를 상징하는 울속도 철새와 식물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홍보관 벽면을 꾸미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캐리커처와 함께 전시물로 완성하여 홍보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 우리 손으로 꾸미는 홍보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된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곳이다.

이 곳, 감천문화마을이 위치한 사하구의 구청에서는 이러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이어가고자 했다.

유치원생부터 70세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사하구의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모여 함께 강당에서 평생학습관을 꾸밀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사하구청에 파견된 오세린 작가가 있었다.



### Q. 공공기관과 예술이라니, 어쩐지 안 어울리는 만남이다.

**김경란 계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다(웃음). 아시다시피 관에서 하는 작업은 제약이 많은 편인데다, 딱딱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하구청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준옥 퍼실리테이터님의 소개로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예술인과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예술인은 개성이 강한데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까지 해오던 작업과 달리 공공미술의 형식으로 결과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줄 예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함께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세린 작가** 나 역시 파견 기관이 구청이라는 말을 듣고 딱딱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부드럽다(웃음). 처음 기관에 파견되어 사하구청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존 사례를 조사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성과가 매우 우수하더라. 평생학습 수업을 통해 실제 극단에서 활동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사례들을 보고 나니 기관에서 하게 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 Q.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김경란 계장** 해마다 9월이 되면 사하구청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과 어울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한다. 이 행사를 위해 3일 간 홍보관을 조성하는데, 지금까지는 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해왔기 때

문 에 일반적인 현수막 형태의 결과물로 홍보관을 꾸몄다. 솔직히, 뻘하고 재미가 없었다(웃음). 하지만 이번에는 오세린 작가님의 협업으로 '공공미술'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예술가, 구민, 평생교육생들이 사하구의 상징인 철새 도래지 '울속도'와 '고니'같은 철새들, 사하구의 갈대, 수중식물 등을 주제로 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들로 홍보관을 꾸미는 작업이었다. 작가님을 제외하고는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의 지휘가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세린 작가** 처음 기획한 '사하드로잉'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는데, 기획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하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규모가 커졌다. 지난 7월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약 30 여명이 모여 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1070 사하드로잉'을 진행했고, 이때 그려진 이미지를 선별, 데이터화하고 재단하여 설치물을 만들었다. 이 설치물은 홍보관 벽면을 꾸미는데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새 진로를 찾아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분들의 얼굴을 캐리커처 형태로 작업하여 홍보관에 전시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잘 '포장'되지 못했던 평생학습관의 좋은 사례들이 '멋있게' 보였기를 바란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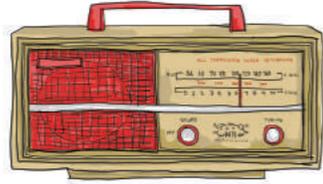
### Q. 양쪽 모두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여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화한 점이 있다면?

**김경란 계장** 먼저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많이 사라졌다. 예술인하면 '까칠'할 거란 생각에 첫 만남 때 직원들에게 '단디' 준비하라고(웃음) 했었는데 털털하고 잘 웃으시는 분이었고,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예술이 나와 동떨어진 활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뭐 하러 그리냐고 투덜대던 어르신들도 나중에는 다 함께 그림을 완성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은 물론, 기관 입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파고드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홍보적인 면에서는 두 말할 것 없고, 우리 기관의 사례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술인과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도 이런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오세린 작가** 나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큰 전시를 다 맡아서 기획해본 적이 없어서 망할까봐 도망가고 싶었지만(웃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다행이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기관과 작업해볼 경험이 없었을 나에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처음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피상적이고 보여주기식 작업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개인작업과 칼같이 선을 긋고 감정이입 하지 않으려 했다. 게다가 부산과 전혀 연고가 없기도 했고. 하지만 사하구와 사하구 주민들을 알아갈수록, 이 지역과 사업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부산 내에서 문화적 혜택이 최하위 구인 사하구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나눌 수 있어 기뻐고,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곳과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 ◎

# 부여슈퍼가 전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기관 명	부여슈퍼
프로젝트 명	부여슈퍼 페이지 만들기 프로젝트
파견 예술인	신지영(문학)
프로젝트 소개	4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부여슈퍼의 활성화를 위해 파견된 신지영 작가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지역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부여슈퍼에 주민들이 모여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인 '가맥집'을 만들었고, 부여슈퍼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부여슈퍼 페이지를 만들어 부여슈퍼의 이야기를 전했다.



파견기관 목록에 '슈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견기관이 슈퍼라니? 슈퍼, 친숙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슈퍼보다는 마트, 편의점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슈퍼들은 급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에 밀려 사라져가는 공간들 중 하나가 되었다. 40여 년 전 지어진 모습 그대로 오롯이 남아있는 금천구 시흥동의 부여슈퍼도 이러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같은 골목에 딱 하니 편의점이 생겨버렸고, 자주 찾던 단골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져 버린 것.

그러던 어느 날, 부여슈퍼에서 예술가를 통해 '이야기'라는 것이 흘러나왔다.

**"부여슈퍼가 처음 생길 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40년 전이면 정말 옛날 옛적 같죠. 하긴 십 년 만에도 동네 모습이 바뀌는 요즘을 생각하면 40년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시절이기도 하죠. (중략) 부여서 올라온 부부는 그 부대 앞쪽에 슈퍼를 열었지요. 가정집이 붙어있는 자그마한 슈퍼였어요. 이름은 고향이름을 붙여서 부여슈퍼라고 지었지요. 고향 이름이 붙으니 조금은 정답고 든든하기도 했지요(후략)." (부여슈퍼 페이스북 페이지 글 중)**

40여 년간 변함 없이 머물러 있던 부여슈퍼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였다. 그것도 슈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SNS 페이지를 통해서 말이다.

부여슈퍼에 파견된 신지영 작가는 부여슈퍼가 위치한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 있다. 부여슈퍼를 파견기관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같은 동네 주민이자 부여슈퍼의 단골인 하림 퍼실리테이터의 권유였다. **"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오래된 집을 지키고 있는 내용의 동화 <짜**

**구 할매 손녀가 왔다>를 쓰고 있었어요. 부여슈퍼가 40년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쓰고 있는 얘기와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동네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아 너무 잘됐다 싶어서 바로 신청했죠."**라며 말문을 연 신지영 작가는 **"처음 부여슈퍼에 가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벽화 같은 걸 그려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함께한 화가 선생님하고 하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이전에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는 특별한 성과가 되지 않았었다고, 그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부여슈퍼 주변을 돌아보고 아주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고민했어요."**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돈 문제보다 오던 단골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마음이 아프셨다는 부여슈퍼 아주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부여슈퍼 가맥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옛날 가게에서 맥주를 팔던 운치가 있으니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부여슈퍼 가맥(가짜 맥주집) 프로젝트>는 부여슈퍼 앞에 평상을 설치하고 간판을 만들어 맥주와 안주를 파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비록 사업기간 등 여러 한계로 인해 계획대로의 진행은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오다가다 자꾸 앉아요. 아주머님은 자꾸 말 걸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사랑방 같이 되더라고요. 물론 편의점에도 파라솔 같은 걸 많이 놓고 있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사람 중심이라기 보다는 물건 중심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슈퍼마켓은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감이 있죠."** 신지영 작가의 프로젝트를 함께 한 하림 퍼

실리테이터의 소감이다.

신지영 작가는 자신의 분야와 부여슈퍼가 가진 특징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하였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부여슈퍼는 짧은 역사의 마트나 편의점은 가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이 이야기들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부여슈퍼 페이지를 만들고 부여슈퍼가 가진 이야기들을 전하는 <부여슈퍼 페이지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탄생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중략) 오래된 것에는 새것에 없는 세월이 있어요. 그것을 만지고 썼던 사람들의 사연이 새겨져 있죠. 요즘 부여슈퍼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략) 아주 새로운 것과 아주 오래된 것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집이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정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냥 시멘트 바른 벽돌들은 아니라는 거죠. (중략) 부여슈퍼 앞의 평상에 앉아 하드 하나 먹으면서 살랑살랑 바람을 맞으며 그리운 집을 생각하면 마음까지 따뜻해 질 거 같지 않으세요?"(부여슈퍼 페이스북 페이지 글 중)**

40여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부여슈퍼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걱정하던 신지영 작가의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단숨에 페이지 '좋아요'를 600여 개를 받았다. 각박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여슈퍼의 이야기가 잊고 지내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그 위로와 힘은 **"힘내라 부여슈퍼"**, **"이런 가게 앞에서 캔맥주**

**마시고 싶어요"**, **"오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등 부여슈퍼를 향한 애정 어린 응원의 메시지로 돌아왔다. 신지영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서적으로 그냥 보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



# ‘로컬-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빈센트연가’



기관 명	빈센트 반고흐
프로젝트 명	로컬-르네상스
파견 예술인	김은총(음악)
프로젝트 소개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빈센트 반고흐에 '지역 싱어송라이터' 김은총 예술인이 파견되어 카페를 위한 노래 '빈센트연가'를 제작했다. '빈센트연가'는 카페 대표, '빈센터'라고 불리는 카페 단골들로부터 빈센트 반고흐가 가진 약 40여년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담은 노래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만들어 빈센트 반고흐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기억공간이자 지역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지역 문화 활성화의 첫 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공간’은 이야기를 담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단순한 ‘장소’일 것이다. 사실 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 하는 것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다. 물리학에서는 ‘물체 사이의 공간적 관계의 집합으로써 정의되는 구조’로 공간을 설명한다면, 천문학에서 공간은 ‘우주의 빈 부분’이다. 이렇듯 학계마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공간을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 정도로 가볍게 규정하고 이야기를 할까 한다(물리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독자가 무섭다). 그리고 이곳에 전주의 한 오래된 카페인 ‘빈센트 반고흐’라는 공간을 기억하려고 하는 김은총 작가의 ‘이야기’가 있다. 자신을 ‘지역의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하는 김은총 작가는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지역적인 음악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어떠한 목표나 꿈이 있더라도 시작은 항상 어려운 법이다. **“지역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더 사랑받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라며 운을 뗀 그는, 때때로 긴 고립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술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빈센트 반고흐’라는 카페에서의 프로젝트, ‘빈센트연가’를 통해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총 작가가 진행한 ‘빈센트연가’는 작가는 카페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크게 보면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한 첫 삽이었다. 지역의 뮤지션으로서 솔한 공연과 작품 활동은 했지만 그럴수록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간’, 전주라는 곳만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빈센트연가’는 단순히 예술인이 특정기업이나 기관의 노래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적이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을 기념하고 그 공간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여러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계기를 열어준 소중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얼마나 오래된 곳이길래 카페를 ‘공간’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소중한 곳이라는 건지 궁금했다. 물어보니, 이곳 ‘빈센트 반고흐’는 1979년에 문을 열어 35여년이 훌쩍 넘은 카페란다. 우후죽순처럼 프렌차이즈 카페들이 생겨나는 통에, 그간 견뎌낸 세월만큼이나 이곳의 단골들은 ‘빈센터’라고 불리우는 영예(?)까지 누리고 있다. 이번 김은총 작가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빈센트연가’는 디지털 음원으로 나오게 되어 지난 10월 30일 ‘빈센터’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두 명으로 구성된 그의 모던포크 팀인 ‘이상한 계절’의 쇼케이스까지 진행했다.



Open your eyes **웬다잉 전시회**

# 망우忘憂

—

# 근심을 잊다

참여작가 신영대, 장명훈, 한정원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프로젝트 결과보고전

## 2015서울생사문화주간 ‘Open & Change’

- 일시 : 2015. 9.7(월) ~ 9.13(일) - 7일간
- 장소 : 청계광장 일원

전시장소  
청계천 광고갤러리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9

관람기간  
2015. 9. 9(수) ~ 9.12(토) 10:00-19:00



“2015년 10월 30일은 평생에 잊지 못 할 하루였습니다.” ‘빈센트 반고흐’의 사장님은 진심어린 한마디를 전했다. “대학생 딸을 데리고 온 중년의 아버지부터 교복을 입고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이 공간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모여 빈센트 반고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곳을 사랑해주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성 있는 공간인 카페 빈센트반고흐를 만나 공간의 의미와 카페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저의 작업이 단순히 음악을 만들어 카페를 홍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40여년의 기억을 지키고 회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김은총 작가가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감을 남겼다.

그래. 김은총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이런 사업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된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요즘,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장소’라는 기능적인 내용만이 오가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공간을 지키고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비록 전주 30평 남짓한 카페 ‘빈센트 반고흐’가 필자의 과거의 시간이 담겨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했던 공간에 대한 추억을 잠시 생각해 본다. ☺



## ‘복합문화공간’을 꿈꾸는 보스토크의 특별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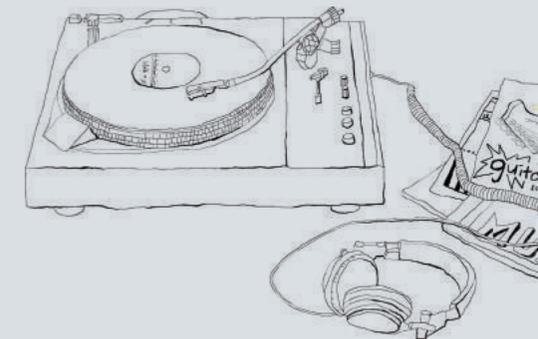
기관명	보스토크
프로젝트명	무빙 스페이스
파견 예술인	한석경(미술), 이은형(음악), 이정아(연극)
프로젝트 소개	문화공간으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연희동의 카페 보스토크에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예술인이 모여 ‘무빙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무빙 스페이스’는 보스토크에 모여 예술인들이 허물없는 이상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 <예연시간>과 독립출판물을 바탕으로 보스토크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설치물을 제작하여 전시한 <움직이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스토크는 단순한 카페에서 벗어나 손님이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보스토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더니, 구소련에서 만든 인류 최초의 우주선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파견예술인이 우주선에 예술 활동을 한 걸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전국 단위의 현장들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동하는 시간에는 방문 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예술가들을 만나다 보니 필자도 나름 창의적이 되나보다 후훗)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찾아가는 곳은 서울의 연희동. (그곳에 우주선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보스토크는 바로 ‘카페’였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실험적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를 즐기며 카페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공간이 되길 원하는. 쉽게 말해서 복합문화공간이랄까. 이곳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손길이 닿았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이용한 미술작업을 하는 한석경 작가, 이야기를 만드는 이정아 연출, 싱어송라이터 이은형(활동명 이선율)작가가 바로 그들이다. 보스토크에서는, 카페라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전하는, 이 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보스토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에서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러니... 시작부터 고민의 연속이었죠. 하하” 한석경 작가는 보스토크와의 첫 미팅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다.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은 그야말로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이에게는 커다란 과제로 다가온다. 그런데 어떡하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모미는 바로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파견예술인으로 보스토크를 찾아왔던 세 명의 예술가들은 얼마간의 밀착업이 필요했다. 보스토크라는 공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지에 대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던 중, 카

페를 방문하는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은 ‘움직이는 마음-보스토크에 머무른 말들’이었다. “일종의 다원프로젝트예요.” 이정아 작가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키워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이블마다 테이블 시트와 연필을 배치해서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흔적을 남기게끔 했습니다. 한 3개월 했나요. 그랬더니 꽤 많은 내용의 결과물이 나와서 이를 토대로 전시까지 하게 되었죠. 하나 재미있는 건 그 때 흔적을 남겼던 분들께서 오셔서 전시를 보고 본인들이 남긴 것들을 찾아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에요.”



“무빙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는 보스토크를 예술적인 카페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이은형 작가의 말이다. “크게 두 갈래의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공간을 활용한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팟캐스트 제작이었죠.” 팟캐스트? 라디오를 녹음해서 무엇을 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취재진의 표정을 읽었는지, 곧바로 설명을 이어간다. “아, 예술하는 언니들의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예연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각기 다른 장르의 저희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보스토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그런 팟캐스트예요.” 이야기를 들던 한석경 작가가 보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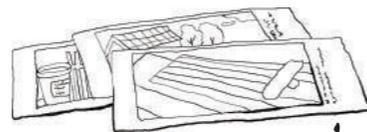
“왜,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예술에 대해서도 접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진실되게 이야기했어요.” 이 방송은 14회까지 녹음, 송출되었고 나름의 청취율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이 팟캐스트로 인해 보스토크라는 공간은 특정한 나름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스토크의 담당자는 말한다. “세명의 작가님들과의 작업은 손님들이 우리 보스토크라는 공간을 좀 더 친근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작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감도 잊지 않았다.

**“예술적 창의력은 어디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미있는 생각들이 빛을 보기 위해선 우리들 스스로가 느리게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참으로 결과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가져다 주는 의미들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었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쁘게만 살고 있을 때, 예술가들은 묵묵히, 조용히 그 궤적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조금, 천천히 살아보자고.’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다른 공간에 있던 쿠퍼가 ‘STAY’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



기관 명	서울 중구보건소
프로젝트 명	지역이미지 리메이킹 작업
파견 예술인	곽인진(미술)
프로젝트 소개	곽인진 작가는 ‘지역이미지 리메이킹’이라는 큰 프로젝트 아래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나는 중구의 어린이들, 초·중학생들과 함께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수업 동안 아이들이 그려낸 이미지를 정리하고, 스스로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조성하는 작업이다. 약수동의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에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한 벽화가 완성되었고, 아이들의 그림을 토대로 황학동을 대표하는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작업을 했다.



## 아이들이 만드는 우리 동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과 지역 벽화 그리기. 곽인진 작가의 프로젝트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보건소’라는 공공기관과 함께 한 프로젝트여서 이런 제한적인 활동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실망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단순한 ‘외주 인력’으로 취급되어 활동을 한 걸까 하는 걱정. 하지만 곽인진 작가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미술 수업’도, ‘벽화 그리기’도 아니었다. ‘지역이미지 리메이킹’이라는 큰 틀 아래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미술 수업’은 수단이었고, ‘벽화 그리기’는 결과였다. 미술 수업을 통해 얻어낸 창의적인 이미지를 지역이미지 리메이킹에 사용한다, 예술인이 아니면 생각하기도, 실행하기도 어려운 재미있고 참신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곽인진 작가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 Q. 지역사회 특성화에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하니, 발상이 재미있다.

**곽인진 작가** (웃음) 학년이 올라가고,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차츰 잃어가긴 하지만, 아이들은 깜짝 놀랄 만큼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지역사회 특성화 소스로 활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중구 황학동은 ‘주방용품’으로 유명한데, 아이들이 그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황학동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 Q. 진행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듯 한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린다.

**곽인진 작가** 먼저 중구에 위치한 황학 어린이집, 약수 어린이집, 약수동 주민센터에서 5-6세 아동들,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교실을 진행했다. 수업 초반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창의력을 발산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

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이 발산되기 시작할 즈음 본격적으로 지역이미지 리메이킹을 위한 이미지를 그리는 수업을 진행했다. 황학동의 아이들과는 함께 주방용품을 그리면서 주방용품이 유명한 황학동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발굴하는데 주력했고, 약수동 아이들과는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모습, 환형하는 마을 주민 사람들 등을 함께 그려나갔다. 아이들이 그린 이미지는 약수동 벽화의 소스가 되었다. 약수동에는 중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 산책로가 다소 맛있는 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에 있는 벽면에 벽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아이들이 그렸던 이미지들을 정리, 잘 어울리게 배치하고 아이들, 동네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렸다. 아이들, 동네 주민들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 Q. 참신한 시도인 만큼 소감도 남다를 듯 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듣고 싶다.

**곽인진 작가** 이번 사업이 기관과의 첫 협업 경험이었다. 내가 기존에 하던 캐리커처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업의 영역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다. 비록 기존에 하던 작업과는 전혀 다른 작업인데다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나 자신에게 도움, 자극이 되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다행히 수업 막바지에는 학부모들도 만족했다.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과정 또한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웃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아이들과 그림으로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신선한 시각적 자료들을 무수히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아이의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이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작가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 Part 2-8 지역특성화

양평+원주중앙  
연천+백학  
이야기너머  
석수유통  
강화고려역사재단





**작지만 특별한 무대 - 양평텃골광장**

지역특성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나 군, 적어도 마을 단위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쉽지만, 양평텃골예술프로젝트의 무대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하나의 광장을 무대로 진행되었다. 양평텃골광장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역 앞에 위치한 작은 광장이다. 작은 광장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울에서 한강을 타고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이 지나는 길이고, 지역민들이 플라마켓을 운영하며 지역특산물이나 중고물건을 판매, 교환하는 곳이다. 양평 군청은 이곳에 아신갤러리라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 가을마다 양평텃골예술광장 축제를 열고 있다.

양평지역에서 오랜 세월 활동해 온 김미남 퍼실리테이터는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광장에 관심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만큼 다소 요란한 프로그램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김미남 퍼실리테이터는 파견예술인들에게 참여기관을 소개하는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젊은 드러머 고대훈과 비디오 아티스트 엄희권을 일찌감치 섭외했다. 이후 동화작가 김동연이 결합하면서 작지만 특별한 공간 양평텃골광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예술광장에 없었던 것**

많은 예술인들이 정착하면서 많은 예술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는 텃골광장. 드러머 고대훈과 비디오 아티스트 엄희권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만나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었다. 드러머 고대훈은 드럼을 들고 양평텃골광장과 인근 마을을 돌며 연주를 선보이고 마을 분들의 반응을 살폈다. 세월리 노인회관에서 드럼 솔로를 연주하다가, 할아버지들의 조연으로 한국적인 리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빈누에공장에서 공연 홍보물 촬영을 진행하다가 쫓겨나는 수모도 겪었다. 드럼 솔로 연주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지만, 하지만 조금 더 역동적인 무언인가 부족했다. 고대훈 작가는 평소 자주 함께 공연하던 베이시스트와 탭댄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두 아티스트는 흔쾌히 양평텃골 프로젝트에 결합했다. 주변 마을을 돌며 공연을 펼치고 마을 분들의 호응에 따라 공연의 레퍼토리를 수정해나갔다. 이들의 작업을 흥미롭게 본 김미남 작가는 양평텃골의 이 새로운 팀을 자신이 퍼실리테이팅 하고 있는 원주중앙시장과 원주외국인지원센터에 소개하였고, 원주중앙시장은 이들을 정식으로 초청해 공연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 양평텃골 예술프로젝트 +시장 안 삶, 50년의 이야기

양평군청

고대훈(음악), 김동연(미술), 엄희권(사진), 양평 이민영(사진), 이영순(문학), 원주



비디오 아티스트 엄희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양평으로 향해 풍경과 사람들을 비디오에 담았다. 양평의 자연과 사람들이 담긴 무엇인가의 이미지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만난 지역 미술가 한분에게 1999년에 양평에서 백남준 전시가 크게 열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양평에 수많은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디오 아트 작품은 그 백남준의 전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엄희권 작가는 백남준의 후예를 자처하기로 결심했다. 동묘 시장을 돌며 브라운관 TV와 오래된 텔레비전을 사 모았다. 백남준 작가가 1950년대 말 존케이지와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 예술계 전체의 변화를 이루어 냈듯, 미술 중심의 양평 예술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양평을 함께 오가면서 고대훈, 엄희권 작가의 작업은 자연스럽게 결합되기 시작했다. 비디오 아트와 드럼, 그리고 탭댄스의 조합은 일부러 맞추어 시작한 것처럼 잘 어울려졌다.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를 배경으로 한 연주, 비디오 아트와 탭댄스의 조합으로 이어지는 공연의 레퍼토리가 완성되었다.

2015년 10월 30일 리틀 백남준과 존케이지는 양평텃골공원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마쳤다. 마지막 공연 준비과정에서 양평군과의 조정 문제로 예정보다 짧게 전시와 공연을 마치게 되었지만, 양평군청은 이후 프로젝트에서 이 두 작가와 다시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김미남 퍼실리테이터는 양평을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2014년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서, 원주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혔고 지금은 대부분의 활동이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대훈, 엄희권 작가의 주요 무대가 양평지역이 되지 않을까? 미술만으로 이루어진 예술광장이 드럼 연주와 비디오 설치 예술로 더욱 풍성해질 내년을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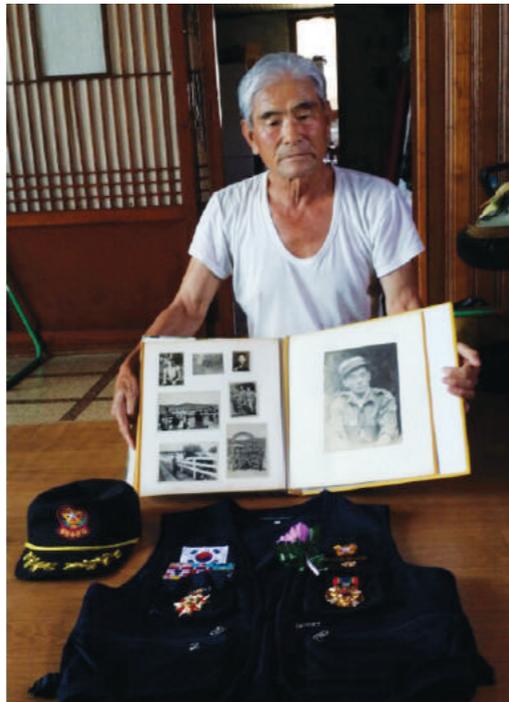
기관 명	연천군청 / 백학면주민자치위원회
프로젝트 명	연천프로젝트 '예술공원'
파견 예술인	문미희(미술), 권재우(연극), 연천 / 이종균(미술), 김주용(영화), 백학
프로젝트 소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천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깊은 역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연천군청에 파견된 문미희, 권재우 예술인은 '임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청과 함께 적벽, 주상절리 등의 자연경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역, 관광 콘텐츠 R&D 활동을, 백학면에 파견된 이종균, 김주용 예술인은 백학면의 6.25 당시 역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다.

## 예술가들이 찾아낸 '연천 · 백학' 이야기



경기도 중앙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은 지구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의 적벽과 주상절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일반적인 주상절리와 달리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 지질 시대의 암석이 분포하여 매우 높은 지질다양성을 가진다. 연천군은 이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물론, 한국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한국전쟁의 주 격전지라는 수난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연천군의 무수한 유적지와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기 위해 연천군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와 함께 임진, 한탄강 일대의 10여 개 지역을 선정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임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인증 과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연천군 백학면은 지난 10월, 국가보훈처의 핵심과제인 호국영웅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호국영웅정신계승마을 조성사업'의 1호 마을로 선정되었다. 호국영웅의 출생지, 전적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을 선발하여 마을 전체를 호국영웅 정신 계승 마을로 지정하고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자발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연천군의 한반도의 숨결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파견 예술인들이 있었다



연천군은 '임진, 한탄강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적벽, 주상절리에 대한 기초조사나 콘텐츠 R&D 활동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천군청에 파견된 문미희, 권재우 예술인은 연천군청의 이러한 고민을 예술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두 예술인은 아우라지 베개용암, 좌살바위, 차탄천 주상절리 등 임진, 한탄강 유역의 아름다운 지질 유적들을 직접 탐방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들을 짚어가며 이를 살릴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청에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연천군의 이미지를 살린 아트상품을 기획, 디자인하는 등 관광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두 예술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임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백학면주민자치위원회에 파견된 이종균, 김주용 예술인은 연천군 백학면이 품고 있는 격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백학면은 6.25 전쟁 내내 치열한 전투 끝에 사수한 수복지역이며, 박고지 전투에서 오염한 대위, 백삼택 소위 등의 호국영웅이 배출된 지역이다. 그리고 이 곳에는 조금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군마 '아침해(영문명 레플리스)'의 이야기이다. '아침해'는 한국 전쟁 시기에 미 해병에 입대하여 탄약과 포탄을 날랐던 군마로,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많은 훈장과 상을 받기도 하였다. 오래 전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추모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두 예술인은 백학면의 '아침해' 이야기에 주목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백학면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김주용 예술인은 '아침해' 이

야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야기의 영역을 노무대(서특공대)까지로 확장하였다. 백학면에는 노무대로 활동하셨던 참전 용사 분들이 살아계신데, 그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국내는 물론 연천군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하고 있는 6.25와 관련된 기록, 자료들까지 발견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이 자료는 백학면이 호국영웅정신계승마을 1호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종균 예술인은 백학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침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침해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아침해'의 이미지가 웅맹한, 다소 거창한(?) 느낌이었다면 이종균 예술인은 '아침해'를 한국적이고 친근한, 서민적인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이를 살릴 수 있는 동상을 기획하였다. 비록 여러 여건의 문제들이 겹쳐 본 기획대로 제작되지는 못했으나,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모습을 담은 '아침해' 동상을 완성하여 10월 말 새롭게 조성된 아침해 공원에 설치하였다. 이 동상은 '아침해'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캔을 함께 매달아 더욱 뜻 깊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연천군 일대에서 예술인들이 함께한 <연천프로젝트 '예술공원'>은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라는 씨앗이 예술과 접목되어 피어났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기관 명	이야기너머
프로젝트 명	이야기 & 인물도감 in 명학시장
파견 예술인	전지은(미술)
프로젝트 소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이야기너머에 파견된 전지은 작가는 35년 여 세월을 담고 있는 안양의 '명학시장'에 매주 찾아가 그 곳의 상인들을 관찰, 인터뷰, 드로잉하여 인물도감을 만들고, 시장의 풍경을 그리면서 '공간'을 기록 해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지은 작가와 이야기너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삶의 터전, 익숙한 공간을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고자 했다.

## 그림으로 그려낸 익숙한 곳의 아름다움

예술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또 다르게 변화시켜 준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안양에 위치한 '명학시장'.

시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이곳은 35년여의 시간을 방앗간, 부동산, 꽃집, 정육점들과 주거지역이 함께 함께 해온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세련된', '멋진' 이라는 수식어보다는 누추하지만 삶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치열한 이곳이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곳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이곳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조용히 견디며 살아오고 있었다.

근처에 위치한 파견기관인 '이야기너머'는 이러한 명학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래된 이야기를 가진 의미로서의 공간에 관한 기록 작업을 하기를 원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시장에 녹아들었던 전지은 작가와 이야기너머의 담당자 이미술씨를 만나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궁금하다.

**전지은**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안양에 살면서 골목골목을 다녔다. 그러다보니 명학시장이라는 곳에 애정이 생겼다.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하는 분들이 일명, '느낌 있는' 곳을 보면 촬영장소로 찍찍어두듯,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곳 명학시장은 딱 보면 혹하는 분위기를 가진 곳이다. 그래서, 명학시장에서 인물도감도 만들고, 시장의 풍경을 그리면서 기록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다.

### Q. 그것이 참여기관인 '이야기너머'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작업인지 궁금하다.

**이미술** 우리 '이야기너머'는 만화, 구술사 등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판하고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전지은 작가님의 시선에 관심이 갔고 그렇게 명학시장을 함께 기록해보기로 한 것이다.

### Q.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전지은** 시장에 대해 저마다의 기억이란 것이 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시장에 대해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 나를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다. 그림으로.

### Q. 상인분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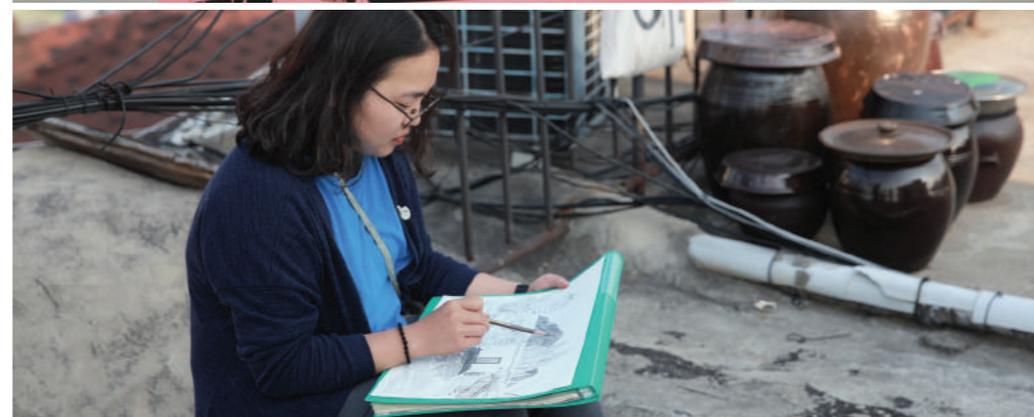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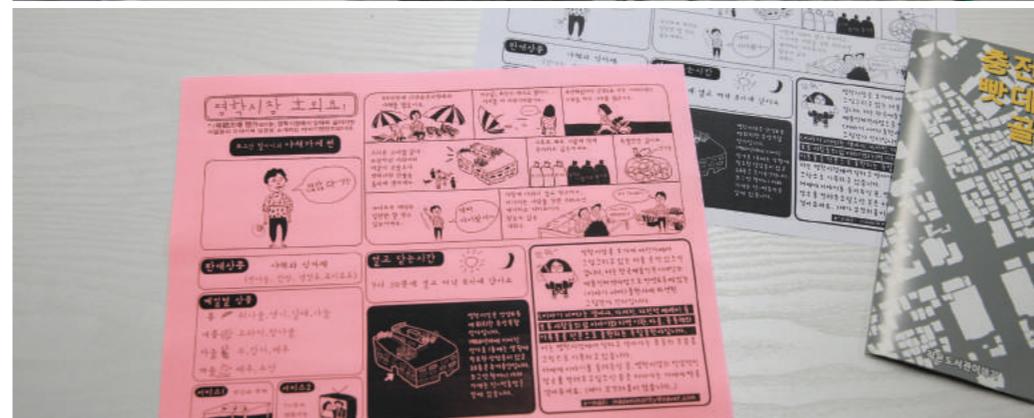
**전지은** 아마 나는 상인분들에게 경계 대상이었을 것이다. 파견지원 사업에서 '파'자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셨다. 당연하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이 기웃거리는 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하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등장하는 나에게 대한 시선도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하게 되더라.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 그 과정에서 명학시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몰랐던 장소도 조금씩 발견해나가는 재미도 느꼈다. 그런 시장 안의 관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작업을 한 것 같다. 어떤 아저씨는 '말 걸지 마라'라며 저리가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인사도 하게 되고. 말은 이래도, 당시에는 정말 심적으러다가 아주, 힘들었다. (웃음)

### Q. 그것이 참여기관인 '이야기너머'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작업인지 궁금하다.

**이미술** 명학시장이라는 공간은 35년여 세월이 흐른 곳이다. 건물의 형태도 요즘의 것들과는 아주 다른, 재미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건축가분들이나 다른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기관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아마 전작가님의 프로젝트는 '너무 오래 있어서 당연했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이 없던 소중하고 오래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지은** 일단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했던 것 같다. 명학시장의 드라마를 담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상인분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맺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제대로,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드로잉으로 담을 수 있었다.

**전지은** 작가는 상인들의 일터이자 살아가는 공간인 명학시장을, 그림을 통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명학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직접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던, 너무나 익숙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던 공간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전지은 작가는 이런 드라마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



# 시장 안의 '예술 골목'

<b>기관 명</b>	석수유통
<b>프로젝트 명</b>	석수아트북북
<b>파견 예술인</b>	허은영(미술), 이지영(미술), 안정민(영화)
<b>프로젝트 소개</b>	시장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석수시장에서 세 명의 예술인이 '석수아트북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장 내 '예술 골목'을 지정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페인트 도색작업, 자투리 나무판을 활용한 오브제-장식을 제작, 돌출간판과 명패, 시장 내 가게들의 정보를 담은 지도 형태의 '석수시장 둘러보기' 설치물 등을 제작하였고, 석수시장 홍보를 위해 시장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석수시장은 채소도매시장으로 출발해서 40년째 석수동을 지키는 전통시장이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으나 어느 대형 재래시장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난 2002년 경기도 최초의 대안공간 '스톤앤워터'를 열었다. **"생활 속의 예술"**을 모토로 낚고 빈 점포들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꾸준히 노력하던 석수 시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이에 허은영, 이지영, 안정민 세 명의 예술인이 파견되었다.

시장의 운영주체인 석수유통은 사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올해 처음 참여한 게 아니다. '스톤앤워터' 위창완 대표의 제안으로 작년에 이미 파견예술인 2명이 와서 축제 준비를 도와준 바 있다. 위 대표는 다시 한 번 시장 측에 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시장 측에서도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보자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마침 내부에서도 낡고 현 공간들을 싹 수리하고 빈 점포를 입주시키며 힘을 내던 분위기였다. 석수유통의 엄정희 부장은 처음 파견 사업에 대해 들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 막연히 그림 그리

는 분들이 오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파견예술인들이 찾아오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각각 설치, 사진, 영상 쪽 예술인들이라서 시장 측이 기대했던 예술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스러운 건 시장 측만이 아니었다. 파견되어 나온 허은영, 이지영, 안정민 세 예술인은 시장을 개선하는 등의 공공예술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협업 경험이 많은 안정민 예술인조차 상업 작품 경험 뿐이었다. 긴장도 되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상주하며 작업해왔다 길래 석수 시장에 대한 낭만적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반겨준 건 이미 낡고 떨어져가는 예술작품들과 관리 부재로 분위기 험한 통로들이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며 어색한 분위기에서 조금씩 시간만 흘렀다. (어쨌든) 현실적인 작업 과제는 잡히지 않은 채 이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역시 정답은 소통과 이해였다. 예술인들은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허은영 예술인과 이지영 예술인은 시장 안의 가장 공공적인 장소인 화장실 옆 통로를 단장하고 작품으로 채워 넣었다. 설치분야의 허은영 예술인은 시장이 자리 잡은 안양의 지도를 스케일 있게 그려서 입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사진분야의 이지영 예술인은 틈틈이 사진을 찍으며 상인들을 위해 가게

명패에 아기자기한 이미지들을 그려 넣었다. 영상 분야의 안정민 예술인은 작은 다큐멘터를 제작하였는데, 그 동안 전무했던 시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물이었다.

한편, 시장 측에서도 예술인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관리가 안 되어서 너저분하게 남아있던 점포나 물건들을 정리했고, 예술인들이 통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때는 시장 내 직원들까지 동원해 장비나 기타 물리적인 작업을 많이 보조했다. 석수유통의 김한복 부장은 그렇게 돕다 보니 시장 측에서도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 만족스러웠다고 말한다.

예술인들 역시 하나같이 적극적이었던 시장 측을 칭찬한다. 허은영 예술인은 미안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더 작업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안정민 예술인 역시 시장 측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며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준 데 고마워했다. 이지영 예술인은 일일이 만나 빈 상인들이 통명스러운 척 적극적이고, 관심을 무척 많이 주셨으며 웃었다. (상인분들이 도시남인 걸까?)

시장 측에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바뀌었다. 엄정희 부장은 처음에 예술인들이 작업을 할 때 환경개선 내지 관심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애기거리가 있는 시장, 작지만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김한복 부장은 예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더욱 많은 작가들이 와서 시장을 다양하게 채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인이든 예술인이든 결국 같은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더 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석수 시장과 파견예술인들은 힘을 합쳤고, 그 결과 외부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로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심을 얻게 되었다. ☺



**Q. '돈대'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데, 돈대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재단 관계자** '돈대'는 17-19세기 강화도의 해안을 따라 축조된 요새시설이다. 일종의 '초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화도에는 지역적 특색이 담긴 54개의 돈대가 있다. 우리 재단은 강화도에 위치한 돈대 등의 해양관광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과 함께 등재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54개의 돈대를 두 작가분들과 함께 답사, 촬영하고, 두 예술인 분들의 시각을 통해 돈대와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늘 역사 연구자의 시각으로만 접근을 해왔는데, 예술인의 시각에서 보면 더욱 새롭고 참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이상엽** 나는 재단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54개의 돈대를 찾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했다. 평소에도 역사와 관련된 작품활동을 해왔기에 역사를 여행하는 기본으로 즐겁게 작업했다.

**김남숙** 재단에서 돈대에 얽힌 전설이 포함된 스토리를 구축하기를 원하셔서 '삶의 이야기가 있는 돈대' 이미지를 살리는 작업을 했다. 돈대 뿐만 아니라 5진 7보 등 강화 내 문화유산을 탐방하면서 강화와 관련된 스토리를 구축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강화에 얽힌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가 많더라(웃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스토리 작가 모집에 응모하여 돈대와 강화도를 주제로 한 웹툰 스토리를 구상하기도 했다.

# 강화도의 문화유산, 돈대를 찾아서

약 40년간 고려의 임시수도, 수도 개경으로 통하는 수로의 중심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길목역할을 하던 강화도는 고려역사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고려왕조의 숨결을 품고 있는 강화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의 산물이자 연구지역이다. 이런 강화도에는 현재 우리의 역사에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주목한 문화유산은 '돈대'다. '돈대'는 쉽게 말해 성곽을 둘다 보면 보이는 돌을 원기둥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방어 구축시설이다. 인천의 강화도에서는 적의 침략과 화포를 막기 위해 쌓아 올린 것이다. 17~19세기 강화도의 해안을 따라 축조된 요새시설인 해양관광유적 '돈대'를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사업에 스토리 작가 김남숙 예술인과 사진가이자 르포 작가로 활동 중인 이상엽 예술인이 함께했다.

<b>기관 명</b>	강화고려역사재단
<b>프로젝트 명</b>	해양관광유적 돈대 프로젝트
<b>파견 예술인</b>	김남숙(문학), 이상엽(사진)
<b>프로젝트 소개</b>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해양관광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두 예술인이 파견되어 재단 연구원과 함께 54개의 돈대를 탐방한 후 이상엽 작가는 이를 사진으로, 김남숙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5진 7보 등 강화도 전반의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작업과 '돈대'를 소재로 한 웹툰 스토리를 쓰기도 했다

○○○○●

**Q. 54개나 되는 돈대를 전부 돌아다니는 게 쉽지  
는 않았을 듯 하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이상엽**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컸다. 54개 돈대는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길 없는 숲에 위치한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사업 활동기간의 대부분이 여름이라 더위와 비, 모기와 싸워야 했다. 한여름에는 낮에 작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어렵사리 찾은 돈대가 망실되거나 사유지로 취재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돈대가 위치한 곳의 대부분을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연구원들이 나와 비슷한 성향이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었고, 길도 없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돈대를 찾아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김남숙** 낯선 해양관방유적을 홍보하는 것이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도까지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한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 더 컸다.

**Q. 이번 프로젝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재단 관계자** 6월부터 10월까지 몹시 더운 날씨와 소나기, 미세먼지와 안개와 황사가 눈과 목을 아프게 해도, 길 없는 숲을 헤매면서, 모기와 가시에 시달려가며 돈대 유적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면서 돈대에 대한 애정을 더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성과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돈대를 찾아 다니면서 돈대와 의미 있는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러한 작은 노력이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관심사와 호흡이 아주 잘 맞았던 두

예술인과의 협업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속하여 성과물을 내고 싶은 마음이다.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인문학 연구자의 연구결과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서도 시민사회에서 향유되기를 바란다.

**이상엽** 평소 작업하던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전문연구자와 5개월이 넘게 공동으로 목표를 추구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돈대'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느꼈다. 오랫동안 기록, 보존되어야 할 작업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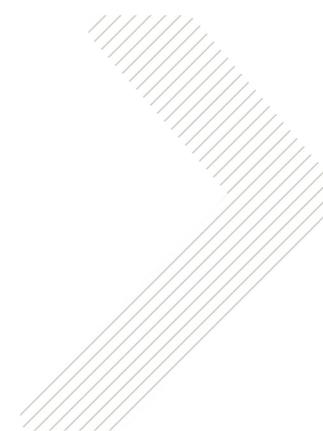
**김남숙** 이번 사업을 통해 웹툰에 '돈대'가 들어간 스토리를 쓰기도 하면서 다시 한 번 유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사업기간 내에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다양한 역사적 지식과 함께 강화도의 해양관방유적을 쉽게 대중들과 나눌 수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가 의미가 깊었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돈대'를 대중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더 뜻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은 재능기부이자 재능성장의 기회였던 것 같다. 예술인 복지재단과 강화역사문화재단, 그리고 이상엽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



Part 2-9  
**공동체 문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가리봉재생사업단  
서곡생태마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  
협동조합





**남은 것은 라디오 방송 두 편?**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김모은, 유승욱 작가는 6개월 동안 두 편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1회는 30분, 2회는 60분이었으니 총 90분 분량이다. 결과물만 보면 초라하다. 6개월 동안 90분 분량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든 셈이니 이틀에 1분을 제작한 꼴이다. 자세한 이야기 이전에 유승욱 작가의 말을 들어보자.

“나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완행열차’였던 것 같다.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직업 특성상 언제나 ‘프로’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맡은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 작업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프로’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과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행열차를 타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완행열차를 타면서 붙잡을 수 있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더욱 가치를 둘 수 있게 된 것 같다.”



김모은, 유승욱 작가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안산 일동 주민들을 싣고 6개월간 달려온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 완행열차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하자.

**라디오,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되다.**

라디오는 전통적인 일 방향 매스미디어이다. 하지만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는 달랐다. 먼저 바쁜 지역 주민들이 스튜디오에 찾아 올수 없었기에, 대부분의 인터뷰는 주민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했다. 작가들은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장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늘 여분의 장비까지 챙겨 다니는 꼼꼼함을 보였다. 또 녹음 후에는 편집과 믹싱이 끝난 오디오 파일을 들고 다시 인터뷰에 임한 주인공을 찾아갔다. 자신의 목소리와 답변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수차례 재녹음을 진행했다. 라디오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우리동네

#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 프로젝트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김모은(연극), 유승욱(음악)

●○○○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지역주민, 상록구 일동 동장님, 만나떡집 사장님, 무지개 마트 사장님의 인터뷰가 만들어지고 마을 주민을 위한 콘텐츠가 되었다.

방송의 완성도를 위한 두 작가의 욕심도 남달랐다. 아이들의 노래 솜씨를 보여주는 코너는 사실 녹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반주로 진행되었다. 이 녹음 파일에서 생활 소음을 하나씩 삭제하고, 그것도 성에차지 않아 친분이 있는 뮤지션들을 불러 반주를 녹음해 입혔다. 그래서일까?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를 들어본 MBC싱글빙글쇼의 양시영 PD는 '마을 방송이라고 믿기 어려운 기술적 완성도가 인상적이었고, 진행자의 생기가 듣는 이에게 잘 전달되는 기본 좋은 방송'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라디오, 마을의 미디어가 되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안산지역 최초의 마을공동체 라디오였다. 오지랖 넓은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술가들을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2회 부터는 마을 주민 두 명이 공동 진행자로 합세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이자,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인 주민 분들의 참여는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를 진정한 지역 미디어로 만들어준 동시, 사업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실제로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11월 말 기준으로 곧 업로드 될 3화의 후반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우리동네 일동 라디오> 2화는 때마침 개업을 앞둔 <마을 카페 마실> 특집 편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를 일구어낸 상록구 일동 마을공동체는 이제 오프라인 사랑방과 온라인 사랑방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유튜브(www.youtube.com) 검색창에 우리동네일동라디오를 입력하시면 직접 방송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공동체 문화**

지역의 욕구를 읽어내는 것과, 그것에 맞는 방법을 상상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는 것에는 각각 다른 시각과 역량이 필요하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삶의 문화를 지닌 주민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공동의 문제를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공유하게 된다. 문화를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지닌 그룹은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경험과 역량이 유사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예술가의 개입은 단순히 새로운 예술적 역량을 공동체에 더해 줄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유사한 문제해결 사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나갈 것이다. ◎



○○●○

**예술가나 함께하는 가리봉  
도 '심(心)' 재생**

<b>기관 명</b>	가리봉 재생 사업단 / 구로마을넷
<b>프로젝트 명</b>	구로미로 가시방석 / 구로미로 청소년 문화예술단 / 가리봉골목 프로젝트
<b>파견 예술인</b>	박경희(문학), 박시영(문학), 성선모(사진), 최해철(영화), 강희만(연극), 박흥태(음악), 박경희(문학), 이선희(미술), 천재강(문학), 전가빈(미술)
<b>프로젝트 소개</b>	지난 10여년 간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가리봉과 가리봉이 위치한 구로구 일대에 총 9명의 예술인이 파견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낙후된 골목 및 지역 개선을 위한 미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스토리 콘텐츠 개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주민 간의 소통 촉진 등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이었다.



서울시 서남단에 위치한 구로구, 그 곳에 위치한 가리봉동은 2003년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10여 년간 멈춰있던 지역이다. 건물 보수,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주거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들은 낙후되었고, 조선족 동포들의 주거 집단정착지가 형성됨에 따라 내국인과의 문화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치안도 불안정했다. 정체된 가리봉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는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철거형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 재생을 통해 가리봉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멈춰있던 가리봉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10년, 강산도 변할 시간 동안 멈춰있던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공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방'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구문화 간, 내·외국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데면데면했다. 희색 빛으로 가라앉아있던 가리봉동, 그리고 가리봉동이 위치한 구로구에 어느 날 예술인들이 '예술'로 말을 걸어왔다. 그것도 아홉 명이나. 예술 분야도, 연령대도, 성격도 다양한 9명의 예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9명의 예술인이 각자 뿔어낸 색들은 구로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2개의 기관에 파견된 9명의 예술인은 3개의 프로젝트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협업의 형태로 진행했고,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했다.

도시의 중심은 주민이다. 주민들을 먼저 만나보자,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주민들과 만나고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 가리봉의 '소통방'을 시작점으로 잡았다. 무엇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까.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은 '미싱가루(미숫가루)'였다. 구로공



단의 미스들이 돌렸던 미싱의 기억을 닮은 미싱가루, '소통방'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시원한 미싱가루를 건네며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곳에서 일어난 예술인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낯설어서일까, 처음에는 외면했다. 잡상인이나 종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매주 찾아오는 예술인들의 살가움과 미싱가루의 달콤함은 이내 가리봉 속으로 스며들었다. 너도나도 가리봉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추

억을 예술인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모여든 주민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모여드는 주민들을 위해 '소통방'도 예쁘게 꾸며 보기로 했다. 음악도 틀고, 그늘이 많아 어둡고 눈에 잘 띄지 않던 '소통방'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렸다. <꿈꾸는 가리봉>이라는 타이틀로 문학 콘서트도 진행했다. 조용하고 삭막하던 소통방이 문화예술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졌다. '소통방'이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 되는 순간이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해 진 후, 9명의 예술인은 본격적으로 구로구, 그리고 가리봉에 예술의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구로 청소년 문화예술팀 양성을 위한 <구로미로 청소년 문화예술단>은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러스트, 음악 수업 등을 진행했고, 구로의 이야기, 그리고 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구로 매거진>을 만드는 작업을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했다. 팟캐스트 <시끌시끌>은 구로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로지역 청소년들의 시를 담아 널리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소통방'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꿈꾸는 가리봉>은 구로마을넷 '다문화 한마당' 행사에서도 진행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화예술로 물든 아름다운 가리봉 골목을 위해 예쁜 편백나무 문패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스토리로 담고,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구로지역에 파견된 9명의 예술인은 문화예술을 통해 멈춰있는 것에 익숙해있던 주민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고, 소통으로 활짝 필 작은 씨앗이 되었다. 도시재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심(♻️) 재생을 꿈꾸는 가리봉과 구로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된다. ☉

기관 명	서곡생태마을
프로젝트 명	용수골 작은음악축제 콘텐츠 개발
파견 예술인	황은후(연극), 이성순(국악), 고진하(문학)
프로젝트 소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마을 서곡리의 지역 축제인 '용수골 작은음악축제'의 축제 콘텐츠 다각화를 위해 작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술인들이 파견되었다. '선주민과 후주민의 화합'을 목표로 하는 이번 축제를 위해 2개월 간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민사진전',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마을 노래를 만드는 '수다소리 공방',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마을 문화유산인 '후리사 공소'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자료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예술로 하나되는 용수골 축제

강원도 원주시 근교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 서곡리. 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기획을 펼치는 사단법인 서곡생태마을이 재미난 이벤트를 기획했다.

연례로 진행되는 이 행사의 이름은 '용수골 작은음악축제'로 올해 7회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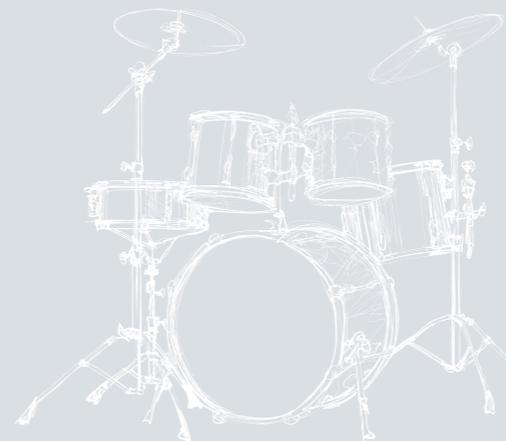
작년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서곡생태마을은 축제에 더욱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 다시 참여하게 됐다.

예술인들의 연이은 참여로 축제 콘텐츠의 다각화를 꾀한 서곡생태마을은 올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당초 행사 설립의 목적이었던 '선주민과 후주민의 화합'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 등의 문제로 도심에서 빠져나와 서곡리에 터전을 잡은 '후주민'들, 그리고 기존 서곡리 토박이인 '선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곡리에 파견된 3인의 예술인이 있었다.



**Q. 이번이 두 번째 사업 참여다. 올해는 더욱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었나?**  
**박설희** 우선 두 번째 참여로 우리 기관 측에서 목 표한 바는 분명했다. 주된 프로젝트인 '용수골 작 은음악축제'가 단순한 마을잔치에서 그치지 않고 '화합의 장', 또는 진정한 축제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외부 예술인의 투입은 신선한 접근을

가능케함은 물론,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다행히 도 열정 넘치고 책임감 강한 예술가들께서 와주셔 서 우리가 바라온 지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가들의 적극적 인 자세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됐다. 기관 측에서는 새로운 분위기 덕



에 더욱 알찬 기획력이 확보됐고, 마을 측면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됐다. 파견 예술인들이 불러온 새로운 분위기 덕에 ‘선주민’, ‘후주민’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황은후** 우선 내가 담당하게 된 프로그램은 음악축제 당일 축제 장소에서 열린 ‘주민사진전’이었다. 고진하 선생님과 함께 약 2개월 간 마을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을 사진으로 담으며 ‘용수골 작은음악 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했다. 그 결과물을 갖고 축제 당일 <서곡마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선주민들도 축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이야기가 축제에 포함된다면 자신들의 축제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출발했다. 총 40여 분의 주민들과 인터뷰 내용, 그리고 서곡마을의 옛 모습이 사진전에 담겼다.

**이성순**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수다소리 공방’이다.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참여해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같이 재활용 재료로 연주곡을 만들고, ‘마을 노래’를 만들어 축제에서 활용했다. 모두가 ‘용수골 작은음악축제’를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마을의 노래를 만든다면 그것이 화합의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 참여그룹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믿게 됐다.

**고진하** 황은후 예술인과 함께 진행한 사진전과 더불어 지역교육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인 <길배우터>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했다. 또

마을의 문화유산인 ‘후리사 공소’를 화합과 상생의 상징으로 보고 조사연구하여 자료로 남기는 일도 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황은후 예술인, 이성순 예술인과 함께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리라 생각한다.

**Q.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가님께서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한 점도 있는가?**

**황은후**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에 대한 시야가 이전보다 넓어졌다. 또 연기를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문화예술 기획에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성순**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나아가 그 분들처럼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지금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노년기에 시골로 내려와 마을공동체에 도움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번 경험이 좋은 기반을 다져준 것 같다 기쁘다.

**고진하** 변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 태도를 배운 것이다.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만남을 경험하며 느낀 점은, 예술가가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해내려면 낮은 자세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Q.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다. 네 분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무엇이었나? 혹은 예술인의 사회 활동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박설희** 예술인이 사회 활동은 우리의 삶,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사는 지역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특정 기관 혹은 기업에 선사해주는 것은 지역민 또는 소비자를 상대로 신뢰감,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이 아닐까.

**황은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마을을 선물해준 일이었다.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고, 나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 일이었다.

**이성순** 이번 경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기에 오히려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그래서 사업, 그리고 마을 속으로 더욱 더 깊게 파고 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전에 몰랐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또 기획자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접근하게 되면 주민들과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오히려 순수하게 예술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진정성이 생긴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어려모로 많은 도움이 됐다.

**고진하** 어찌 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에 다소 아쉽다.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술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함께 나누는 ‘이별’ 이야기

<b>기관 명</b>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b>프로젝트 명</b>	동물의 시간: 무지개 다이어리 북
<b>파견 예술인</b>	홍부용(영화)
<b>프로젝트 소개</b>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공동체를 표방하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홍부용 작가가 파견되어 조합원 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진행했다. <고마워 사랑해 모임>은 반려견의 죽음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함께 반려견을 위한 음악, 컬러 테라피 등의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는 모임으로 시작하였고, 홍부용 작가는 모임을 통해 모인 이야기와 참여 조합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모임 마지막 달에 다이어리 형태의 책 ‘무지개 다이어리 북’을 완성하였다.

동물 사랑한다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못 봤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말했는가? **“정의로운 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행동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번에 만날 이들은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일까? 사실, 정의라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따스한’ 사람이라는 게 맞겠지. 따스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조합원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위해 행복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과 파견예술인 홍부용 작가의 이야기다.

지루하디 지루한 ‘웰빙’도 이젠 사전 속에 등장할 정도의 시간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 이름만 다른 것 같지만 요즘은 또 ‘웰-다잉’이라는 개념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웰-다잉은 어딘가 생소하다. 조합의 김현주 사무국장 이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반려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삶을 보내야 할지, 어떻게 떠나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해요.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죠.”** 분위기를 깨는 생각이었을까. 동물을 위한 <예술

인 파견지원>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 작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딱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 아차. 들킨 것 같다. **“~~우울~~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결국에는 그 따스함이 우리들에게로 돌아와요. 조합원들끼리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다보니 신뢰가 쌓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에 좀 더 자주 놀러 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친분이 생겨서 우리 조합의 문턱을 좀 더 낮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임이 이것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임의 시초가 되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소모임들이 그 이후로 생겨났거든요.”** 프로젝트, ‘고마워 사랑해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다. 하지만 이 모임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를 가지자는 게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홍부용 작가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맞아요. 상상만 해도 우울해지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의 죽음인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오죽할까요. 처음에는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런 모임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이별을 잘 할 줄 알아야, 사랑도 잘 할 줄 안다고 하던가?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들의 마지막을 차분하게 같이 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대하고 있자니 필자 역시 어렸을 적 함께 했던 '복실이'가 떠오른다.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주인에게 보내게 되어 울고불고 했던 때가 생각난다. "반려견이 잘 떠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다이어리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무지개 다이어리 북'이라는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책을 보니, 참 이 아이들(어느새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이 '주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란 생각이 든다. 이 책자의 취지에 따라, '예술인으로 하 여금 조합원들 간의 친목에 도움이 되는 모임을 기

획하여 조합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로 정리하고 싶지만,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고마워 사랑해 모임'의 그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서로와 진실하게 보냈던 사람과 동물의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따스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Part 2-10  
주민역량강화

관악주민연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당진시노인복지관  
강화풍물시장  
교하도서관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생소의 계단, 나도 예술해도 될까요?

관악주민연대

정영신(연극), 배민경(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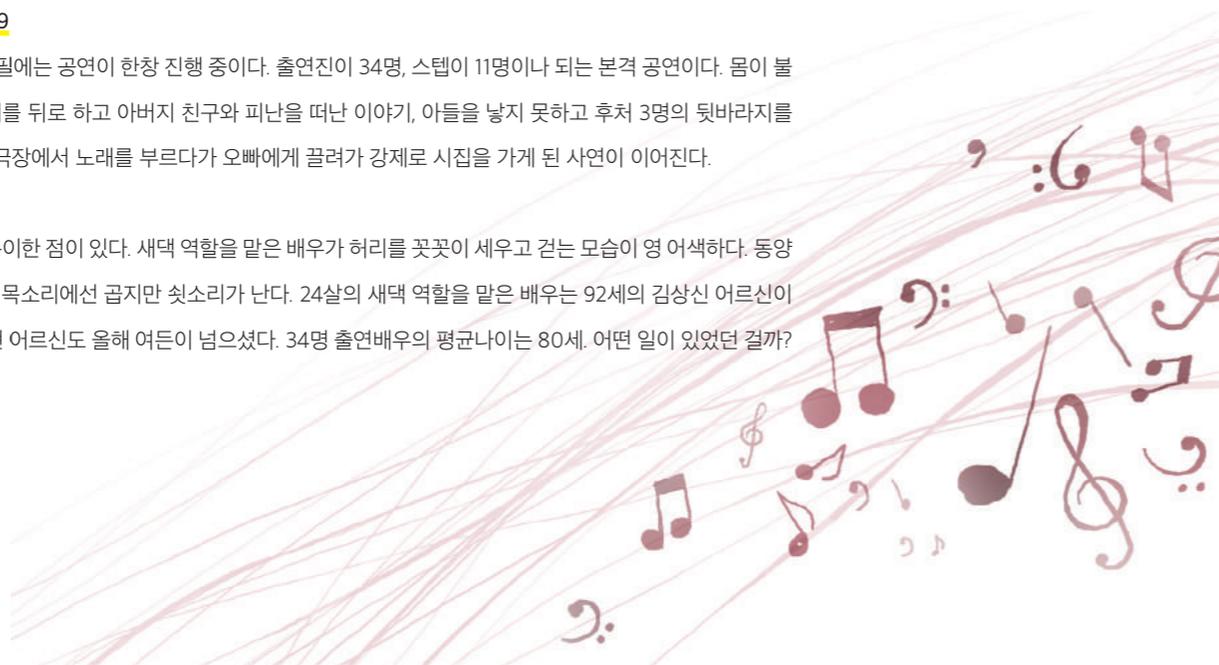




**연극 <생생의 계단> 2015.10.29**

관악구에 위치한 카페 오렌지연필에는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출연진이 34명, 스태프 11명이나 되는 본격 공연이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남기로 한 아버지를 뒤로 하고 아버지 친구와 피난을 떠난 이야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처 3명의 뒷바라지를 한 사연, 악극을 하고 싶어 동양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오빠에게 끌려가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된 사연이 이어진다.

자세히 보니 이 공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새댁 역할을 맡은 배우가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걷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 동양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에선 곱지만 쇠소리가 난다. 24살의 새댁 역할을 맡은 배우는 92세의 김상신 어르신이다. 동양극장 소녀를 맡은 우옥현 어르신도 올해 여든이 넘으셨다. 34명 출연배우의 평균나이는 80세.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인연의 시작 2015.03**

배우 정영신은 올해 61세의 연극인이다. 배우 정영신은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노인 분들과 함께하는 연극에 매진해왔다. 시니어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분들이 직접 출연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었다.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회의가 찾아왔다. 배우 정영신은 시니어 연극을 그만 두었다. 그냥 좀 쉬고 싶었다. 그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공연 연습시간을 피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특히 반가웠다. 배우 정영신은 다시 어르신들 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정은진 사무국장은 10년째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주민들과 지역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늘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곤 하지만 뭔가 더 정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어르신들이 주인이 되는 활동을 가질 수 없을까하는 고민을 계속해왔다. 그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고재욱 퍼실리테이터에게 연락이 왔다. 예산 때문에 꿈도 못 꾸던 지속적인 예술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다.

**계단의 첫 칸 2015.08**

미술작가 배민경은 오늘도 우성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실을 찾았다. 배민경 작가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지도 3달이 지났다. 3달 동안 정영신 작가와 함께 관악지역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돌며 연극적 몸쓰기와 미술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과 진행해왔다. 어린 시절 함께 살면서도 진심어린 소통을 해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떠올랐다. 어르신들의 열정이 점점 커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2곳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4곳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10월 29일에 어르신들이 직접 연극 무대에 서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극 <생선의 계단> 공연 12시간 전**

정영신, 배민경 작가의 무대 준비는 새벽 4시가 넘어야 끝났다. 배민경 작가가 제작한 공연 포스터를 보고 지역 주민 130명이 공연 제작비를 후원했다. 떡과 치킨 같은 지역 업체들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어제 공연장 총연습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이제 계속 못 만나는 거야? 어떻게... 보고 싶을 텐데, 눈물이 날 것 같아' 하시며 못내 아쉬워 하시던 모습이 맘에 남는다. 12시간 후면 이곳에서 평균나이 80살인 34명의 배우가 데뷔무대를 장식할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작년과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였다. 이는 후발주자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예술지원 제도의 두 축, "문화예술교육지원과 창작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업영역의 고민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정형성으로 굳어버리고, 건조해진 예술인들의 작가적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들과 구분되는 지점들이 선명해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 대상은 최종 수혜자인 반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의 활동이다. 따라서 수혜자의 규모, 교육시수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생선의 계단>프로젝트 또한 처음부터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많은 수의 참여자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34명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완주하며 공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없는 많은 현장에서 소수의 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구조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면,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주는 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예술로 풀어내는 '마음속 이야기'**

<b>기관 명</b>	서초구립반포도서관
<b>프로젝트 명</b>	마음놀이터
<b>파견 예술인</b>	안윤정(만화), 안희연(문학)
<b>프로젝트 소개</b>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의 프로젝트 '마음 놀이터'는 가족 간, 그리고 도서관 방문객 간의 소통과 예술을 통한 성장 및 치유를 목표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려 가족 만화책을 완성하는 '가족 만화책 만들기'와 좋은 시와 산문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 공방 '다독다독 다방'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조금 진부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어떡하나. 가을은 누가 뭐래도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10월 24일 서울광장에서는 <서울 북 페스티벌>이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서울 북 페스티벌>은 단순한 책 판매 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교육청, 출판사들이 참여해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가치 지향적 축제. 안윤정 예술인과 안희연 예술인이 파견 활동을 진행한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이하 반포도서관)도 이번 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도서관에서 구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안윤정 작가의 '가족 만화책 만들기'와 안희연 작가의 '다독다독 다방' 워크숍을 선보였다. 북 페스티벌 당시 프로그램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참여자가 적을 것 같았던 두 작가의 걱정과 달리 워크숍이 열리자마자 인원이 꽉 찼고, 북적거리는 페스티벌 현장에서 유쾌한 그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작가 모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들의 권유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반포도서관에 파견되었다. 두 작가는 반포도서관에서 각자의 분야를 살려 만화분야의 안윤정 작가는 '가족 만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2012년에 단한 안희연 작가는 '다독다독 다방'이라는 시 공방을 열었다.

안윤정 작가의 '가족 만화책 만들기'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완성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만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 안윤정 작가는 아이의 그림을 보면 가정환경이나 집안의 형태, 부모님의 역할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아이들이 만들어낸 캐릭터와 이야기는 근처에서 보고 느끼는 것, 가장 가깝게는 엄마를 보고 느끼는 것인 것이다. 실제로도 아이들의 그림이나 이야기, 캐릭터를 보면 아이가 가정에 대해서 보고 느낀 이미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림이 가족의 소통을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안희연 작가의 '다독다독 다방'은 시 공방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와 산문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자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안희연 작가는 문학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파시키고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학이 성찰과 치유를 돕는 것이다. 처음 워크숍이 열렸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 안희연 작가는 "서초구민 분들이 놀라셨다. 시 관련 워크숍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여성분이어서 의아해하셨다."고 말했다.

'시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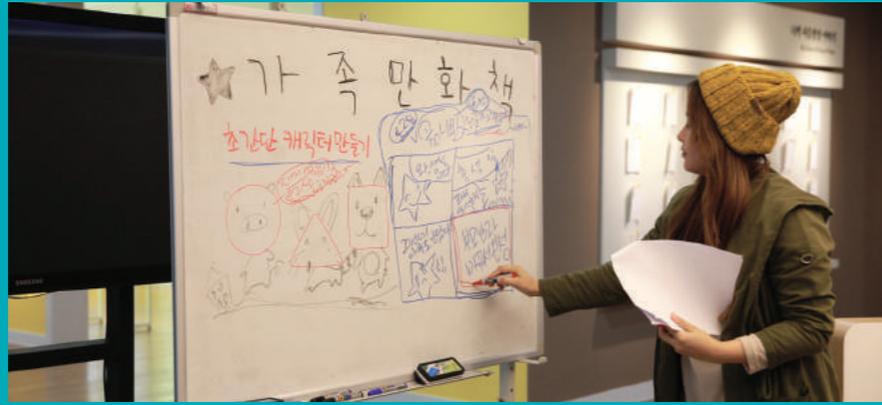
선으로 바라보셨다고 한다. 하지만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이내 안희연 작가를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르게 되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누어 주셨다고 한다.

안윤정 작가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화가 단순히 ‘그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간의 소통, 이야기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각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단순히 예술가에게 돈으로만 지원하는 형식이었다면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아요.”라며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느낀 점을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강좌가 아니라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았으며 이를 계기로 ‘만화가’라는 직업적으로 한 번 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안윤정 작가는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만화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재능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행한 프로그램을 본 또 다른 도서관에서 안윤정 작가에게 워크숍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사회 속에서 예술인의 새로운 재능의 발견이 정기적인 서브잡으로 이어진 좋은 예가 된 것이다.

“<다독다독 다방>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예요. 하지만 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기도 하세요.”라는 느낀 점을 전한 안희연 작가는 매일 골방에서 혼자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평소 아무런 연관이 없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을 만나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을 꼽았다. 이에 안희연

작가는 마지막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안윤정 작가를 만났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평생 함께 갈 좋은 동료를 얻은 것 같아요!”** ◎



세계는 물론,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은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져왔다. 기존의 ‘노인 복지’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면, 오늘날의 ‘노인 복지’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시노인복지관은 이러한 복지의 흐름에 맞춰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이 곳에 방문한 유소정 작가는 복지관에 노력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예술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연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근하는 예술가들’이라는 홍보를 보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됐다는 유소정 작가, 30대 초반인 그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에 선택 받을 것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듯 하다. 아니나 다를까, 유소정 작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당진시노인복지관을 1순위로 지원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어요(웃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라며 처음 방문하던 때를 회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과 어르신들의 열렬한

환영과 적극적인 태도에 유소정 작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적극적인 태도에 힘입은 유소정 작가는 먼저 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어르신 건강을 위한 칼로리 소비계단 디자인을 시작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시도록 계단 벽에 벽화 작업을 하는 것. 평소 한국화 작업을 해 온 유소정 작가는 한국 민화를 모티브로 모란, 새, 연화 등을 벽에 그려 넣었고, 복지관에 활력을 주기 위해 화사한 색 위주로 작업했다. 처음에는 혼자 작업을 시작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벽화 그리기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벽화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관의 바람대로, 벽화 덕분에 어르신들이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게 됐어요. 물론 주된 이유는 벽화를 구경하기 위해서지만, 벽화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림 그리는 동료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건네는 ‘수고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잘하네!’, ‘이거 보려고 계단으로 다녀요’ 같은 한 마디가 저는 물론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어깨를 ‘으쓱’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웃음).”** 어르신들은 벽화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까지



## 생활 속의 예술

기관명	당진시노인복지관
프로젝트명	어르신 예술체험을 통한 즐거움 향유하기
파견 예술인	유소정(미술)
프로젝트 소개	당진시노인복지관에 파견된 유소정 작가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복지관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관 계단 벽에 한국 민화를 모티브로 한 벽화를 어르신들과 함께 그려 넣었고, 어르신들이 직접 예술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 미술 공작소>를 운영하였다. 종이 아닌 천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소품을 만드는 수업이었다.



해 일석이조라며 웃음꽃을 피우시고, 기관 역시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고 기관 이미지도 높아졌다며 만족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유소정 작가는 벽화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두뇌활성화와 예술체험을 위해 공예작업과 그림활동을 하는 <어르신 미술 공작소>를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수업은 모란도, 민화도, 석류도 등 한국 민화를 배우고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종이가 아닌 곳에 그린다는 점이였다. **“어르신들께 종이 대신 천에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씀 드렸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중 재봉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천에 그림을 그리고, 그 천을 이용해서 부채나 쿠션, 예코백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소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거죠. 실생활에 유용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겠다면서 만족해하셨어요.”** 어르신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유소정 작가도 행복했다고.

유소정 작가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생활 속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술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어르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소정 작가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었던 모양이다.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소정 작가, 그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에 대한 애뜻함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 그렇기에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던 이번 기회가 더 뜻 깊었다고. **“처음 걱정과 달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그 분들과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고, 값진 경**

**험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멀게만 느껴졌던 노년층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노인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할까요(웃음). 어르신들에게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에게도 예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



## “제 2의 삶을 수필가로서”

기관 명	강화풍물시장
프로젝트 명	퐁썩썩 이야기
파견 예술인	장윤진(문학)
프로젝트 소개	장윤진 예술인은 강화풍물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하는 글쓰기 모임을 진행했다. 나만의 수필집 출간을 목표로 매주 인생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필을 쓰고, 모여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인 수필들은 수필집으로 완성되었고, 시장에 새로 열리는 '상인문고'에 비치되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해 시장 상인과 관광객들이 한데 모여 북적북적한 강화풍물시장. 말 그대로 '시장통'인 이 곳에 희곡 작가라니. 하루하루 장사하며 살기 바쁜 시장 상인들에게 예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긴 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오른다. 강화풍물시장을 찾은 장윤진 작가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이나 시를 써보고 싶어요, 라는 의견에 또 다른 의문이 따라온다. 장사하며 살기 바쁜 상인들께 글을 쓰자고 하면 과연 수긍해 주실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에 답해준 것은 한 상인의 비린내가 잔뜩 배어있는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살아온 이야기, 사는 이야기, 파는 이야기, 장사꾼으로서의 이야기 모두가 오롯이 담겨있었다. 그래, 우리 삶 그 자체가 예술이다. 당신들의 삶 그 자체를 예술의 무대 위로 올려보자. 장윤진

작가의 프로젝트 '퐁썩썩 이야기 - 두근두근 내 인생'은 시장 상인들을 찾아 다니며 당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글을 수집하고, 매주 한 번씩 모여 각자 쓴 글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글쓰기 모임이다. '제 2의 삶을 수필가로서..'라는 꿈을 품고 시작한 이 모임의 최종 목표는 개인 수필집 출간이었다.

모임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기에 손님이 오거나 일이 많으면 모임에 불참하기 일쑤였고 귀한 시간을 내어 모임에 참여해도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잦았다. 글을 쓰는 것이 '거창한 일'로 느껴졌기 때문일까, '내 최초의 기억', '사랑과 결혼', '중년의 위기' 등의 주제에 대해서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았다. 한 문장이 다섯 줄이 넘어가거나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단어의 나열로 이루어진 글들도 있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매주 서둘러나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당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고, 장윤진 작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매주 시장에 방문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마음을 헤아려갔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났다. 처음에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웠던 은하수 상회 사장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시장 공동체 방송 '퐁썩썩 이야기'에 사연으로 나왔다고 기뻐하였고, 정기 간행물 '좋은 생각'에 당신의 글을 응모하고 '자꾸 글에 욕심이 난다며 웃었다. 한 문장이 다섯 줄을 넘어가던 고려상회 사장님은 주제를 내드리면 일주일 만에 글 하나를 푹푹 써내려 갈 정도로 글쓰기에 빠져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글이 너무 길어지기 일쑤였던 풀내음 약초 사장님은 지난 10월 17일 진행된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참가하여 글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글을 어

떻게 쓰는 거냐고 앓는 소리를 하시던 분들이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거침이 없어졌고, 서글프고 고생스러운 인생 이야기만 풀어내시던 어머님들이 점차 밝고 유쾌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멀게만 느껴졌던 글쓰기는 이제 상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었다. 수필집 출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총 다섯 권의 개인 수필집과 한 권의 합본으로 완성되었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은 11월부터 시장 공간 한 쪽에 자리잡게 될 상인문고의 제일 첫 칸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상인들의 소소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는 장윤진 작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장윤진 작가는 '내 글을 쓰는 것에만 집중하여 내 안의 세계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 분야도 삶으로 뛰어 들어야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장윤진 작가가 상인들에게 '수필가로서의 첫 걸음'을 선물했다면 상인들은 '사회로 나아가는 예술가의 첫 걸음'을 선물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시장 상인들과 장윤진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b>기관 명</b>	교하도서관
<b>프로젝트 명</b>	안녕 예술정거장
<b>파견 예술인</b>	신은정(연극), 이종훈(연극), 김은하(문학)
<b>프로젝트 소개</b>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하는 교하도서관에 파견된 세 명의 예술인은 신문을 활용한 어린이 상상력 증진 워크숍 <신문아, 상상력을 부탁해!>, 주민 및 도서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기 지도 연출 프로그램 <연극 '이웃집 쌀통'>, '도서관의 서재'라는 도서관 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교하랑 이야기해요>를 진행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나누었다.

## '안녕 예술정거장'에서 만나요!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의 교하도서관에서는 7주년 개관행사인 <동네 사람들, 도서관에서 꿈꾸다>를 진행했다. 올해 '함께하기', '세대공감', '지역 연계'를 테마로 활동한 도서관의 한 해를 돌아보고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이 되는 행사였다.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사업에 참여한 교하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하도서관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작년에 이어 또 어떤 '도서관 속 예술'을 보여주었을까



### <신문아, 상상력을 부탁해>

도서관에 비치된 수 많은 신문들,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신문들이 신문 코너를 방문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신문코너를 찾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사만을 편하게 골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불편한' 신문이 인기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다. 그 이용 빈도는 날이 갈수록, 세대가 어려질수록 낮아져 아이들에게는 신문이 '원시시대'의 물건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모양이다. 교하도서관의 신은정 예술인은 정기간행물 코너의 이용률을 높이고, 신문과 멀어져가는 아이들이 신문, 뉴스와 친해질 수 있도록 신문을 이용한 상상력 증진 워크숍 <신문아, 상상력을 부탁해!>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신문에 실린 다양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보거나, 직접 앵커나 기자가 되어 신문 속의 뉴스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신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3차 워크숍으로 진행되었고, 어린이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또한 <신문아, 상상력을 부탁해!>를 진행한 신은정 예술인은 자신을 '선생님'이 아닌 '캡틴'이라고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아이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캡틴'이 함께 하였기에 아이들이 신문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 연극 <이웃집 쌀통>

이종훈 예술인은 교하도서관 7주년 개관 행사의 기념 공연으로 진행된 연극 '이웃집 쌀통'을 위한 연기 지도 연출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이웃집 쌀통'은 신춘문예 당선 희곡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일상의 공포를 무겁게 그리기 보다는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코미디로 그려낸 작품이다. 동네 골목길이 배경이 되는 이번 연극을 위해 동네 주민들은 물론 도서관 관계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을 진행하여 총 5명의 배우들을 선발하였고, 이들은 파견기간 동안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은 약 2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극을 통해 행사에 방문한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이번 연극은 참여한 배우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만든 공연이었다는 점이 뜻 깊은 부분이다. 무대 배경 사진은 동네 출판사에서, 연극 소품으로 사용된 쌀은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소중한 쌀이었으며, 영화소품제작사에서 교하도서관의 일이라며 무료로 소품을 제작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연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아니었을까.

### <교하랑 이야기해요>

교하도서관은 '도서관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지만 바빠서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 매달 30권 이상의 책을 단체 대출하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서관 확장 프로그램이다. 지역과 함께, 더 넓은 도서관을 가지는 교하도서관의 '도서관의 서재'를 이야기로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김하은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하 동화작가의 이야기이다. 김은하 작가는 도서관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상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기 위해 노력했다. 상인들이 어색하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하랑'이라는 인형도 만들었다. 커피집, 경로당, 한의원, 꽃가게 등 다양한 가게 종류만큼이나 각 가게에 비치된 책의 종류도,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다양했다. 김은하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동화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짧은 동화로 각색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거절한 곳도 있었고, 활동 도중 폐업한 곳도 있어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등의 난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서재 곳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듬뿍 담긴 이야기로 완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소책자로 완성되어 7주년 개관 행사에서 전시, 무료배포되었다. 지역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다. ◎



<b>기관 명</b>	남양주희망케어센터(남부)
<b>프로젝트 명</b>	희망성장프로젝트15'
<b>파견 예술인</b>	이세경(미술)
<b>프로젝트 소개</b>	남양주희망케어센터에 파견된 이세경 작가는 가정 환경으로 미술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성장프로젝트15'>를 진행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미술활동을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흥미와 미적감각, 재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예술을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 예술은 사치다?



가난하지만 예술가의 꿈을 꾸는 한 청년을 떠올려보자. 이 청년은 예술가가 되고자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의 부모

님은 반대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갈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술은 사치야.”**

흔한 클리셰다. 머리 속에서 이런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생된다. 그만큼 우리에게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예술은 사치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 삶에 늘 존재하고 있는 존재, 각박하고 메마른 삶일수록 더욱 필요한 비타민 같은 존재다. 남양주희망케어센터(이하 ‘희망케어센터’)에 파견된 이세경 작가는 이처럼 미술 자체를 일종의 사치로 생각하는 남양주 소외 계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아닌 놀이와 경험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는 <희망성장프로젝트15'>를 진행했다.

**Q. <희망성장프로젝트15'>는 단순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리가 놓친 다른 프로그램 취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세경 작가** <희망성장프로젝트15'>는 미술에 관심과 소질, 재능은 많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술을 접할 기회도 적고, 제대로 된 미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희망케어센터 아이들과 함께 캐릭터 만들기, 문자도 그리기, 데칼코마니, 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함께 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적감각과 창의력, 실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외에도 기관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외부 미술관 및 공연장으로 현장 탐방을 가기도 했다. 물론, 주된 활동이 ‘미술 교육’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젝트의 목표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좁게는 아이들이 미술을 접하고, 미술로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고, 넓게는 미술을 일종의 ‘사치’로 생각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현대미술을 통한 소통이 일상의 자유로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다.

**Q. 단순한 교육이 아닌 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 부분이 있을 듯 한데.**

**이세경 작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케어센터 측에서 앞으로 진행될 6개월 간의 계획표를 미리 요구하셨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기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흥미 위주, 그리고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고, 미술을 처음 배워보는 아이들에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이다. 다행히 희망케어센터 측에서도 이런 취지를 이해해주셨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셨다. 그 밖에도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의 심리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미술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도덕성과 타인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다. 미술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미적 감각과 재능을 키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Q. 처음 계획한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 시민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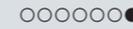
**게도 전달이 되었나?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이세경 작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 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가지고 희망케어센터의 한 공간에서 작은 전시를 오픈 하였다.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역할을,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기관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 막연하게 미술을 통한 교육을 생각하시던 분들이 현대 미술을 통한 소통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무척 만족해하셨다. 이 프로그램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남양주에서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현재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안이 안건 중이다.

**Q. 뜻 깊은 프로젝트였던 만큼 작가님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한 점이 있을 듯 하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남긴다면?**

**이세경 작가** 사실 지금까지 작가로 살아오면서 작업실에 박혀 개인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딪쳐보니 아이들만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아이들을 통해 배운 점이 많다. 작은 부분이지만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써 사회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뿌듯했다. 예술은 ‘사치’가 아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분야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따라서 예술인들은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예술인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고, 그 예술인들은 예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b>기관 명</b>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b>프로젝트 명</b>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
<b>파견 예술인</b>	김현정(국악), 박소윤(연극), 홍재욱(연극)
<b>프로젝트 소개</b>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원예술활동을 통해 자신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음악, 미술, 요리, 몸짓 활동 등 매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했고, 참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과 학생들이 함께 한 과정은 관객들과 함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전체를 돌며 진행되는 ‘아트투어’ 형식의 공연으로 선보여졌다.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세 단어 모두 예술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호랑이와 고양이 분장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인가? 귀여운 상상이지만 예술인들이 진행할 프로젝트는 아닌 듯 하다.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에 어떠한 ‘예술’이 숨어있는지, 참여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호랑이와 고양이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함께 어울려 노는 동물은 아니에요. 이렇듯 비슷하지만 다른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도 서로 다르다고 너무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만난 적 없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개성 강한 친구들과, 낯선 공간 복지관에서 예술을 통해 서로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처음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김현정 예술인이 말한다. 왜 ‘예술시간’이 아닌 ‘요리시간’이 붙었느냐 물으니, 참여 학생 중 한 명이 이 시간을 ‘요리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착안했다.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 전환기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나래대학에서 세 명의 예술인들이 진행한 일종의 다원예술체험 프로그

램이다.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음악, 요리, 몸짓 활동, 그림과 공작 등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매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했고, 예술을 가르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가령 음악 워크샵 시간에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내고 그 소리를 모아 음악을 만들고, 몸짓 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하는 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법사가 되어 꿈을 이루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마법사 모자를 쓰고 함께 ‘소원나무’를 그리면서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알아보고,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을 통해 그 꿈을 이루는 시간을 선물하기로 한 것. 이마트 인형판매원이 되고 싶다는 학생에게는 다 함께 인형극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만드는 시간을 선물했다. 경찰이 꿈인 학생을 위해서 직접

경찰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과학자가 꿈이지만 사실 노래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학생은 간단한 과학실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었고, ‘사이언티스트 밴드’가 되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들은 ‘예술’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자기표현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했다.

학생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은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 발표회로 마무리 지었다. 발표회는 ‘호랑이 고양이 요리시간’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해온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과 그 ‘과정’을 다원적으로 풀어낸 아트투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공간인 복지관 전체를 관객들과 함께 투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복지관 곳곳에서 학생들이 보낸 시간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요리시간>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했던 것과 같이 관객들이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영상 음악방>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음악과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사랑스러워 과학자> 공간에서는 과학자가 꿈인 학생이 좋아하는 ‘사랑스러워’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시간을, <인형극>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인형으로 진행하는 인형극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소윤 예술인은 공연에 대해 **“관계가 가까워지면 말하고, 얼굴보고, 노래하고, 춤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관객들이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완성된 형태의 공연이 아닌 우리가 가까워졌던 과정들을 담아낸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편견 없이 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처럼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

# Project List

퍼실리테이터	파견기관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직무유형	파견예술인	프로젝트 소개	
강경호	천안상록리조트	천안상록리조트 예술마케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승환(문학), 장철원(미술)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술 마케팅 방안 연구 및 실행	
	성남수정경찰서	아트홀추로	제품/서비스	최아름(무용), 김진영(영화), 박문영(미술), 황선화(연극)	여성청소년계를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정서치료	
강지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예술가와 함께하는 마을이야기	공동체 문화	신한술(영화), 장은교(연극)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활동 및 진로 상담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라디오, 갈등 드라마	공동체 문화	이현경(연극), 김모은(연극), 유승욱(음악)	우리동네 라디오 : 동네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는 마을 라디오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갈등 드라마 : 아이들의 실제 갈등상황을 재구성 한 인형극으로 관람자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강남도시가스(주)이야기너머(사)동물자유연대	느림의 미학과 놀자 이야기 in 마케팅 시장 동물을 말한다	조직문화 공동체 문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예연옥(미술)	사에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감성적 조직문화 개선 전지은(미술), 김마나(연극) 인소민(미술), 권세정(미술)	
고재욱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	업사이클링 전시 모듈화 기획 지원	자원재생	윤재민(음악), 유영진(사진), 조혜진(미술)	윤재민(음악), 유영진(사진), 조혜진(미술) 협회의 업사이클링 전시 효율화를 위한 폐자원 활용 부스 모듈화 작업	
	사단법인 난국주인도서관 세울	세울에서 인형극하자	공동체 문화	손재민(연극), 최은숙(미술)	난국 지역 주민 대상 인형극 기획 및 진행을 통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고재필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생의 계산	주민역량강화	배민경(미술), 정영신(연극)	관악구 어르신들의 삶의 한과 이야기들을 토대로 공연 기획/제작/실행	
	서부북애인종합복지관	호랑이오랑이 요리시간	공동체 문화	김현정(국악), 박소은(연극), 홍재옥(연극)	서부북애인종합복지관의 발달장애청년들과 공연예술가들이 콜라보하여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내 꿈을 실현하는 공간'	
	사회적기업 우리동네수원시자살예방센터	꿈스케치 정신과 시간의 방	공동체 문화 조직문화	구휘(미술), 류미경(무용), 김태원(미술)	정신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그리며, 오브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하여 판매를 하는 스쿠모 아트마켓 + 공연 만들기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리에 관련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리지도도 만들고 마지못해주는 '사회적기업 우리동네의 아트마켓에 합동전시.'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장의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 마지못 주는 '사회적기업 우리동네의 아트마켓에 사진전 개최'	
	고창신	eC -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사단법인 함찬동네	내손의 미술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태용(미술)	스타트 업 기업과 예술가와의 협업(기술 교류및 디자인 서포트)
	스킨케어	큐어프로젝트	조직문화	이혜선(미술)	이혜선(미술) 사내 환경 개선과 사원간의 유대관계 개선	
	권용주	현실문화 연구	신내풍경사 현실문화	인력개발	김동형(미술), 남상수(미술)	출판사의 출판물을 위한 미니 서점 디자인 및 제안. 공공기관에 설치
	권효진	부여슈퍼	지역특성화	신지영(문학)	재개발구역 작은 동네 슈퍼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과 지역 가치 재조명	
	김무준	(주)소셜통	청춘로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수미(만화), 추민승(문학)	소셜미션을 실천하는 청춘들의 스토리 발굴, 이를 소재로 한 일러스트 작업
	김마남	양평군청	양평닷컴광장예술	지역공간	김동연(미술/서양화), 고대훈(음악), 엄화진(사진/영상)	원주중앙시장 상인 대상 시장안 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녹취/영상/책 제작
	김보경	(주)세정 그룹	Wake up 세정 프로젝트 세정 Project JD(Jick Ding 직딩) 그전 비밀입니다	조직문화	조영주(미술)	조직원 대상 댄스 바이오제적으로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적 분위기 쇄신
	김선형	아다광고디자인	아트바스캠페인	제품/서비스	정내관(공예), 이혜진(공예)	문화공간 페이퍼 바스의 브랜드 상품 기획/제작
	김용란	부천시 원미도서관	책 씨앗, 나무에서 숲으로	조직문화	이유진(문학), 장영복(문학), 이상희(문학)	원미도서관 내 씨앗길센터 활성화 방안 찾기.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 위한 생각 조각 만들기 <읽거나 읽거나> 청소년 추천 도서집 발간
	김철식	(주)아이코닉스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	조직문화	김형관(미술), 이민하(미술)	조직내 디자이너와 프류트서들의 창의성 개발과 조직내 소통
	김윤재	금천구청	트라이앵글	주민역량강화	박경식(연극), 인진미(미술)	시니어 연극팀 구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기획/실행 (연극발표)
	김태균	부천시주인도서관	부천이주인도서관	지역특성화	김동희(미술), 문세나(음악)	예술과 예술가를 매개로 GS홍소핑 직원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추구
	김현아	승과구청	승추는 승파구	지역특성화	장수지(무용)	지역주민들을 위한 승파구만의 문화예술컨텐츠 개발/보급
	김해원	해오름작은도서관	그림책으로	공동체문화	최정선(대중예술)	도서관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마인 공간, 프로그램, 박람회작가와의 협업
	김태준	GS홍소핑	GS4G5#	조직문화	조우람(미술), 이한솔(미술), 손주영(미술), 유주현(영화)	GS홍소핑 본사 공간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예술적으로 표현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인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안화연(문학/사진), 안윤정(만화)
	김태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마음미디어	주민역량강화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정이\_ 사업3팀 팀장 및 사업 PM

이기연\_ 사업3팀

이숙현\_ 사업3팀

김리나\_ 사업3팀

#### 기획위원

김월식\_ 무니만커뮤니티

류성효\_ 독립기획자

양철모\_ 공공미술삼거리

주성진\_ 독립기획자

#### 올댓스토리

김희재\_ 대표

강성삼\_ 스토리기획개발실 실장

조민욱\_ 스토리개발팀 팀장

안중준\_ 스토리개발팀 작가

김근형\_ 스토리개발팀 PD

문주희\_ 스토리개발팀 PD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60명과 예술인 438명

####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사례집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기획·운영\_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팀장\_ 김정이

총괄\_ 이기연

운영\_ 이숙현, 김리나

실행\_ 올댓스토리

대표\_ 김희재

총괄\_ 강성삼

운영\_ 김근형

작가\_ 주성진, 류성효, 김현국, 손구용, 김근형, 박지희

조사\_ 박지희

디자인\_ 일스파시오

발행처\_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_ 박계배

발행일\_ 2015.12.

이 자료집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T. 02-3668-0200 http://www.kawf.kr



20  
15  
JULY  
24  
4PM-5PM

# THE ARTIST'S TALK

**의미와 스타일 사이에서의 갈등, 어느것이 설계도인가?**

**PLAN:** 공연관람, 예술가와의 대화, 피자파티  
융합기술원 A동 16층 Function Room  
강미정 선임연구원 vchm162@snu.ac.kr(예술과 과학 연구센터)

**ABSTRACT:** 이번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8채널 사운드아트 <경계에 닿다.>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해 건축기사에서 늦깎이 전업 예술가가 된 사연과 작품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인 토크가 이어진다.

**ABOUT THE ARTIST:** 배정식은 록밴드의 드러머와 기타리스트로 음악을 시작하였다. 배정식은 다수의 스피커를 이용한 움직이는 소리, 촉각처럼 느껴지는 소리합성 그리고 물과 OHP를 이용한 소리의 시각화를 재료로 사운드아트 공연과 미디어아트 전시를 해오고 있다.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본 이미지는 파견예술인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A r t B u s i n e s s C o l l a b o r a t i o n